

*The Hyowo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효원 영어영문학

| 2017. 2 | 제 35 호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효원영어영문학

제 35 호

2017. 2

목 차

영어권 화자가 어려워하는 한국어 발음 : L1을 이용한 교육 방안 제시	김 성 완 / 1
한정사구 분석의 문제점과 대안적 분석방법	박 효 원 / 13
관련성이론을 기반으로 한 영어 수사의문문 연구: 부정극어와 인식등급에 관하여	이 연 우 / 29
포스트모던 공간에 맞선 에릭의 주체적 변화: 돈 드릴로의 『코스모폴리스』	권요안나 / 43
바틀비의 행복한 글쓰기: 들뢰즈가 열어 놓는 『필경사 바틀비』의 희극적 가능성	우 미 례 / 59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나타난 신화적 숙명	최 선 연 / 79
메타담화 분석- 미국 대통령 연설문 <조지워싱턴 대통령 제1차 취임사,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게티즈버그 연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연설>을 중심으로 -	김 연 주 / 101
후텍스트 분석을 통한 자막 번역 과정 연구 -‘황석희’ 번역가를 중심으로	김 은 아 / 115
소설 번역에서 담화표지 <i>well</i> 의 번역양상	서 은 화 / 125
2014학년도 후기 학위취득자 명단	141
2015학년도 전기 학위취득자 명단	142
2015학년도 영어영문학과 연보	143

영어권 화자가 어려워하는 한국어 발음 : L1을 이용한 교육 방안 제시

김 성 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5년 이후로 한국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사설 영어 교육기관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더욱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프로그램인 EPIK(English Program In Korea)의 영향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많은 수의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왔다¹⁾.

이렇게 외국인 교사의 유입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한국어 교육 사업도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다. 시중에는 영어 교육과 관련된 많은 종류의 책들이 발간되고 있는데, 이러한 책들 대부분은 단어들의 적절한 사용법(usage), 주어에 따른 동사의 쓰임(conjugation)이나 대상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높임법(honorific words)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여러 연구들의 결과와는 상반된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권 한국어 실태 조사 및 개발 방안 연구’에서는 초·중급 학습자들에게는 발음 연습에 중점을 두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시중에 발간된 교재 대부분은 어휘나 상황별 주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열두 과 중 발음 관련 챕터는 한두 과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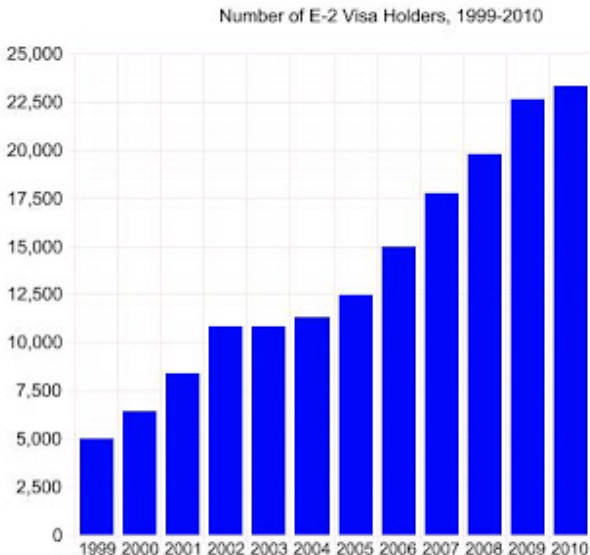
사실, 언어의 주목적 중의 하나인 의사 전달은 발음에 의해 좌우되는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도 발음 습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어의 발음에는 ‘이사’, ‘의사’ 그리고 ‘꿈의 나라’, ‘금의 나라’ 등 영어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모음과 자음의 된소리가 있는데, 이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영어 발음 학습

1) 이러한 영어 원어민 교사(E2 Visa holder) 증가 추세는 아래의 1999~2010년도 법무부 통계 자료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과 관련된 많은 연구와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어 발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나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으며, 이는 기껏해야 영어의 알파벳을 이용하여 한국어 발음에 비슷하게 표시한 정도의 수준의 교재들이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영어 모국어 화자는 한국어 습득 환경을 만나면 발음에 자신이 없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하게 느끼는 모국어인 영어로 다시 쓰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는 결국 한국어 학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사전식 발음(음소적 발음)과 실제 한국 원어민들의 발음(음성적으로 실현된 발음)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모르고 있는 발음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들은 발화를 위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하여 사용하게 되고, 결국 체계적인 한국어 발음 습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특히, 경상남도의 모음 발음은 보편적 한국발음에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다. 가령, 모음 /니/발음에서 /의사/와 /이사/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사전적으로 아는 단어 즉, 머릿속에서 발음을 할 수 있는 단어라도 화자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발화를 하지 않는다면, 청자는 이를 생소한 발음으로 인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는 언어의 주 기능의



상실, 즉, 의사 전달의 실패로 이어진다.

성인 학습자는 모국어 또는 자신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체계가 이미 고착화 되어 있어서, 친숙하지 못한 조음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며, 새로운 발음 체계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이는 L1의 발음체계가 L2 발음 학습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모국어 간섭 (mother-tongue interference)’ 현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의적 여과 (affective filter)²⁾가 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학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습 공간의 분위기, 대화하는 상대방과의 관계 등이 언어 습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Krashen, 1982). 보통 어린이 학습자보다 성인 학습자가 이러한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때문에 성인 학습자를 교육할 때 이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영어 모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발음을 성공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학습자가 상대적으로 애매모호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발음을 별개로 찾아 정리하고, 특히 친숙한 발음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자신의 모국어(L1), 즉, 영어의 발음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음소 배열을 찾아서 한국어 발음 학습을 위해 제공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작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한국어 발음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영어 원어민 한국어 초급 학습자가 발음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한국어 모음은 무엇인가?
2. 영어 원어민 한국어 초급 학습자가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한국어 자음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한국어를 교육하는데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이

2) 정의적 여과는 언어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사회적 지위(신분)와 연결시켜 상대방과 제 2 언어로 이야기를 할 때, 언어의 오류를 염두 해 두어서, 자신이 없는 부분을 도피하는 경향이 아니면, 머릿속에는 방법적으로는 준비가 되어있으나, 주변의 의식 때문에 발화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을 말한다.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 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EFL교육에서 이해가능한 발음의 문제를 알아내는 연구 (Identifying Problematic Segmental Features to Acquire Comprehensible Pronunciation in EFL Settings)에서는 L2를 쓰는 화자들 사이의 담화에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모국어인 L1을 쓰는 화자와 L2를 쓰는 화자들 사이에서 또한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Kazuya, 2011).

L1을 이용하여 목표 언어를 학습하는 방식이 학습에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L1의 사용이 L2 교실에서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Bouangeune, 2009; Ellis, 1985; Auerbach, 1993)의 의견이 있는 반면, L2 학습에 있어서 L1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Atkinson, 1987; Sharma, 2006; Storch & Wigglesworth, 2003; Al-Nofaie, 2010; Machaal, 2012; Nation, 2003; Salah & Farrah, 2012; Tang, 2002; Swain & Lapkin, 2000) 역시 존재한다. 이렇게 L2를 학습하는 교육 환경에서의 L1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학습자의 문화, 배경, 성격, 나이 등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많은 변인들이 관계 되기 때문에 예측되며, 이 때문에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발음 교육에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파닉스(Phonics) 교육 방식이 존재한다. 사실 파닉스(Phonics) 체계를 통해 교육 하는 방법은 처음, 한국인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되었다. 파닉스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에서는 구두 능력을 고려하여 음성학에 근거로 읽기와 철자 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하나의 교수 방법으로 본 송금주(1985)의 연구가 있다. 또한 김혜미(2008)의 유아기 때 효과적인 영어 읽기를 위한 교수법 연구에서는 초보자들에게 단어를 읽어 주고, 소리 내어 가르치는 방법을 파닉스 교육 방식이라고 정의내리기도 하였다.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파닉스가 필요한 이유를 많은 논문에서 언급되었다. 김형복(2006)에 의하면, 한국어는 음절과 음절의 경계에서 소리 변동이 많고 복잡하며, 표기는 소리 변동이 일어나기 전의 형태를 밝혀 씌으로써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변용걸(2013)에서는 한국어 파닉스를 영어의 파닉스로 표기한다는 것은, 초급 학습자와 입문자들에게는 좋겠지만, 이것을 본격적인 교육 과정에 도입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파닉스의 필요성과 그 의미, 그리고 체계 및 교육 방향 등에 대해 밝힌 김선정(2004), 김형복(2006) 외에 한국에 파닉스 체계를 활용하여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성과를 이룬 연구가 있다. 특히 한국어 파닉스 교재로 만들어진 비전워크 2003(VISIONWORK 2003)은 컴퓨터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DVD 교재로서 한국어 파닉스를 활용해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고안 된 교재이다. 이는 새로운 한국어 교재로서 뿐만 아니라 파닉스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의 성과물로서, 한국어 파닉스가 실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교재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이를 정리해 보면, 파닉스는 언어의 글과 소리를 기억하게 하여 모국어 화자와 같이 바르게 읽고, 바르게 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 방법 혹은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전 연구들이 EFL(English as Foreign Language),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의 관점에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데 치중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KFL(Korean as Foreign Language)와 같이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화자들, 특히 초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실험 방법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한국어 자음과 모음의 발음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통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여기에 한국어의 된소리 가령, /xx/, /ㄲ/, /ㄸ/ 은 제외되었는데, 이는 이들 발음이 영어 발음에 의미를 구분시켜주는 최소 대립쌍(minimal pair)은 가지지 않고, 초분절음(suprasegment)에만 속하기 때문이다.

3.1 설문지 참여자

본 연구의 실험은 부산 소재의 영어 사설 교육기관이나 공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영어 원어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초기 모집된 19명 중 영어를 L1으로 하지 않는 지역에서 온 2명(독일, 노르웨이)은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 생활을 한지 6개월 이하이며, 영어를 L1으로 하는 국가 및 지역에서 20년 이상 생활한 대상자들(영국 4명, 캐나다 7명, 미국 3명, 남아프리카

카 공화국 2명, 호주 1명) 총 17명이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들 17명은 모두 한국어를 소리 나는 대로 읽을 수는 있지만, 의미와 어떻게 연음이 되는지는 모르는 한국어 초급자이다.

3.2 설문조사 내용

6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의 내용과 관련된 아래 <표 1>를 살펴보자.

<표 1> 발음하기 어려운 한국어 설문지

Korean Study for English Speakers	
Thank you for sharing your precious time for this survey. This is used for personal use only.	
1. Where are you from? Name Your Country.	
2. Have you lived in other countries? If you have, how long did you stay?	
3. How long have you stayed in South Korea?	
4. Have you experienced any inconvenience without learning/speaking Korean in Korea?	
5. If you have learned Korean, what are difficult sounds to pronounce? -Circle everything you think is difficult to pronounce.	
Consonants: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Vowels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
6. If you have one or more, what do you think makes it difficult?	

4. 설문결과

다음은 본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표이다.

〈표 2〉 국가별 빈도수

Nationality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AU	1	5.9	5.9	5.9
	CA	7	41.2	41.2	47.1
	SA	2	11.8	11.8	58.8
	UK	4	23.5	23.5	82.4
	US	3	17.6	17.6	100.0
	전체	17	100.0	100.0	

참여자 오스트리아(AU) 1명 캐나다(CA) 2명 남아공(SA) 2명 영국(UK) 4명 미국(US) 국적 3명 총 17명으로 영국 참여자가 23.5%로 가장 높았다.

〈표 3〉 한국발음 모음/ㄴ/의 어려운 정도

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쉬움	1	5.9	5.9	5.9
	어려움	16	94.1	94.1	100.0
	전체	17	100.0	100.0	

〈표 4〉 한국발음 모음/ㅡ/의 어려운 정도

ㅡ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쉬움	1	5.9	5.9	5.9
	어려움	16	94.1	94.1	100.0
	전체	17	100.0	100.0	

실험 결과, 가장 어렵다는 느끼는 모음 발음은 이중 모음 ‘ㄴ’로 17명 중 16명이 이를 특히 어려운 모음이라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어렵게 느끼는 발음은 ‘ㅡ’ 발음으로, 17명 중 11명이 이 발음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표 5〉 한국발음 자음/ㄷ/의 어려운 정도

ㄷ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쉬움	6	35.3	35.3	35.3
	어려움	11	64.7	64.7	100.0
	전체	17	100.0	100.0	

〈표 6〉 한국발음 자음/ㄹ/의 어려운 정도

ㄹ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쉬움	11	64.7	64.7	64.7
	어려움	6	35.3	35.3	100.0
	전체	17	100.0	100.0	

실험 결과, 가장 어렵다는 느끼는 자음 발음은 자음 /ㄹ/로, 17명 중 11명이 이렇게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어렵게 느끼는 발음은 /ㄷ/로 17명 중 6명이 이 발음을 어렵게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5. 결론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영어가 L1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발음 중에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자음과 모음을 찾아내도록 설문지를 배포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실험 참여자는 발음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모음으로는 /ㅡ/ 그리고 이중모음으로 /-ㅣ/이 있었으며, 자음으로는 /ㄹ/ 그리고 /ㄷ/ 이 습득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자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실험 전, 한국어와 영어의 모음 체계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학습자들이 /ㅡ/나 /-ㅣ/의 경우를 가장 어려워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러한 예측은 실험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발음하기 어려운 자음 부분에서는 본 연구자의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어 자음 발음 /ㄹ/는 영어의 자음발음 /r/, /l/ 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ㄹ/을 영어 화자가 어려운 자음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으나 실제 실험 결과에서 참여자들은 자음 /ㄹ/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영어표기법에서는 그리고 한국어 모음 /ㅡ/ 그리고 /-ㅣ/는 비슷한 자질이 영어 모음에 없어서,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u/ 그리고 /eu/로, 우리말 자음 /ㄹ/가 단어 처음에 올 때는 보통 영어 자음 /r/ 표기하고, 단어 마지막에 올 때는 영어 자음 /l/로 표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표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

으며, 조금 더 근접한 발음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Atkinson 1987; Sharma 2006; Storch & Wigglesworth 2003; Al-Nofaie 2010; Machaal 2012; Nation 2003; Salah & Farrah 2012; Tang 2002; Swain & Lapkin 2000)에 따르면, L1의 친숙한 언어 체계를 L2 학습에 이용하면 좀 더 편안하게 느끼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한국어 발음 표기 체계를 좀 더 영어 발음 체계와 부합되는 것으로 교정한다면 영어 원어인 한국어 학습자가 이를 좀 더 편안하게 느끼게 하고 학습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L1 안에서 주어지는 가장 가까운 단어의 발음 중 일부를 빼내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한국어의 발음 가령, /-l/ 그리고 /-r/에 대입시키면(L1의 사용), 발음을 이해하기 쉽고 발화를 가장 가깝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한국어 학습의 단계적인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단기적 프로그램에서 특정 모음에 초점을 둔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Krashen(1982)이 주장하는 제 2언어 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서 언어습득을 더욱 어렵게 하는 정의적 여파를 낮춰 줄 수 있을 것이며, 효과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Work Cited

- 강승혜 외 4명(Kang, S.H. et al.). 2010. 영어권 한국어 교재 실태조사 및 개발 방안 연구(The Research of Korean Textbooks Used in English Speaking Countries for Developing Standard Korean Textbooks). 국립국어원(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 김형복(Kim, Hyoung Bok). 2009.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Study on Teaching Korean Pronunciation).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Ph. D. Dissertation. Pusan University).
- 김혜미(Kim, Hemi). 2008. 유아기 때 효과적인 영어읽기를 위한 교수법 연구(A Method of Teaching for Effective English Reading during Early Childhood: A Comparative Analysis of Story Phonics and Phonics Reading).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M.A. Thesis. DongGuk University).
- 변웅걸(Byun, Ung Gerl). 2013. 파닉스 체계를 활용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연구(A Study on Education Methods of Korean Pronunciation Using Phonics: Focusing on English Speaking Students). 경희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 논문(M.A Thesis. Kung Hee University).
- Al-Nofaie, H. 2010. The Attitudes of Teachers and Students towards Using Arabic in EFL Classrooms in Saudi Public Schools. *Novitas-ROYAL (Research on Youth and Language)* 4(1), 64-95.
- Atkinson, D. 1987. The Mother Tongue in the Classroom: A Neglected Resource? *ELT Journal* 41(4), 241-247.
- Auerbach, E. R. 1993. Reexamining English Only in the ESL Classroom. *TESOL Quarterly* 27(1), 9-32.
- Bouangeune, S. 2009. Using L1 in Teaching Vocabulary to Low English Proficiency Level Students: A Case Study at the University of Laos.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23(3), 186-193.
- Ellis, R. 1985.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Kazuya, S. 2011. Identifying Problematic Segmental Features to Acquire Comprehensible Pronunciation in EFL Settings: The Case of Japanese Learners of English. *RELC Journal* 42(3), 363-378.
- Krashen, S. D.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Press.
- Machaal, B. 2012. The Use of Arabic in English Classes: A Teaching Support or a Learning Hindrance? *Arab World English Journal* 3(2), 194-232.
- Nation, P. 2003. The Role of the First Language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Asian EFL Journal* 5(2), 1-8.
- Krashen, S. D. and T. D. Terrell, T. D. 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Oxford: Pergamon Press.
- Salah, N. M. H. and M. A. H. Farrah. 2012. Examining the Use of Arabic in English Classes at the Primary Stage in Hebron Government Arab. *World English Journal* 3(2), 400-436.
- Sharma, B. K. 2006. Mother Tongue Use in English Classroom. *Journal of NELTA* 11(1), 80-87.
- Storch, N. and G. Wigglesworth. 2003. Is There a Role for the Use of the L1 in an L2 Setting? *TESOL Quarterly* 37(4), 760-769.

Abstract

Pronunciation Difficulties for the Native English Speaker : Suggestions of Application of L1 for Korean Speaking Education

Kim, Sung 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ifficult pronunciation for English native speakers on Korean vowels and consonants, in order to give proper and customized training on Korean pronunciation. Currently, Korean learning textbooks published in the market rarely provide adequate descriptions on how to correctly pronounce the language. Therefore, in this study, as a threshold of further future studies in this field, the most difficult pronunciation of Korean are examined by a survey done on 17 English native speakers who are beginner learners of Korean. The result shows /ㅡ/ and /-ㅣ/ are the most challenging vowels to pronounce and /ㄷ/ and /ㅌ/ are the two consonants that cause the most difficulty in speech. (Pusan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Korean pronunciation, Korean speaking education, Korean as foreing language, language education through L1

한정사구 분석의 문제점과 대안적 분석방법

박 호 원

1.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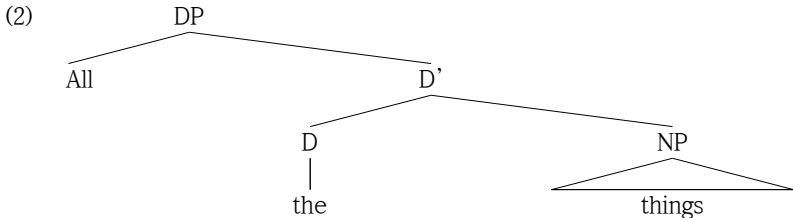
전통문법에서 품사를 설정할 때, 8가지 품사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 품사 중에서, 한정사는 형용사의 일부로 표현되어 있었다. 실제로 beautiful 과 같은 형용사와 a, a(n), the 와 같은 관사, this, that 과 같은 지시사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하지만, 1957년 Chomsky의 변형 생성문법(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가 출간되면서부터, 이전까지는 품사라고 지정하던 부분을 범주(category) 라는 개념을 통하여 설명하기 시작한다. 즉, 명사구(Noun Phrase)는 명사를 핵어(Head)로 하는 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이 Chomsky 의 NP(Noun Phrase)분석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만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Abney(1987)는 이전까지 명사구로 분석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한정사를 핵어로 하는 한정사구(Determiner Phrase)를 주장한다. 이 한정사구는 종전까지 사용되었던 명사구를 보충어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종전까지의 구의 핵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휘적인 요소(lexical element)만 가능하다는 설명을 뒤집고 구의 핵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기능적인 요소(Functional element)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언어학적 발전을 이룬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종전까지는 핵어로 보지 않았던 접속사(Conjunction), 시제(Tense) 등도 핵어로 보는 CP와 TP 및 IP 분석이 등장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DP분석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기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유격을 DP로 표현하는 부분에서, DP의 핵어가 과연 's 가 될 수 있는 지에대한 의문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P분석의 특징을 분석하고, DP 분석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여보고, 정말로 DP분석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밝혀보려고 한다.

2.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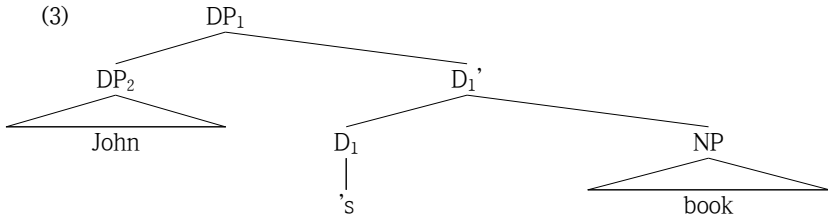
Chomsky의 변형생성문법(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에서 품사를 범주화(Categorization)하여 명사구(Noun Phrase)를 설정하였다. 이 명사구는 어휘 범주에 속하며 명사(Noun)를 핵어(Head)로 가지는 구이다. 하지만, 이 분석은 아래와 같은 예문들을 통사적으로 설명하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1) All the things I owned went with the dirt.

위의 (1)의 예문에 등장하는 all the things 와 같은 명사구는 NP를 활용하는 분석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한정사가 두 개나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NP를 이용한 분석에서 핵어인 things 앞에 비어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지정어(Specifier) 뿐인데, 지정어 자리는 한 개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한정사를 핵어로 보자는 Abney(1987)의 DP 가설(DP Hypothesis)이 등장하게 된다. 이 가설을 통해서, 위의 (1)의 예문의 All the things를 아래처럼 분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래의 속격표현도 이 DP 가설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기존의 NP 분석에서 어휘범주에서 기능범주로 확장하면서 등장한 DP로 분석하는 것의 이점은 아래와 같은 예문을 분석할 때 등장한다.

- (4) a. the man standing over there's hat
b. One of our oldest friend's idea.

위의 (4a) 예문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the man 이라는 명사 뒤에 's'가 붙는 것이 아니라, the man standing over there 라는 명사구 뒤에 's'가 붙는 점이다. 이는 아래와 같은 예문에서도 등장한다.

- (5) a. The man in the hall's taste in wallpaper is appalling.
b. Every man I know's taste in wallpaper is appalling.
c. That brother-in-law of mine that I was telling you about's taste in wall paper is appalling.

위의 (5)의 예문들을 Jespersen의 용어를 따르자면, "Group genitive" 라고 부른다. 이 예문들로 위와 마찬가지로 종전의 NP 분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 다른 DP 분석의 이점을 아래의 예문에서의 격부여 문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 (6) Mary's translation of the book.

명사는 보통 자신의 보충어(Complement)에게 of 속격을 부여하고, 자신의 지정어(Specifier)에게는 -s 속격을 부여하지만, 위의 (6)의 예문을 NP로 분석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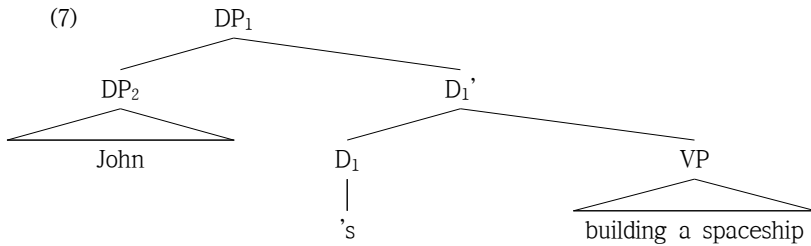
translation 이 the book에게 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되며, of가 the book에게 격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translation은 Mary에게도 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된다.

위의 예문들에서처럼, 격을 부여하는 문제, Quirk, et al.(1985)에 따르면 한정사는 전치 한정사, 중심 한정사, 후치 한정사 세 부류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한정사들이 동시에 등장할 때의 분석 문제 등으로 인하여 Abney(1987)의 DP 가설(DP Hypothesis)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 분석이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DP분석이 존재해왔다.

3. DP 분석의 문제점

3.1. 속격 분석의 문제점

영어에서 속격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of 속격과 -s 속격이 존재한다. 이들은 자유속격(Free genitive)과 구조체 속격(construct genitive)라고 각각 불리기도 한다. Abney(1987)의 DP 가설(DP Hypothesis)에 따라 -s 속격(구조체 속격)을 분석할 시에 종전의 NP 분석보다 이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위의 (7)의 분석에서,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은 지금 DP₁의 핵어 이자 최소투사인 D₁이 ‘ ’s ’ 라는 점이다.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Headedness Principle(유해성 원리)¹⁾ 라는 것이 존재한다.

1) Headedness Principle : Every nonterminal node in a syntactic structure is a projection of a 4head word.

이 유핵성 원리에 따르면, 통사구조의 모든 비중결마디는 핵어 단위의 투사이다. 그렇다면, 과연 ‘s’가 핵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아래의 예문에 나타나 있는 복수명사의 속격표현을 살펴보면, 위의 수형도에는 분명히 핵어로 나타나 있는 ‘s’가 s가 사라지고 ‘ ’만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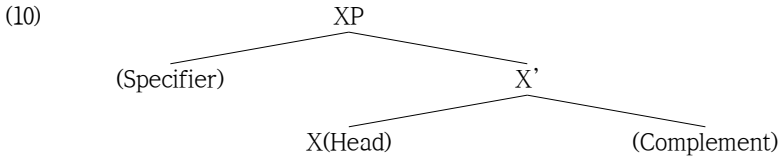
- (8) a. The duck's (/dʌks/) pond
 b. *The ducks's (/dʌksɪz/) pond

위의 예문(8)을 통하여, 만약 ‘s’가 핵어라고 한다면, 구(Phrase)의 필수적인 요소인 핵어(Head)가 생략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핵어가 어떤 경우에는 등장하고, 어떤 경우에는 생략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즉, 핵어가 선택적이 된다는 것이다. 핵어가 선택적이 된다면, 위 문장들을 통사적 분석을 할 때, 이 문장이 어떤 구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그 이유는 구 속에서 중심적인 요소로 기능하는 것이 핵어인데, 그 핵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속격을 DP로 분석할 때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아래의 예문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 (9) a. [DP Anna] [D° 's] new car has been stolen.
 b. *[D° 's] new car has been stolen.
 c. [D° Her] new car has been stolen.

위의 예문을 수형도로 나타낸다면, 위의 (7)의 수형도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DP₁의 핵어는 ‘s’가 될 것이며, 이 핵어의 지정어(Specifier)는 DP₂ 이고, 보충어(Complement)는 new car 가 될 것이다. X-bar Theory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일반화 규칙을 가지게 된다.



위의 (10)의 수형도에 따르면, 핵어(Head)는 지정어(Specifier)와 보충어(Complement)를 하위 범주화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9a)의 예문을 보면, ‘s’가 DP₁의 핵어임에도 불구하고, 지정어인 [DP Anna]를 하위범주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DP₁의 핵어로 등장한 ‘s’가 핵어가 아니며, 속격을 DP로 분석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Jensen (2012:114)에 따르면, ‘s’가 소유대명사(Possessive Pronoun)로 구성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는 아래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1) Peter’s mum ’s Jaguar cost 1’000’000 £.
- My mum ’s cost 2’000’000 £.
 - My mum ’s Aston Martin cost 2’000’000 £.
 - *Mine ’s cost 2’000’000 £.
 - *Mine ’s Aston Martin cost 2’000’000 £.

(11a)와 (11b)에서처럼 My 로 문장이 변경 될 때는 문장이 비문이 되지 않지만, (11c)와 (11d)에서처럼 소유대명사 Mine으로 문장이 변경이 될 때는 문장이 비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를 통하여 ‘s’를 핵어로 보는 DP 분석이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분포상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동사는 그 뒤에 오는 보충어를 선택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동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정한 한정사, 수사, 관사 등을 결코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동사가 그 뒤에 등장하는 명사구(Noun Phrase)는 제한 없이 받아들이지만, 특정한 한정사, 수사, 관사 등이 등장할 경

우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아래의 예문을 보면 확인해 볼 수 있다.

- (12) Nonexistent selectional pattern:
 a. John glorped books. (Baltin, 1989:(35))
 b. *John glorped his books. (Baltin, 1989:(36))
- (13) Nonexistent selectional pattern:
 a. Samuel is streading a book.
 b. *Samuel is streading the book.

위의 (12), (13) 예문에서처럼, 동사가 선택하는 보충어가 명사구는 제한 없이 받아들이지만, 한정사나 수사 등이 들어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래의 예문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14) a. I gathered the students.
 b. *I gathered the student.
 c. I gathered the French Club.
 d. *I gathered the scissors. (where there's only one pair of scissors)
- (15) a. The studnets met.
 b. *A student met.
 c. A student and a professor met.

또한, 아래의 예문들을 통하여 NP와 DP 사이에 분포상의 차이점이 존재하며, 분포상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명사구를 DP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16) a. [NP Nice man] though he is, my uncle can be a bit boring.
 b. *[DP A [NP nice man]] though he is, my uncle can be a bit boring.
- (17) a. *I met [NP nice man].
 b. I met [DP a [NP nice man]].

- (18) a. *I consider my uncle [NP nice man].
 b. I consider my uncle [DP a [NP nice man]].

위의 예문들을 통하여, 명사의 속성들이 기능적인 층위들에 스며들어 있다는 Abney 의 주장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명사구에서, 형태적인 부분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한정사가 아니라 그 명사구의 핵어인 명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19) a. too many / *much people
 b. too much / *many rice
 c. these / *this sciss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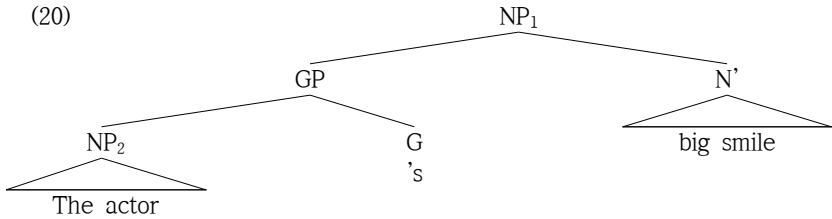
위의 (19)의 예문에서처럼, 어떤 한정사가 올 수 있느냐 혹은 단수, 복수를 결정하는 등의 속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명사구의 핵어인 명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한정사구를 DP로 분석하기에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4. 대안적 분석

앞 장에서 등장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DP로 분석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분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4.1. GP(Genitive Phrase)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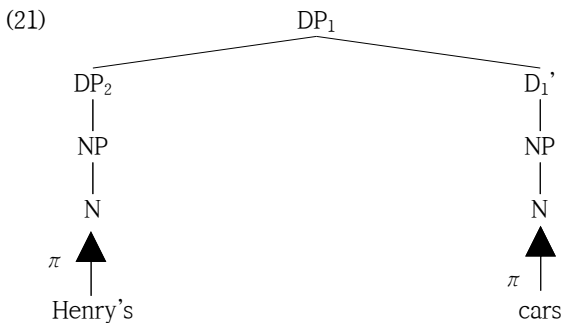
Jensen (1994, 2012) 은 아래와 같은 대안적 분석인 GP(Genitive Phrase)분석을 제안한다.



위의 분석에 따르면, GP는 NP₁의 지정어이며, NP₂는 G의 보충어라고 설명한다. 이 분석을 통하면, NP₁의 지정어 자리에 GP가 올 수도 있고, 혹은 한정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4a)에 등장했었던 the man standing over there's hat 에서 NP의 최소투사인 N⁰인 the man 에 's'가 붙지 않고 the man standing over there 뒤에 붙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10)에 등장했었던 X-bar theory의 일반화 규칙에 일치하는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4.2. Affix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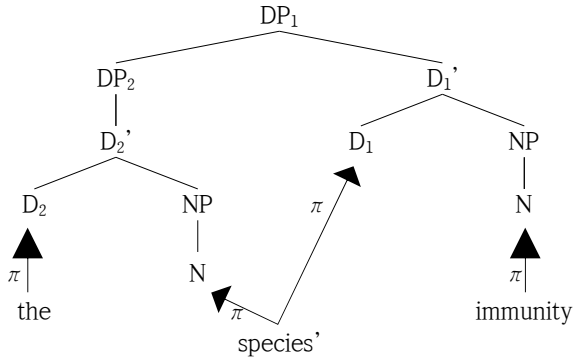
Lexical-Functional Grammar²⁾(LFG)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속격을 분석할 수 있다.



2) Lexical Functional Grammar : a theory of the structure of language and how different aspects of linguistic structure are rel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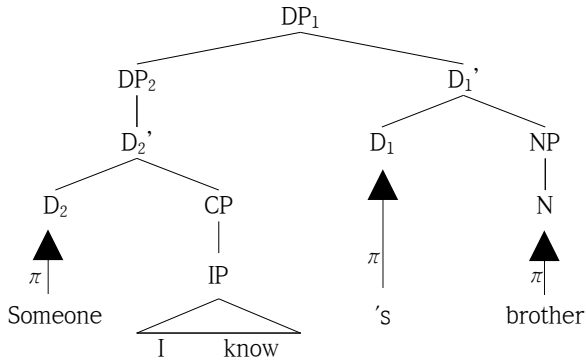
만약, (8b)에 나왔었던 복수형의 속격표현을 나타낼 때 ‘s’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Lexical Sharing을 활용하면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s’가 접사(Affix)이기 때문에 속격표현이 단일의 어휘 항목이지만, 두 단어 연속체(명사와 소유격 접어)의 통사적 구조는 계속해서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2)



또한, 이러한 설명방법을 통해서, (4a)의 예문에서 등장한 명사구의 핵어인 명사에 ‘s’가 붙지 않고, 명사구 뒤에 붙는 현상도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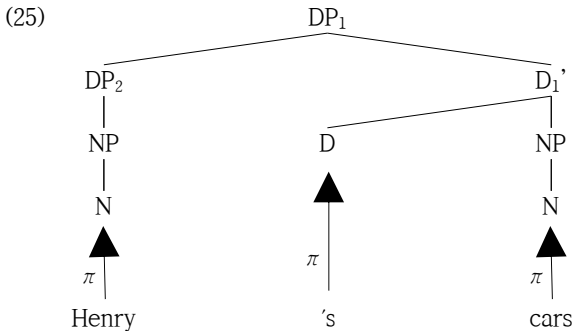
(23)



4.3. Clitic 분석

‘s’를 우리가 흔히 아래와 같은 문장에서 등장하는 접어처럼 생각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 (24) a. John does n't know it yet.
 b. *Why does John n't know it yet?
 c. Why does John not know it y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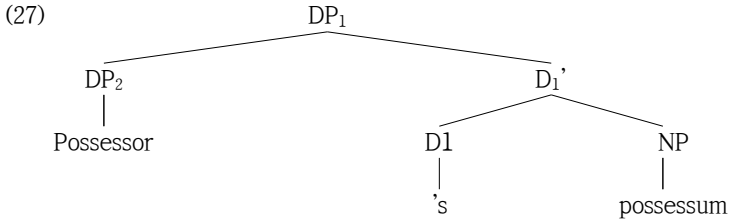
접어로 ‘s’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아래에 나타나 있는 clitic(접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자

- (26) Clitic : an element which does not have the independence of a word (prosodically) but which is still positioned by the same rules as independent word

위의 정의처럼, 접어라는 것이 독립적인 단어처럼 생각될 수 있다. 위의 (24)의 예문을 다시 살펴보자면, 부정 접어의 현상에서 접어라는 현상이 아무 것이나 막 결합하여 접어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접어화 되면서 일부가 생략이 될 수도 있으며, 특정한 경우(예를 들면 :

am not → ain't)에서는 형태가 완전히 변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s’가 접어라고 보기 때문에, (4a)에서 등장한 명사 바로 뒤에 ‘s’가

오지 않고, 명사구 뒤에 등장하는 부분도 접어화를 통한 속격 분석을 아래와 같이 일반화 시켜준다면 설명할 수 있다.



4.4. Special Clitic 분석

Stephen R. Anderson(2008)은 위의 (4a)와 같은 예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그 구의 한정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음운적으로는 비어 있지만, 소유관계의 형태적인 실현은 [+POSS] 라는 자질을 그 구에 부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자질 부여 규칙을 가진다고 말한다.

(28) English possessive : $DP \rightarrow [+POSS] / [_{DP} [_] D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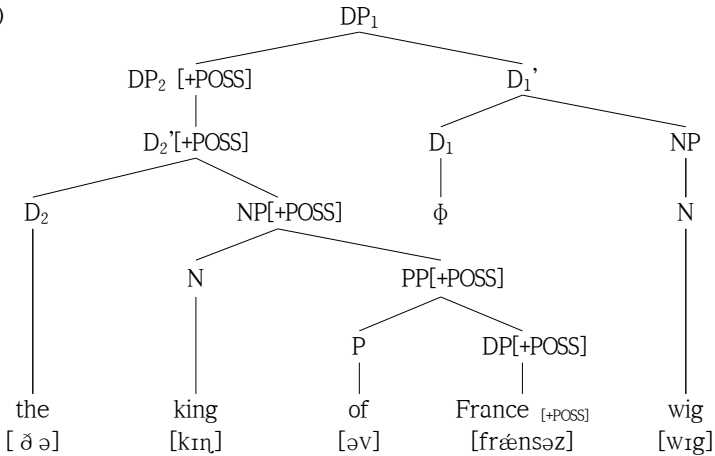
또한, 영어에서의 [POSS] 자질의 실현은 아래와 같은 규칙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9) English [POSS] realization : Adjoin /z/ to the final syllable of a DP bearing the feature

[+POSS]

따라서 아래와 같은 구조를 형성한다.

(30)



5. 결론

X-bar Theory를 통해 구가 될 수 있는 대상을 종전에는 어휘범주(Lexical Category)에서 기능범주(Functional Category)로 점차 확장을 해가면서, 이전에는 명사구(Noun Phrase)로 분석하던 부분을 한정사구(Determiner Phrase)로 분석을 하게 되었다. 물론, 한정사뿐만 아니라 접속사(Conjunction) 및 시제(Tense) 등도 범주가 확장되면서 새롭게 분석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명사구 표현들을 한정사구로 모두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DP분석을 재고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문점들을 통하여, DP분석을 다시 재고하여보고, 다른 대안적인 분석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 의문점은 영어의 속격표현 중에서도 자유속격(Free Genitive)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핵어가 's'가 되는 문제점과 이 복수형의 속격표현에서 이 핵어가 생략되는 현상이었다. 또한, 속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X-bar theory에 따르면, 특정한 구의 핵어는 지정어(Specifier)와 보충어(Complement)를 하위범주화(Subcategorization)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유대명사를 이용하여 자유속격을 표현하려는 시도가 실패함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의문점은 분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동사가 그 뒤에 명사구 보충어를 섰

택할 때, 특정한 한정사를 선택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명사의 수와 같은 형태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그 속성은 한정사구의 핵어인 한정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구의 핵어인 명사가 결정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다양한 의문점들을 살펴보고 난 후에 이 DP분석을 대신할 만한 대안적인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GP(Genitive Phrase)의 설정을 통하여, 속격표현의 의문점을 해결하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는 X-bar theory에서 어휘범주에서 기능범주로의 확장되는 현상과 더불어 속격이라는 표현도 따로 독립적인 구를 형성한다고 봄으로써, 앞에서 생겨났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점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접사(Affix)분석에서는 Lexical-Functional Grammar(LFG)를 통해서, ‘s’가 접사로 보는 것이 문제가 없으며, 앞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점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접어(Clitic)분석에서는, ‘s’를 접어로 보고 이를 통한 속격표현의 형성을 접어화 된 것으로 봄으로써, 마찬가지로 앞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점들을 확인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접어(Special Clitic)으로 보는 분석에서는, 한정사구의 한정사는 음운적으로는 본래 비어있었으며, 형태적인 소유의 실현은 [+POSS] 라는 자질의 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앞에서 발생한 의문점이 해결되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DP분석이 완벽하지는 않으며, 아직 여러 가지 해결할 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X-bar theory의 범주가 확장되면서, 어디까지 이 범주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 등장한 GP(Genitive Phrase)분석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범주의 확장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

Work Cited

- Anderson, S. R. 2008. The English “group genitive” is a special clitic. *English Linguistics*, 25(1), 1-20.
- Andrew C. 2013. *Syntax A Generative Introduction*. WILEY-BLACKWELL
- Andrew R. 2011. *Analysing English Sentences A Minimalist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s A. 2013.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Palgrave Macmillan

- Bruening, B. 2009. Selectional asymmetries between CP and DP suggest that the DP hypothesis is wrong. University of Pennsylvania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5(1), 5.
- David A. 2012. *CORE SYNTAX A Minimalist Approach*. Oxford University Press
- Dalrymple, M. 2001. *Lexical Functional Grammar*. John Wiley & Sons, Ltd.
- Geoffrey P. 2011. *SYNTACTIC THEORY*. Palgrave Macmillan
- Koenraad K. and Jacqui N. 2014. *theories of syntax concepts and case studies*. Palgrave Macmillan
- Lowe, J. J. 2016. English possessive's: clitic and affix.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34(1), 157-195.
- Scott, A., Denison, D., & Börjars, K. 2007. Is the English possessive's truly a right edge phenomenon?.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inguistics of Contemporary English (ICLCE)* Vol. 2.
- Vikner, S. Possessors as subjects inside the nominal group: DP-spec vs. GP.
- 전현석. 2012. DP-이론의 설명력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Abstract

The Problems of Analyzing Determiner Phrase and Alternative ways

Park, Hyo-won

In X-bar theory, there has been a expansion from lexical categories to functional categories. The one introduced earliest among functional categories was Determiner Phrase(DP). DP Hypothesis was introduced by Abney(1987) due to many problems in analyzing with Noun Phrase(NP). However, this seemingly perfect DP Hypothesis has difficulty in analyzing all NPs.

Therefore, this paper will firstly check the features of DP hypothesis, the points that made us move from NP analysis to DP analysis and will confirm the problems related with DP analysis. The most common problem is about genitive analysis. The formal marker of possession ('s) is in the head and sometimes disappears. The second problem is distribution problems. All DPs are not necessarily accepted in any situation where NP is needed.

Also, this paper will show alternative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We can introduce GP(Genitive Phrase), regard the possessive formal marker as affix or clitic or even special clitic. Among these, I think GP analysis is the interesting part since we can expand categories of X-bar theory much further on account of this. I think this analysis needs to be polished to fit the X-bar theory, but this analysis will be the starting point that will make many other analysis related with expanding categories of X-bar theory.

Key Words

DP hypothesis, Alternative DP analysis

관련성이론을 기반으로 한 영어 수사의문문 연구: 부정극어와 인식등급에 관하여

이 연 우

1. 서 론

본 연구는 담화 내에서 나타나는 수사의문문이 대화 참여자의 인지에 기여하는 양상을 관련성이론(Relevance Theory)의 관점에서 밝히며, 수사의문문이 가진 극성전환(polarity reverse)의 특성을 수사의문문에 포함된 부정극어의 사용과 연관 지어 조명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문문은 다른 문장의 형태와 달리 뚜렷한 몇 가지의 형식적인 특성을 갖는다. 통사적 형태로는, 주어와 동사의 도치나 전형적인 운율적 특성, 그리고 wh-로 시작되는 것과 같은 형식적인 특징을 갖는다.

- (1) a. Did you have any alcohol?
b. You had some alcohol?
c. Did you or didn't you have some alcohol?
d. What kind of alcohol did you have?

(1a)는 전형적인 Yes-No 의문문의 형태이며, (1b)는 서술문(declarative sentence)의 형태이지만 끝을 올려 읽는 운율적 특징으로 의문문임을 보여준다. (1c)는 선택의문문의 형태이며, (3d)는 wh-로 시작되는 의문문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단순한 통사형식에 의해 의문문이 갖는 본질 이외에, 담화에서 화자의 의도에 따라 의문문을 분류하는 의미화용적 형태가 본 논문에서 다룬 의문문의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의문문은 화자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고 청자가 그 무엇을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사용된다.

(2) What do you know about him?

(2)와 같은 의문문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형태로서 의문사가 사용된다는 형식적인 특징이 있다.

(3) She is very pretty, isn't she?

(3)은 화자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오히려 청자에게 제공하려는 의도가 담긴 의문문이다. 위의 두 가지 형태의 의문문은 담화 상에서 기능이 매우 다르며 (3)과 같이 정보를 요구하는 기능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는 의도가 담긴 의문문을 수사의문문(rhetorical question)이라 한다.

(4) What could be more wonderful than the Universe?

수사의문문은 화자에 의해서 대답이 이루어지지기 때문에 청자로부터 어떤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형식이다. (4)에서 화자는 우주야말로 정말로 신비로운 존재라는 점을 청자에게 알리고 있을 뿐이며, 우주보다 더 신비로운 존재에 대한 정보요구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수사의문문의 긍정의문문은 강한 부정의 단언의 의미가 있고 부정의문문은 강한 긍정의 의미가 있다. 형식은 의문문이나, 의미적 기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음운적 기능인 억양실현의 차이에 따라 일반의문문 또는 수사의문문으로 양면적 기능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상대방의 응답을 요구하는 정보의문문과 응답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의문문은 형태적으로 구별되지 않으며, 개별적 발화 장면의 맥락 설정에 의존하여 해석된다. 수사의문문이 가지는 한계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영어 수사의문문의 구성 요건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논의 과정을 통하여 수사의문문의 문장형식에서 수사의문문을 구분 짓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에 극성어라는 어휘적 특성이 있음을 밝히고, 그에 대응하는 의미 기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려한다.

Grice(1975)는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준을 협력원리(cooperative principle)의 대화격률(maxims)를 통하여 설명하였고, Sperber and Wilson(1995)은 Grice(1975)의 대화격률 중 하나인 관계의 격률(적합성을 띠라)을 바탕으로 보다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Sperber and

Wilson(1995)이 제시한 관련성이론은 의사소통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이다. 이들은 언어적 의사소통(verbal communication)을 명시적-추론적 의사소통(ostensive-inferential communication)의 한가지로 간주하여 ‘명시적인 의사소통의 모든 행동은 그 자체의 최적의 적합한 가정을 전달한다’고 주장한다(Sperber and Wilson, 1995: 260). 따라서 관련성이론은 인간이 주어진 정보를 처리할 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율된 개념이다. 이 이론 아래에서, 대화 참가자들 모두가 자신들의 발화를 맥락에서 최적의 관련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5) Peter: Would you drive a Mercedes?

Mary: I wouldn't drive *any* expensive car.

(Sperber and Wilson, 1995: 194)

위의 예는 예 또는 아니오가 직접적인 대답이나 백과사전적 지식과 상호작용하여 메르세데스(이하 벤츠)가 비싼 차라는 사실을 발생시킨다. Mary의 대답에 대한 추론은 백과사전적 지식과 문맥적 지식에 의존한다. 백과사전적 지식으로는 벤츠는 비싼 차 이므로 그녀가 말하는 비싼 차는 벤츠를 의미하는 것이고, 문맥적 지식으로 그녀는‘any expensive car’라는 표현으로 벤츠뿐만 아니라 BMW나 벤츨리와 같은 비싼 차도 몰지 않을 것이라는 외측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외측을 발생시키는 까닭은 *any*라는 극성어를 사용함으로써 벤츠 외의 비싼 차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는 것 보다 더욱 많은 정보제공을 하여 Peter의 질문에 최적의 대답을 하는 문맥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극성어(예를 들면 any, ever 또는 the hell)는 수사 의문문에서도 종종 사용이 되며, 극성의 사용은 수사이론이 가질 수 있는 중의성(ambiguity)을 해소하는 데 요인이 될 수 있다.

발화에 간접성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으면 맥락효과는 더 증가한다. 즉, 선택 가능한 결론의 범위가 넓을수록 함축의미의 강도는 약해지며, 그 결론을 도출한 책임도 청자가 더 많이 지게 된다. 이렇수록 발화의 시적효과나 은유의 창조성은 더 커진다. 아래의 예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방에 대해서 간접적인 표현을 하는 예문이다.

(6) This room is pigsty. (Sperber and Wilson, 1995: 236)

(6)은 백과사전적 도식에 접근하는 발화이다. 방은 돼지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는 거짓이며, 문자적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백과사전적 지식은 돼지우리가 불결함이 연상된다는 사실을 발생시키고 돼지우리와 방의 상태를 동일시함으로써 방이 불결하고 더럽다는 것을 전달할 의도로 추론할 수 있다. 백과사전적 지식으로의 접근이 아닌 명시적 표현 그대로 접근하려 한다면 전달하려는 의미에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방을 돼지우리라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청자는 정보가 대화의 맥락안으로 수용되어 알려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비현실적 표현을 현실성 영역으로 넘어가는 정보 처리 단계에서 은유적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화자가 기대하는 정보로 청자가 받아들일 수 있다.

수사의문문은 문장구조의 형식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전달되는 의미는 강력한 진술(assertion)의 힘을 가지며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의문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의문문으로 구분되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수사의문문에 대한 내용은 어느 언어학 책에서도 많은 분량으로 다뤄지지 않으며 편의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로 간주되기도 한다. 어찌 보면 아주 작은 언어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수사의문문의 의미론·화용론적 특징을 밝히고 수사의문문의 해석이 도출되기 위해 필요한 언어적 추론에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 지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수사의문문이 언어적 추론의 과정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화용론적 접근법인 관련성이론으로 분석될 수 있음을 보여서 사소하지 않은 언어현상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2. 인식등급으로 추론되는 수사의문문의 해석

Searle(1980)은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질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질문의 의도가 없는 의문문은 대답 요구의 기능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수사의문문은 형태적으로는 의문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기능은 부정 또는 단언의 기능을 가지며 형태와 기능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는 언어현상이다. 정보를 묻는 정보의문문의 형태와 구분되지 않으므로 종종 수사의문문을 정보의문문으로 잘못 해석하기도 한다. 수사의문문의 형태적인 분류로는 yes/no로 대답할 수 있는 일반의문문으로의 수사의문문, 의문대명사를 포함하는 wh-수사의문문, 그리고 조건절을 포함하는 수사의문문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단언과 부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사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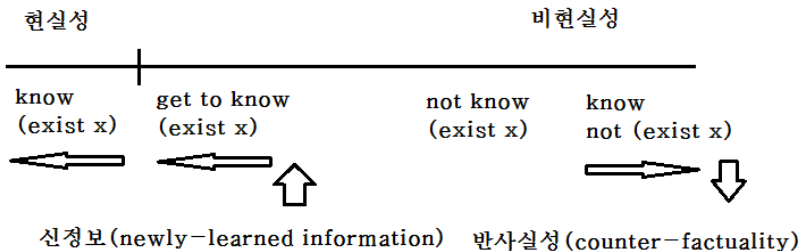
문의 기능과 형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수사의문문과 정보의문문이 구분될 수 있는 자질이 청자의 인식등급에 있다고 보고, 인식등급에 의해 추론되는 수사의문문의 해석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림 1〉 색깔의 스펙트럼



〈그림 1〉은 색깔의 스펙트럼이다. 이 스펙트럼은 양극으로 갈수록 색이 더 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중간은 빨강과 파랑이 섞인 보라색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색깔의 스펙트럼은 수사의문문에 포함된 현실성이라는 자질이 청자에게 전달되었을 때와 비슷하다고 보고 현실성 또는 비현실성이 짊을수록 청자는 수사의문문을 정보의문문으로 해석하지 않고 수사의문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수사의문문이 현실성 또는 비현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중간 어디쯤에 위치한다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Akatsuka(1985)가 [그림 2]처럼 제시한 ‘인식등급’(epistemic scale)개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인식등급(epistemic scale)



〈그림 2〉에서 신정보는 x라는 정보가 대화의 맥락 안으로 수용되어 알려지는 과정에서의 정보 상태를 뜻하며, 반사실성은 x라는 정보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는 정보 상태를 뜻한다.

- (7) a. 비현실성 수사의문문: Who wants to buy yesterday's newspaper?
 (김중현, 2004: 141)
 b. 중의적 수사의문문: Who knows? (김중현, 2004: 126)
 c. 현실성 수사의문문: Is the pope catholic? (Wikipedia)

예문 (7a)의 경우, 보통 날짜가 지난 신문을 구입하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발화에 대한 배경지식에 추가적으로 추론해야할 상황이 생기지 않으며, 청자는 자연스럽게 수사의문문으로 받아들일게 된다. 이 예문이 정보의문문으로 해석될 수 있으려면 예외적인 상황맥락이 작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문문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문이 가지는 비현실성(어제 신문을 사는 것은 무가치한 일)에 의해서 중의적인 해석이 일어날 경우는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중의적 해석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면, 청자가 이 발화의 숨겨진 의도를 추론하는 데까지 많은 인지적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성에 의해서 처리노력이 줄어들며, 줄어든 처리노력으로 인해 이 발화가 포함된 대화의 적합성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예문 (7b)는 정보의문문과 수사의문문의 구별이 되지 않는 문장형식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와 ‘모두가 다 안다’라는 두 표현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문장으로 문맥에 따라 의미가 결정될 것이다. 비언어적 요소인 억양이 실현된다면 문장만으로도 수사의문문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문은 발화장면의 맥락에 의존하는 언어사용의 문제로 돌릴 수밖에 없지만, (7b')에서 부정극어인 the hell이 삽입 된다면 중의성이 해소가 된다.

(7b') Who **the hell** knows?

김중현(2004)은 수사의문문의 명제 내용의 성립 가능성을 ‘극한점’의 설정과 관련된다고 논의하였고, 부정극어를 포함하는 수사의문문은 단언의 화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보였다.

예문 (7c)는 직접적으로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이다. 하지만 교황이 천주교인 것은 당연하므로 극단적 사실에 대한 의문문은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정보의문문의 의도로 질문한 것이라면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 된다. 이러한 예문은 수사의문문이 현실성의

명제내용에 기반을 두어서도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에 대해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의문문으로 강한 긍정을 표현한다는 것을 청자가 인지하기에 큰 노력이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적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8) If love is so blind, why lingerie is so popular? (김중현, 2004: 135)

예문 (8)는 if가 포함된 조건절에서의 수사학의 문문이다. 여기서 제시된 전건 조건절의 명제 내용인 ‘사랑은 눈 먼 것이다’를 부정하기 위해 후건절이 가지는 사실성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건절에서 전건절을 제외하고, 후건절의 의문문 형식만 따로 본다면 ‘why is lingerie so popular?’가 된다. 이러한 의문문은 다른 예문에서 적용시켰던 사실성의 인식등급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수사학의 문문으로의 특징은 찾아볼 수가 없다. (7b)의 경우는 어느 누구에게도 부정할 수 없는 극단적인 현실성을 나타냈지만, (8)에서 란제리가 인기가 있다는 것은 극단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9살짜리 아이에게는 란제리가 인기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건절을 제외하고는 이 문장은 수사학의 문문으로 보기 힘들며, 조건절이 있어야 비로소 수사학의 문문적인 자질이 포함이 되는 것이며, 조건절이 중의성을 해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수사학의 문문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의 답변을 지향하는 발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화자의 수사학적 질문에 청자가 대답하여서 대화의 적합성이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9) A: I waited an hour for my turn, and before I could even start they told me I looked too Midwest for the part. Too Midwest? What the hell does that even mean?

B: Well, the American Midwest was mostly settled by Scandinavian and Germanic people who, well they have a characteristic facial bone structure...

예문 (9)에서 A의 마지막 발화인 수사학적 질문은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청자가 수용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B의 응답은 A의 발화에 내재된 함축의미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학의 문문이 정보요구의 의

미로 변질되어 버린다. 이 예문은 미국 시트콤의 한 장면으로 이 장면에서 청중들은 웃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청중들이 A의 마지막 발화를 수사의문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B가 수사의문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것을 예측할 수가 없었고, 예측되지 않는 B의 대답으로 인해 대화에 불일치성이 생기면서 웃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억양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표지를 제외하고 수사의문문의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의미와 규칙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어의 기능적 입장에서 언어가 사용되는 조건과 상황, 화자와 청자사이의 관계, 그리고 화자의 발화의도 등 문장 외적요소도 고려되어야 한다(Quirk et al, 1985). 수사의문문에서 모든 의도적 발화는 그 발화가 행해지는데 기여한 맥락적 함축들에 관련성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맥락적 함축은 발화와 전달의미의 해석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의문문의 함축의미를 추론하는 데는 대화 참여자들이 자신이 처한 맥락내에서 발화에 적절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는 관련성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3. 수사의문문에서 부정극어 사용에 의한 처리노력의 감소

일반적으로 질문은 하나 이상의 가능한 응답을 갖지만 수사의문문은 답변을 바라지 않고 응답을 차단하여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수사의문문이 단언의 효과를 가지는 것은 형식과 내용의 비대칭에서 나타나는 표현성, 그리고 긍정/부정 극성의 비대칭에서 비롯된다. 즉, 수사의문문이 의문문의 적정조건에 근거한 정보 요구의 기능을 상실하고 화자의 의도에 의해 어떠한 결론을 지향하는 것은 유표적 특이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장에서는 이러한 유표적 특이성의 하나로 수사의문문이 내포하고 있는 극단적 현실성과 극단적 비현실성이라는 청자의 인식등급을 수사의문문의 구성요건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인식등급 이외에도 극어(polarity)의 사용 또한 수사의문문을 일반의문문과 구분 짓을 수 있다.

극어는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언어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 이하 NPI)와 긍정극어(positive polarity item, 이하 PPI)로 나뉜다. 영어의 어휘항목 중 하나인 somewhat은 보통 PPI로 인식되고, 부정문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 (10) a. I liked the film somewhat.
- b. *I didn't like the film somewhat.

또한, at all은 NPI로 인식되며, 긍정문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 (11) a. I didn't like the film at all.
- b. *I liked the film at all.

특히, 부정극어는 환경에 따라 다시 몇 가지로 분류된다. 아래의 예를 보자(안영란, 2004; 58)

- (12) 명시적인 부정어인 not이 있는 문장
 - a. Bill didn't lift a finger to help Lucy
 - b. *Bill lifted a finger to help Lucy.
- (13) if 절
 - a. If he ever makes a mistake, he will be fired.
 - b. *If he makes a mistake, he will ever be fired.
- (14) 의문문
 - a. Have you ever been to Seoul?
 - b. *I have ever been to Seoul.
- (15) before 절
 - a. Bill left the room before anything happened.
 - b. *Bill left the room when anything happened.
- (16) 전칭 양화사가 이끄는 관계절
 - a. Everyone who knows a damn thing about a computer knows how to use the Internet.
 - b. *Someone who knows a damn thing about a computer knows how to use the Internet.
- (17) 비교구문
 - a. He's smarter than anyone else in his class.
 - b. *He's so smarer than anyone want to compete with him.

(18) 부정 의미를 갖는 *few*나 *hardly* 등이 있는 문장

- a. Few people have any bread to eat.
- b. *Some people have any bread to eat.

(19) 반의 술어(adversatives)가 있는 문장

- a. I was surprised that Bill had any money.
- b. *I was sure that Bill had any money.

부정극어의 경우에는 의문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평서문에 적용되는 의미적 특성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20) a. Do you have *any* potatoes?
- b. Did you *lift a finger* to help me?

(20a)의 경우 *any*에 강세가 가지 않으면 평범한 정보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Yes-No 질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겠지만, (20b)의 경우에는 *lift a finger*에 어떠한 강세를 주지 않아도 전혀 나를 도운 적이 없다는 수사의문문적 해석이 지배적일 것이다.

Ladusaw(1979), Fauconnier(1980)의 주장에 따르면, 수사의문문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부정적 대답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화자(질문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정일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긍정적인 대답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대안들 중에서 가장 최소값에 해당하는 부정극어를 사용함으로써, 가장 약한 명제에 기반을 둔 질문을 만든다는 것이다.

Krifka(1995)는 부정극어와 관련된 현상들을 연표내적 연산자(illocutionary operator)의 적절성 조건(felicity condition)의 일부로 형식화시킴으로써 부정극어의 사용은 Grice(1975)의 양과 질의 격률(Maxim of Quantity & Quality)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용론적 접근이라고 주장한다. 즉, 부정극어를 사용하는 화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양의 격률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Krifka 이론의 핵심이다. 그러나 Krifka(1995)는 강세를 받지 않은 부정극어의 경우 강세를 받은 것과 의미와 용법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구분하여 취급한다.

- (21) a. I don't have *any* potatoes.
b. I don't have *ANY* potatoes.

위 두 문장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하는 것이 Krifka의 이론이며, Ladusaw(1979)는 질문이란 대답을 쉽게 하기 위해 말을 만들게 되어 있고, 따라서 화자가 부정적 대답을 기대할 경우 부정극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K가람(1995)sms 이런 설명은 수사의문문에 사용되는 부정극어에 국한될 설명이 될 것임을 지적했다.

- (22) a. Who ever *lifted a finger* to help you?
b. Have you *ever* been to China?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극어가 수사의문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일반의문문에서 나타나는 부정극어의 사용이 일반의문문을 수사의문문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22a)는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는 성향이 강한 의문문으로서, *ever*와 *lift a finger* 두 부정극어를 사용하고 있다. (22b)는 일반적으로 정보의문문이라고 분류하는 보통의 중립의문문으로서 마찬가지로 *ever*라는 부정극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정보의문문외에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 Krifka(1995)는 위의 예에서 나타난 경향성에 대해 자연스런 설명의 제시와 함께 실제로 수사의문문에서는 강부정극어(strong NPI)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위에 제시된 이론에 입각하여 예문 (7)에 제시된 현실적, 중의적, 그리고 비현실적 수사의문문의 예제에 부정극어를 넣어서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 (23) a. Who *the hell* wants to buy yesterday's newspaper?
b. Who *the hell* knows?
c. Is the pope *ever* catholic?

(23a)에서 'the hell'처럼 극성어구가 첨가되면 수사의문문의 부정단언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전달된다. (2b)는 'Who knows?'보다 극성어구가 첨가되었을 때 정보의문문으로서의 질문이라는 것에 더욱 가까워짐을 알 수 있으며, 극단적 현실성이 내재된 (23c)와 같은 문장에서 극성어구의 첨가는 극성전환을 더욱 강력

하게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수사의문문에서 명제내용의 성립 가능성은 인식등급에 의한 청자의 처리노력 감소뿐만 아니라, 부정극어의 사용 또한 청자가 의문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정보의문문인지, 수사의문문이지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4. 결론

본 논문은 여러 연구에서 수사의문문의 비중이 다른 의문문에 비해 현저히 작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더 방향성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수사의문문이 가진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의문문과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를 비교했으며, 수사의문문이 가지는 극단적 현실성과 극단적 비현실성을 Sperber and Wilson(1986)의 관련성이론에 적용하여 청자가 수사의문문을 일반의문문이 아닌 수사의문문으로 받아들이는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부정극어가 수사의문문을 구성하는 요건 중 하나임을 밝히며, 부정극어가 들어간 수사의문문이 중의성을 지우고 청자가 의문문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향후 연구의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Work Cited

- 김중현(Kim, J. H.). 2004. 영어 수사의문문에서의 형식, 의미, 언어적 추론(The form, meaning and linguistic inferences of rhetorical questions in English). 『語學研究』(Language research) 40.1, 123-159.
- 안영란(Ahn, Y. R.). 2004. 부정 극어 이론의 비교 분석: 부정 극어의 부정성에 관한 소고(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PI Theories: A Proposal of 'Indefiniteness'), 『영어학 연구』(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9, 57-81.
- Akatsuka, N. 1985. Conditionals and Epistemic Scale. *Language* 61, 625-639.
- Fauconnier, G. 1980. *Pragmatic Entailment and Questions*. In J.R. Searle et al. eds. *Speech Act Theory and Pragmatic*. Reidel, Dordrecht.
- Grice,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P. and J. Morgan (eds.),

-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pp.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Krifka, M. 1995. Semantics and Pragmatics of Polarity Items. *Linguistic Analysis* 25, 209-257.
- Ladusaw, W. 1979. Polarity Sensitivity as Inherent Scope Relation, Ph. D. Diss., Univ. of Texas at Austin; distributed by IULC.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 London: Longman.
- Searle, J. R. 1980. *Speech Act Theory and Pragmatic*. Dordrent: D. Reidel Publishing Company.
- Sperber, D. and D, Wilson.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Abstract

Study on Rhetorical questions based on Relevance Theory: the Negative Polarity Item and the epistemic scales

Lee, Yeunwoo

In general, rhetorical questions have the illocutionary force of an assertion of the opposite polarity from what is apparently asked. While rhetorical questions have not been dealt with in various way, many scholars have been attempted to figure out its function in the certain contexts. Thus, rhetorical questions have offers a semantic and pragmatic approach to the mapping between the form and meaning of rhetorical questions in Englis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it examines how listeners are aware of rhetorical questions based on Relevance Theory(Sperber and Wilson, 1986). Through the discussion, we set the epistemic scales(Akatsuka, 1985) about reality of sentence by which what the listener distinguishes between standard question like wh-interrogatives and non-standard question like rhetorical question including assertion. Second, this study reckons on the perspective that rhetorical questions may well count the Negative Polarity Item (NPI) as to help solve the problem of rhetorical question.

Key Words

rhetorical questions, negative polarity item, discourse analysis, pragmatic, relevance theory, epistemic scale, implicature

포스트모던 공간에 맞선 에릭의 주체적 변화 : 돈 드릴로의 『코스모폴리스』

권요안나

I. 서론

현대의 삶의 공간은 인간의 삶과 그 너머의 인간을 떠난 삶의 문제이기보다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 안에서 인간의 삶과 함께 하는 가상의 공간과 실재의 공간에 대한 문제이다. 일상 속에서 사이버공간(cyberspace)은 낯설지 않으며 이를 땅, 바다, 하늘 및 우주공간에 이어 인류의 다섯 번째 공간 또는 전장(the fifth domain of common space/warfare)이라고 한다. 랑스 스트라트(Lance Strate)에 따르면 지금의 모든 곳은 사이버공간이며, 공간적 개념으로 사이버공간은 가상적, 초월적, 허위 및 상상의 성격을 지닌다(Strate 382-83). 이를 보드리야르의 원리로 본다면, 가상공간에서 존재하는 주체의 실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원본이 없는 복제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한 주체는 스스로가 모사물, 시뮬라크르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시뮬라시옹의 세계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없다. 원본은 없으며 복제된 현상과 형태로 가득한 일상의 삶에 존재하는 주체는 또 하나의 복제물이 되어간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가상과 실재에 대한 고민을 소설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아무도 그 헛간을 볼 수 없다”(No one sees the barn)라는 돈 드릴로(Don DeLillo)의 유명한 말은 『화이트 노이즈』(White Noise, 1985)에서 사진을 찍느라 실재를 보지 못하며 가상의 공간만을 즐기는 이들을 보여주며 실재를 압도한 가상의 지배를 받는 현실을 가리킨다.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가 말하는 초과실재(hyperreality)¹⁾는 “모델과 실재, 시

1) 초과실재는 ‘hyper’의 ‘극도의, 과도의’라는 접두어와 현실이나 사실을 말하는 ‘reality’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사실보다 더욱 사실 같으며, 실재보다 극도로 실재 같음을 말한다. 즉 초과실재는 가장으로 전통적인 실재가 가지고 있는 사실성에 의해서 규제되지 않으나, 이 초과실재는 실재 이상으로 우리 곁에 있으며 과거 실재가 담당하였던 역할을 갈취하고 있기에 실재로서, 실재가 아닌 다른 실재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시뮬라시옹』 (하태환 옮김, 1995) 12.

플라크라와 원형 사이의 내과 위에 세워진 시물라시옹의 세계, 즉 실재 자체가 실재의 기호에 의해 대체됨으로 반재현적이며 반지시적인 세계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현실의 원리를 무력화한다”(김용규 312). 이처럼 수많은 실재의 기호에 의해 대체된 공간에서 주체에 대한 고민을 드릴로는 그의 작품 『코스모폴리스』(*Cosmopolis*, 2003)²⁾의 주인공 에릭 마이클 패커(Eric Micheal Packer)를 통하여 보여준다.

이탈리아인 이민 2세로 뉴욕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란 드릴로는 그의 첫 작품 『아메리카나』(*Amricana*, 1971)에서부터 2003년 작품 『코스모폴리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냉전의 시대로부터 포스트모던적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의 소설들은 권력의 균형, 경제, 정치,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추적해 간다”(Boxall 6). 그는 독자들로 하여금 소설 속에서 나타내는 시공간적 상황 속에서 주체 또는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바라보도록 하며 고민하도록 한다. 『코스모폴리스』는 에릭의 삶 속에서 특징 없는 복제된 사물들이 가득한 초과실재의 영역과 보이지 않는 공간인 가상의 영역의 확장으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의 문제를 드러낸다. 드릴로는 에릭을 통해 포스트모던한 공간과 그 곳을 사는 인간의 문제점을 보일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며 에릭이 복제된 것들로 가득한, 그리고 가상공간이 압도적인 공간에서 잃어버린 실재의 의미를 상기시키며 고민하도록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인공을 소재로 한 『코스모폴리스』는 2003년 출간 후 2001년 뉴욕에서 발생한 국제 무역 센터의 테러 사건인 9/11 사건을 예견한 소설이라는 주장들과 드릴로의 「미래의 폐허에서」(“In the Ruin of the Future” 2001)와 함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미래를 말하던 공간이 폐허가 된 현실을 글을 통해 말하며 이는 과도하게 발전한 기술로 인해 벌어진 비극이라 한다. 테러범들은 고도의 기술을 자신들도 공유하기를 원하였으며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했다고 드릴로는 주장한다. 이는 에릭의 화려하고 과도하게 발전한 리무진의 공간과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재산이 무너지고 마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과거의 장소를 향하는 심리 상태의 공통적 특징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뉴욕을 동일한 배경으로 하는 프란시스 스콧 피츠제럴드(Francis Scott Fitzgerald)의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 1925)의 제이

2) 번역은 『코스모폴리스』(조형준 옮김, 2013)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이후 작품인용은 쪽수만을 표기하겠다.

개츠비(Jay Gatsby)와 비교하며 에릭의 특징을 부각시킨다. 또한 에릭의 존재를 도시 내부의 공간과 다루어 숙고하며 초과실재가 만연한 삶에서 에릭의 자기 찾기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Ⅱ. 포스트모던 시대의 개츠비로서의 에릭

개츠비와 에릭은 다른 시대의 인물이지만 성공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의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에릭은 살아가는 경험의 실제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며, 아메리칸드림을 추구하는, 그러나 결국은 죽음을 초래하는 미국 소설의 주인공, 개츠비와 같은 선상에 있다(Laist 261). 이들은 성공을 자본의 축척에 두고 이를 위해 짧은 시절을 보낸다. 개츠비와 에릭은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의 시대적 공간에서 목표를 위해 정진한다. 20세기 초반은 전쟁 후의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전쟁의 아픔과 경제적 부를 동시에 경험하였다. 그러나 개츠비가 살고 있는 사회는 경제의 움직임과 인간관계의 움직임 그리고 그들의 영역들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기에 개츠비는 자신이 처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 제임스 개츠(James Gatz)의 상황을 넘어서 위치를 알고 있었으며 분명한 목표를 위해 매일의 계획표에 따라 스스로를 훈련시켰다(173). 근면과 성실로 스스로를 훈련시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의 삶을 벗어나는 기회를 잡으려 하였던 것이다. 개츠비가 살던 시대는 전쟁과 경제적 변화로 혼란의 시기이기는 하나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가는 길을 알 수 있는 시대라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에릭이 살고 있는 21세기는 첨단 기술 경제 발전과 함께 보이지 않는 자본의 움직임이 활발한 시대이다. 경제의 움직임이나 인간관계의 움직임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경제활동과 인간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에릭의 기술팀장 샤이너(Shiner)는 그들이 하는 일은 패턴, 비율, 지수, 정보의 모든 지도를 분석하며, 이것들은 그들의 달콤함과 빛 이라고 말한다. 또한 에릭과 그는 세계의 의미를 쥐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에서 지내지만, 샤이너는 정보 분석으로 인한 긍정적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의문하며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14). 스스로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정보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그것을 느낄 수 없으며 알 수 없는 것이 에릭이 사는 시대인 것이다.

또한 다른 시대적 성격을 지닌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개츠비 그리고 그의 주변 인물들은 물질인 부와 성공의 겉모습이 보여주는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탐닉한다”(박용준 5)는 에릭과의 공통적인 부분을 지니고 있다. 개츠비는 여름이면 밤마다 파티를 열어 손님들이 즐기도록 하였으며 손님들은 낮이 되면 개츠비 소유의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며 그의 두 척의 모터보트로 롱아일랜드 만의 바다에서 수상스키를 탔다(39). 개츠비는 대중들에게 파티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보이는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에릭은 그의 재력을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의 소유로 보여준다. 그는 3천백만 달러의 비행기를 구입하여 사막 위를 날며 자신의 재력을 증명한다(103). 이들 모두 일반인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재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것의 드러남을 충분히 즐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 갖추어진 현재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불안한 상태의 내면을 보인다. 화려함 속의 불안함을 지니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에릭과 개츠비를 목도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의 해결점을 과거의 사건에 둔다. 즉, 이들 모두는 지난 시간을 그리워한다. 개츠비는 부를 이루어 성공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개츠’였던 시절에 만난 데이지를 잊지 못하며 과거의 사랑을 되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리워하는 과거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 나타날 수 없다. 개츠비는 그가 원하는 과거의 사랑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죽음의 순간에 과거를 그리워하는 자아에 대한 문제의 실마리를 발견한다. 개츠비는 그의 죽음을 통해 ‘개츠비’가 아닌 ‘개츠’의 삶으로 돌아가며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을 이루게 된다. 그의 욕망의 시작은 자본의 힘을 거머쥐고 사랑을 차지하고자 함이었으나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데이지의 잘못을 덮어주는 순수한 사랑을 추구한다. 그의 마지막 순간 화려했던 개츠비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공간에 머무르지 않으며,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의 내면을 읽으려고 했던 닉과 개츠비의 아버지가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다. 개츠비가 보내준 그의 호화로운 주택의 사진을 보며 감탄하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 후 아들의 과거 순수하던 모습을 찾게 되며, 개츠비의 서가의 책들을 리얼리즘의 극치라 극찬했던 올빼미 안경의 행인이 그의 장례식장에서 더 이상 ‘개츠비’가 아닌 ‘개츠’로 돌아온 그를 목도한다(172-74). 개츠의 자아를 마주하는 순간을 본인은 바라볼 수 없으나 독자는 올빼미 안경의 행인의 눈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에릭 역시 자신의 불안함의 해소를 과거에 의존한다. 에릭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지 못하다가 알게 된 것이 바로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갔던 이발소이며, 그는 그 곳을 향해 가고 있다(7). 리무진으로 이발사를 불러 머리를 자를 수도 있지만 그는 이발소를 나타내는 물건들이 있는 그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15). 과거의 사건을 찾아 가는 것이 그에게 편안함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때 모던의 음악가 사티(Satie)의 음악이 흐르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그의 음악은 에릭의 마음을 안정시켜 준다고 말한다(29). 이는 사티의 음악적 성격 중 대위법의 사용과 1920년 시도하였던 배경과도 같은 ‘가구 음악’과 같은 편안함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에릭은 자아의 불안함을 과거에 대한 그리움으로 완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에릭은 80년 전의 소설의 개츠비와 공통된 성격을 지닌다. 이들은 도시, 경제적 상황, 거부의 삶의 공통 조건 속에서 과거에 존재했던 자신을 그리워한다. 시간을 거스르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스스로의 변화를 경험하며 자신을 마주하는 기회를 가진다.

Ⅲ. 코스모폴리스의 공간 변화와 에릭의 존재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의 삶의 공간을 침범한 건축물의 일례인 1976년 완성된 포트만(Portman)의 더 웨스틴 보나벤처(The Westin Bonaventure)호텔은 “건축물을 위하여 역사적인 전경들을 제거 하였으며 이전 광장의 넓은 공간을 좋아했던 히스패닉과 아시아인(Hispanic-Asian)의 도시였던 로스앤젤레스로부터의 제도적인 분리”(Davis 288)임을 마이크 데이비스(Mike Davis)는 주장한다. 호텔의 내부는 오렌지 나무, 분수, 꽃 넝쿨, 깨끗한 공기와 같은 자연을 미니어처 하여 소수의 초대된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Davis 5). 이와 비슷한 에릭의 팬트하우스는 다양한 목적의 공간들을 포함하며 외부와의 단절이 이루어진다. 팬트하우스는 피트니스용 수영장, 트럼프실, 체육관, 상어가 있는 수족관, 영사실 등 48개의 방을 가지고 있다(7). 웨스틴 보나벤처 호텔이 그러하듯이 에릭의 공간은 미니어처 하여 만든 도시 같다. 또한 외부의 실재 도시와의 단절과도 같은 그의 팬트하우스처럼 에릭은 외부와 단절에 대한 갈망을 그의 태도를 통해 보인다. 그는 그의 공간에 걸려있는, 흰색의 끈적거리는 물감을 나이프로 두껍게 바른 손님들이 어떻게 보아야 할지 모르는 그림을 좋아한다(8). 에릭은 손님들이 그의 공간에 있는 그림을 즐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자신만이 자신의 공간을 즐기는 외부와의 단절을 드러낸다. 그리고 팬트하우스가 있는 타워에

는 에릭의 전용 엘리베이터 두 대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 거금을 쓰고 사람들의 적(enemy)이 된 에릭은 타워 내부에서도 자신만의 엘리베이터를 고집하며 철저한 단절을 만들고 있다(29). 에릭은 펜트하우스 건물에서 나와 외부와의 단절을 보여주는 그의 리무진에 오른다. 리무진들은 얼핏 보기에 모두 같아 보인다(9). 마치 복제된 그의 삶과도 같다. 복제된 것 같은 리무진들은 누구의 것인지 쉽게 알 수가 없다. 에릭의 리무진으로 그의 재정담당 주임인 제인 멜먼(Jane Melman)이 오른다. 그녀가 리무진들의 구분되지 않음을 지적하자 에릭은 “자신과 같은 거물(power man)은 소유의 영역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39)고 말하며 감추어진 자신의 출입구로 인한 타인의 불편함의 외침을 묵살한다. 그의 리무진은 외부와의 단절을 추구하며 이는 “웨스틴 보나벤처 호텔이 밖에서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출입구를 통해 주변을 둘러싼 도시와의 단절(disjunction)을 추구”(Jameson 41)함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외부로부터 단절을 이루는 미니어처 도시와 같은 에릭의 리무진은 이곳에 입장한 손님을 지배하는 공간이 된다. 에릭은 그의 리무진에서 기술 담당 샤이니, 통화 분석가 마이클 친(Michael Chin), 그리고 재정 담당 멜먼과 업무상 대면을 한다. 리무진은 통화를 분석하여 보여주는 영상표시장치들이 있어서 업무가 가능하며, 전자레인지와 술 보관함도 준비되어 있으며 안락의자의 편안함과 화장실마저도 갖추고 있어 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심장모니터가 있어 병원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듯 에릭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 미니어처 도시와 같은 공간의 손님은 에릭에 의해 지배당하며, 자유롭게 못하다. 사무실에서는 가시돌친 존재에, 회의적이며,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주변과 소통하지 않고 불평을 계속해서 말하는 멜먼은 에릭이 보기에 리무진에 앉아있는 그녀는 단지 보조좌석에 앉아있는, 조깅을 좋아하는 싱글 맘일 뿐이며,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며 에릭과 대화를 하는 동안 성적 긴장을 보인다(47). 에릭의 건강 검진을 위해 리무진에 오른 닥터 잉그램(Dr. Ingram)은 진찰하는 동안 그의 전립선 비대칭을 말하지 못하고, 리무진에서 내려 대충 짐작해 목소리가 들릴만한 거리에서야 에릭의 전립선 비대칭을 말한다(54). 이들 모두 에릭의 도시에 입장한 손님이며, 주인인 에릭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못하다.

이러한 에릭이 만들어가는 타자와의 대립의 관계는 리무진 내부와 외부처럼 시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안한 형태이다. 에릭의 리무진 밖의 시위는 과거의 사건인 1848년 『공산당 선언문』의 “‘공산주의의 유명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는 첫 문장을 빗대어 ‘자본주의의 유명’”(96)을 소리친다. 이는 종이돈은 사라

지기 시작하며, 가상공간을 떠도는 자본의 유령과 같음을 주장한다(Merola 830). 또한 시위의 대중은 “생쥐가 통화 단위가 되었다”(96)고 외치며 가상공간에서 떠도는 자본으로 인한 통화의 가치가 퇴색되어 교환의 원리만 남아있는 자본 시장을 폭로한다. 이것은 시인 즈비그뉴 허버트(Zbigniew Herbert)의 「포위된 도시」(“Report from the Besieged City”)에서 “텅 빈 창고, 생쥐가 통화 단위가 되었다”(line 12)고 말한 시의 구절과 동일하다. 허버트는 과거 나치 통치하의 바르샤바를 위한 애통하는 마음을 이 시에서 보여준다(Chandler 249). 에릭이 읽은 시의 구절이기도 한 이 문장은 나치의 통치 아래의 바르샤바의 고통만큼이나 자본주의에 의해 통치되는 뉴욕의 고통이 “영원만큼 지속되는 포위”(line 46)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유령이 배회하고, 생쥐가 통화 단위가 되었다고 외치는 리무진 밖의 시위는 과거와 현재의 사건의 순환을 드릴로는 말한다. 동시에 이는 소수 자본가들이 세상에 미치는 거대한 힘에 대한 대중의 시위인 것이며, 이것은 에릭의 내부의 공간에 변화를 일으킬 대중의 시위이며, 에릭을 향한 외부의 외침이다.

IV. 사라짐의 미학과 자기 찾기의 가능성

뉴욕은 금융과 경제의 중심지이나 가상의 공간이 주요한 활동 범주인 최선의 1번가(First Avenue)와 낙후된 10번가(Tenth Avenue)가 공존하는 모순이 극렬하게 존재하는 것을 에릭의 어느 하루의 이동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새벽에서부터 밤으로이며, 부의 요새와 세계적인 힘에서부터 버려진 창고의 지저분한 극빈함으로 향하는 것이다(Conte 2). 10번가 북쪽에 위치한 이발소에서 도착한 에릭은 이발소 주인 앤소니(Anthony)와 에릭의 운전기사 이브라힘 하마두(Ibrahim Hamadou)와 대화를 나누며 흘러간 시간이 단단한 물체들과 남자들의 얼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신빙성 높은 협박을 받고 있다는 비밀을 털어 놓는다(166). 그는 공간의 이동을 시도하며 그의 문제는 해결점을 찾아 향하고 있다. “24시간 문을 닫지 않고 끊임없이 자본이 흐르고 있는 국제적인 주식시장은 유동적 가상의 서로 연결된”(Conte 2) 공간에서부터 밤이면 영업이 마감되어 흐름이 멈추는 이발관의 공간으로의 이동으로 더욱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하루 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에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전에 잃었던 자유를 찾게 된다. 『코스모폴리스』에서는 “사용가치를 넘어서

는 신용, 투자, 다양한 형태의 종이돈과 같은 보이지 않는 가상 자본이 현실로부터 제거되는 과정이 과장된다”(Merola 830)는 메롤라의 주장처럼 여러 형태의 돈이라는 도구가 가치를 상실한 현실에서 맨하튼의 금융 자본가의 거부가 하루 동안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볼 수 있다. 에릭에게 돈은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정보로 읽어야 하는 대상이었을 뿐이었기에 집시에게 손금을 보이고 지불할 약간의 돈 조차도 그의 바지에 있지 않았다(129). 엔(Yen)이 예상과 다르게 오르면서 그가 가진 돈은 하루 동안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그는 엔의 양등으로 다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움을 느끼며 . . . 직관에 따라 행동하는 동시에 창조적인 결정을 해야 하고 독자적인 원칙과 신념을 고수할 필요성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115) 자유로운 모습이다. 이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숫자와 정보를 잡기 위해 보낸 시간 동안의 불안했던 에릭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며 자유로움을 느낀다.

에릭은 초과실재의 삶을 벗어버리기 위해 가장 실재적인 육체로 타자와의 소통을 시도한다. 에릭은 운전기사들을 보내고 자신이 있는 곳이 영화 촬영장임을 알게 된다. “그곳에는 3백 명의 사람이 ‘알몸으로’ 거리에 엎드려 누워 있었다.”(172) 그는 몸에 걸치고 있던 모든 옷을 벗게 된다(173). 하루 종일 자신의 소유를 잃어가고 있는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의 아내 엘리스 쉬프린(Elise Shifrin)과 벗은 몸으로 사랑을 나눈다(177). 영화인지 실재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내와 두 사람은 육체적 만남으로 “두 연인은 두 사람만이 되어 기억과 시간으로부터 해방된다”(177). 과거에 그들이 함께 했던 그러나 서로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했던 기억과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3백 명의 사람들 중 두 사람은 소유를 벗어버리고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에릭은 그 어느 것도 소유하지 않은 순간 엘리스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가면을 벗을 수 있게 된다. “니체는 삶의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존경심과 자기성실성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위선 혹은 자기기만을 탈마스크화 할 수 있고, 별거벗은 자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응시할 수 있으며, 허위의식에서 해방된 ‘별거벗은 몸’은 참된 자기의 복원이라는 의미에서 ‘별거벗은 자기’를 위한 전제”(김정현 187)라고 주장하듯이, 에릭은 가상의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시도하며, 가상공간에서 존재하던 그의 삶의 가면을 벗고, 별거벗은 몸으로 자신의 실재의 삶에 가치를 두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찾아가고 있으며 자신의 모습을 또렷하게 목도하고자 한다.

익명성으로 가득한 뉴욕의 거리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자기의 실재를 만

나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에릭은 계속해서 자기 찾기를 향해 나아가며 이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거한다. 그는 호명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에 자기 찾기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그의 수행원을 쏘아버린다(146). 뉴욕의 1번가에 세워진 리무진의 익명성을 좋아하는 그의 수행원 토발(Torval)은 에릭이 이발소로 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단순히 그의 공간적 움직임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발은 에릭의 자기 찾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또 다른 수행원 “당코(Danko)의 이름 알게 되어 그를 볼 수 있다”(125)고 말하는 에릭은 이름이 가지는 가치를 알고 있었다. 이름은 그것을 소유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에릭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토발 역시 그가 에릭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에릭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토발은 에릭의 자아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토발은 에릭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에릭이 에릭으로 되어간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피했던 것이다.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는 이데올로기는 개인들을 주체로서 호명한다고 주장하며 부름에 대답을 할 때, 그 호명된 자가 ‘바로 그’ 사람이 됨³⁾을 말한다(루이 알튀세르 118-19). 이 반응 속에서 이데올로기적 ‘인식’의 기능이 수행되며 그 이면은 오인의 기능이다(『아미앵에서의 주장』 117). 이렇듯 부름과 이에 대답의 상호작용으로 주체는 주체화되는, 즉 호명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에릭과 토발 사이에서 호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에릭은 자신의 이름을 결코 부르지 않았고 자신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무런 인간적 인식의 관계를 나눌 수 없었던 토발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향해 한 발 다가간다. 에릭은 자기 찾기를 위해 이해되기 쉽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상의 공간과 실제의 공간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체는 수많은 자기를

3) 알튀세르는 상정한 이론적 장면을 묘사하며 설명한다. 만일 상정한 이론적 장면이 길거리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호명된 개인은 뒤돌아볼 것이다. 이 단순한 180도의 물리적 선회에 의해서 그는 주체가 된다. 왜냐하면 그는 호명이 ‘바로’ 그에게 행해졌으며, ‘호명된 자가 바로 그’(다른 사람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경험은 호명은 실제로 그의 대상을 놓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로 부르거나 호각을 불어서 호명된 자는 항상 호명한 대상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자신이 문제된다는 것을 믿으면서-의심하면서-알면서, 그러므로 그 호명에 의해 겨냥된 사람이 ‘바로 그’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알튀세르 119).

구성하는 요소들로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으며 타자와의 진정한 소통과 상생을 위한 노력이 가해질 때 자기 찾기의 가능성은 있다. 가상공간에서의 범위가 커져가는 현대 사회를 부인하며 실제적 요소들만 고집하기 또한 에릭이 가상공간에서 만들려고 했던 균형을 추구하는 것과도 같다. 가상의 공간에서 많은 돈을 소유하였다가 그 모두를 잃어버린 에릭은 실제적인 삶을 살며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싶어 하는 베노를 찾아간다. 베노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에릭은 죽음으로 가기 전 그의 손목시계 속에서 미래의 자신의 죽음을 마주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손목시계의 전자카메라는 수집한다. 그가 자신의 손을 충으로 쏘았을 때, 미세한 부분까지 정교하게 만들어진 카메라는 손의 충상과 함께 미래에 닥칠 사건을 읽어내었다(204). 에릭이 가상공간에서의 자본의 흐름을 읽었던 것처럼 그의 손목시계의 전자카메라는 현재 발생된 사건을 토대로 미래의 정보를 수집한 것이다. 에릭에게 가상공간의 경제적 힘이 거품처럼 사라졌지만 그것과의 완전한 단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계 속 화면에 비치는 에릭의 죽음은 외부와 내부의 경계, 그리고 글로벌 마켓에 대한 동화 그리고 저항의 사이에 걸쳐 있으며”(Boxall 231) “에릭과 기술풍경(technoscape)의 존재론적 연결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다”(Laist 273). 이는 어느 한 쪽으로만 갈 수 없는 것이 에릭의 삶이며 에릭과 같은 삶을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죽음을 마주하면서까지 자신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 하였으며 타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한 에릭은 독자로 하여금 가상공간에서의 자아를 찾아간다는 것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V. 결 론

드릴로는 『코스모폴리스』의 주인공 에릭의 뉴욕에서의 하루를 통해 가상공간에서의 인간의 주체성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던지며, 물질만능주의와 최첨단의 기술들의 생활화에 더하여 금융자본의 확산과 가상의 공간의 확장으로 인해 드러나는 인간성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한다. 그는 화려함 속에서 느끼는 불안함을 주체할 수 없으며 이를 해소하기를 원한다. 개츠비가 과거 데이저와의 사랑을 꿈꾸었듯이, 에릭은 과거의 아버지와의 시간에서의 편안함을 찾아간다. 에릭은 과거의 장소로의 공간적 이동을 통해 내면의 공간적 변화를 경험한다. 문제의 해결점을 향하는 과정에서 에릭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만질 수 없는 것에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시선을 전환

한다.

에릭의 상황과 같은 가상의 공간과 실재가 공존하는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아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우선되는 요소는 자기를 구성하는 수많은 조각들의 균형이다. 또한 타자와의 관계에서도 균형의 유지가 필요 되어 진다. 주체는 타자의 존재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만의 공간에 갇혀서는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기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에서 타자를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를 포함한 수많은 요소들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가상이 실재를 압도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삶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상의 공간에 갇혀 있는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단순한 복제품으로 가상의 공간에 흡수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미 가상의 공간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사건이 발생되어진다. 강력한 외부의 사건으로 인해 에릭의 내부의 변화는 일어나며 가상의 공간에서 빠져나와 실재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기 충분하다.

보드리야르는 초과실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초과실재는 어느 곳에도 존재 가능하며 그것에 대한 경계를 늦춘다면 언제든지 초과실재가 실재를 압도하는 현상은 발생할 수 있다. 에릭이 발견한 자아를 향하는 가능성에 존재하는 한계는 간과할 수 없으며 현대의 삶의 공간에 넓게 자리한 가상공간을 인정하게 되며 그것의 확장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에릭이 모든 것을 잃은 채로 자기가 자기임을 만드는 소소한 일상들을 떠올리며 자기를 알아간다고 고백한 것을 볼 때, 주체가 초과실재를 넘어 자아를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에게 존재한다.

Work Cited

- 김용규. 「시물라크르의 물질성과 탈재현의 정치학-보드리야르, 데리다, 들뢰즈」.
『영어영문학』 52.2 (2006): 307-37.
- 김정현. 『니체의 몸 철학』 서울: 문학과 현실사, 2000.
- 드릴로, 돈. 『코스모폴리스』 조형준 옮김. 서울: 새물결, 2013.
- 박용준. 「아메리칸 드림의 재현 방식: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와 웨스트
의 『미스 론리하츠』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52.3 (2010): 235-52.
- 알튀세르, 루이. 『아미앵에서의 주장』 김동수 옮김. 서울: 숲, 2000.
- Baudrillard, Jean. *Simulations*. Tr. Paul Foss, Paul Patton and Philip
Britchman. New York: Semiotext(e), 1983.
- Boxall, Peter. *Don DeLillo: The Possibility of Fic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5.
- Chandler, Aaron. “An Unsettling, Alternative Self”: Beno Levin, Emmanuel
Levinas, and Don DeLillo’s *Cosmopolis*.” *Critique* 50.3 (2009): 241-60.
- Davis, Mike. *City of Quartz*. London ; New York: Verso, 2006.
- . “Urban Renaissance and the Spirit of Postmodernism.” *New Left
Review* 151.1 (1985)
- Conte, Joseph M. “Conclusion: Writing amid the ruins: 9/11 and Cosmopolis.”
The Cambridge Companion to Don DeLillo. Duvall, John N. (Ed.)
New York: Cambridge, 2008. 179-92.
- DeLillo, Don. *Cosmopolis*. New York: Scribner, 2003.
- Fitzgerald, Francis Scott. *The Great Gatsby*. New York: Scribner, 2004.
- Herbert, Zbigniew. “Report from the Besieged City.” *Report from the
Besieged City and Other Poems*. Trans. Bogdana Carpenter and
John Carpenter. New York: Ecco, 1985. 76-78.
- Laist, Randy. “The Concept of Disappearance in Don DeLillo’s *Cosmopolis*.”
Critique 51.3 (2010): 157-275.
- Merola, Nicole M. “*Cosmopolis*: Don DeLillo’s Melancholy Political Ecology.”
American Literature 84.4 (2012): 827-54.
- Jameson, Fredric.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rham: Duke UP, 1991.

Strate, Lance. "The Varieties of Cyberspace: Problems in Definition and Delimitation."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63.3 (1999): 382-83.

Abstract

**Eric's Subjective Change
Against the Postmodern Space:
Don DeLillo's *Cosmopolis***

Kwon, Yoanna

This thesis attempts to figure out the possibility to establish “self” in cyberspace by examining postmodern novelist Don DeLillo's *Cosmopolis*. Eric of *Cosmopolis* has a frustrated self even though he has fantastic property. One day in April 2000, he starts from First Avenue, the location of his nice penthouse to Tenth for a haircut at the place where he used to go with his father during his childhood.

Jay Gatsby in modern novelist Francis Scott Fitzgerald's *The Great Gatsby* has a dream to get his love with a lot of money. He doesn't consider real situation but he only dreams. Soon he realizes this is improper and accepts the situation and himself at the last moment of his life. This thesis reveals that Gatsby and Eric are similar in some ways. Interestingly they live in a different time but the same physical space; New York. Also, they have similar goals despite different characters.

Eric's self is isolated from others and he isn't likely to concern with them. His nice penthouse has 48 rooms including a lap pool, the card parlor, the gymnasium, shark tank, and screen room. He can do anything he wants. His penthouse is his miniature city like the Westin Bonaventure Hotel in LA. This hotel has a miniature city and only special people can pay for that. Nobody enjoys this hotel freely if they can't pay for it. Eric's penthouse and this hotel have similar characters, inside they can have everything they want so they can be isolated from the outside. However, Central Park or

Rockefeller Center is opened to the public. Everyone uses these places. As times goes by in a day, he wants to see others and think about their thoughts. He begins to go outside from isolated self.

Following this way he meets a riot in the street. His self was isolated before, but now begins to go out to see the real world; not the fake one. The events of outside make him think about others. That means he walks out from his isolated world not having original. There were only duplicated copies like “simulation and hyper reality world” as Baudrillard says. He lost all his possessions and walks to meet a man who worked for his company before. But the man is isolated from Eric’s World. They talk about the real life and Eric feels pain of body. Eric considers the other’s life and the real life. Through these steps he knows what the real self is in the cyberspace. To establish a self in the world including the real and cyberspace, balance is needed and the understanding of self by others is also essential. People living in the postmodern life are possible to establish themselves with many elements including a real and cyber world and others make themselves.

Key Words

cosmopolis, Don Delillo, postmodern, self, cyberspace

바틀비의 행복한 글쓰기: 들뢰즈가 열어 놓는 『필경사 바틀비』의 희극적 가능성*

우 미 례

I. 서론

19세기 미국문학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작가 중 한 사람인 허먼 멜빌(Herman Melville)의 단편들 중 「필경사 바틀비」(“Bartleby, the Scrivener: A Story of Wall Street”)(이하 「바틀비」)는 단연코 최고의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작품의 중심이 되는 바틀비라는 인물과 그가 반복해서 말하는 “I would prefer not to”라는 대사의 묘한 매력은 많은 문학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 작품을 비극적 결말의 소설로 읽으려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면인 인간 소외의 문제를 비틀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틀비를 “거대 산업 도시의 물질문명에 적응하지 못한 희생자”(황혜령 110)로 보거나, “사회의 법칙을 거부함으로써 영원한 자유를 얻으나 그 대가로 목숨을 잃는”(조재진 180) 절망적인 인간 존재의 조건을 미학적으로 드러내는 인물로 해석하는 등 다양한 상징적 의미들의 목록이 존재한다. 또한 전기적 접근 방식을 통해 출판업계에서 작가 스스로가 철한 당시 문학계의 현실 그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바틀비라는 인물 속에 투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 해석들은 이 작품 속에서 삭막하고 어두침침한 도시(월 가) 분위기를 나타내는 배경과 바틀비를 비롯해서 정신적으로 병리적 징후들을 보이는 여러 인물들과 죽음과 같은 고딕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지배적으로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인 탓으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해석으로만 끝나버리게 되었을 때 문제는 문학의 생산적인 힘을 놓치게 된다는 점이다. 철학자이자 예술비평가인 질 들뢰즈(Gilles

* 본 논문 속에 나오는 텍스트의 인용들은 2011년 문학동네에서 발간한 공진호가 옮긴 『필경사 바틀비』의 번역을 참고했다.

Deleuze)는 「바틀비」에 대해 분석한 에세이인 “Bartleby; or, The Formula”의 서두에서 “바틀비라는 인물은 작가의 메타포도 그저 그런 상징도 아니다. 그건 강력한 회극적 텍스트이다”(68)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렇듯 확고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들뢰즈에 관해서 그의 문학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생긴다. 앞에서 살펴봤던 기존의 연구들은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해석에 그치고 마는데,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의 파생이자 클리셰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재현의 문학’은 문학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만다. 비평가의 임무는 문학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말하자면 냉동 상태에 있는 작품을 잘 녹여내어 누군가가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을 글쓰기라고 했을 때, 들뢰즈에게 있어서 글쓰기는 자신의 유일한 목적으로 삶을 가리키고 있으며(*Dialogues* 6), 따라서 “삶에 대한 사유”(황혜령 103)라고 부를 수 있다. 즉, 문학이란 “비개인적이고 비유기적인 힘을 발현하는 삶을 해방시키고자”(103) 하는 것이다. 들뢰즈의 용어에 따르면, 문학은 점이 아닌 선이자, 나무의 뿌리가 아닌 풀의 리좀¹⁾이며, 구조가 아닌 배치의 문제이자, 주체가 아닌 기계인 것이다(*Dialogues* 26; 황혜령 108). 이는 곧 구조로부터 탈주하여 새로운 생성/되기로 행하는 선으로서 하나의 흐름을 그려내는 것, ‘탈영토화’의 운동을 따르면서 언어의 한계로부터 새로운 기호의 형식을 창조하는 “문학-기계”를 말하는 것이다. 문학-기계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성을 실재적인 삶의 배치로 구성해내는(황혜령 103 재인용) 실천적 행위를 생산한다. 이러한 문학-기계가 생산하는 ‘삶의 잠재적 역량’을 읽어내는 일이 바로 비평가의 일이다. 만약 이러한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은 문학을 단순한 현실의 반영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며, 「바틀비」의 경우에는 ‘당시 비인간

1) 리좀(Rhizome)은 본래 줄기와 뿌리가 구분되지 않고 땅속으로 뻗어나가는 식물을 일컫는 말로, 들뢰즈와 고틀리의 공저인 『천 개의 고원』의 핵심적 개념이자 나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나무의 특징은 기원을 이루는 원점(原點)인 씨앗 혹은 중심이 있으며, 가지가 뻗어가며 양분되는 분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 원리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나무는 모든 것을 점으로 고정시키는 격자 시스템이자 중심과 주변들의 위계적인 위치 시스템이다. 또한 나무에는 뿌리와 꼭대기가 있듯이 과거와 미래라는 진화론적 시간관이 담겨 있다. 반면에 리좀은 도처에 흩어진 여러 중심들을 가지고 다량체들의 복잡한 선들로 구성된 것인데, 어느 한 위치에 고정되어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과 점, 구조와 구조 사이를 뛰어다니며 탈주와 생성의 끝없는 흐름을 그려내는 것이다. 그리고 나무와는 달리 리좀에는 시작도 끝도 없으며 중간/한복판만이 있을 뿐이며, 과거와 미래는 물론 심지어 현재도 없고, 역사도, 진보도 존재하지 않는 ‘사이’의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리좀적 모델은 들뢰즈와 고틀리에 있어서 사물, 현상과 사유, 학문의 관계와 내부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 다루어진다(*Dialogues* 26-30).

화되어 가는 미국적 삶의 표현'으로 독해하는 데만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들뢰즈의 문학 이론을 바탕으로 텍스트 내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긍정성을 발견하는 작업을 하는 데 그 목적을 둘 것이다. 먼저 들뢰즈의 “악마적인 것”을 중심으로 피테의 『파우스트』와 이 작품에 드러난 중 인물 간의 관계를 비교하고, 다음으로는 들뢰즈가 베케트의 텔레비전 단편극에 대한 에세이를 통해서 자신의 철학적 개념으로 삼은 “소진(the Exhausted)”을 가지고 바틀비의 잠재성을 풀어낼 것이며, 끝으로는 화자의 관점에서 이 작품 전체가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바틀비」가 진정한 희극적 텍스트였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II.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파우스트』와 「바틀비」

「바틀비」는 고딕 소설의 전통에 멜빌만의 스타일을 입혀 놓은 소설이다. ‘어반 고딕(urban Gothic)’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이 작품에서는 오래된 성이나 고딕 성당의 높이 치솟은 첨탑과 유령이 출몰할 것 같은 고딕 소설의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숨 막힐 듯한 벽들의 미로로 구획된 도시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무실로 옮겨와서 창백한(pallid/pale)” 인상의 바틀비를 “유령(apparition)”처럼 묘사함으로써 새로운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딕 문학의 역사적 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 낭만주의를 만나게 된다. 고딕 문학은 낭만주의 문학이 변형된 형태 또는 낭만주의 문학의 한 부류로 여겨진다(Crow 3). 유럽의 문학사에서 18세기를 지배했던 계몽주의나 고전주의는 이성을 중시했으며, ‘희극/비극’, ‘유희적인 것/진지한 것’과 같은 식으로 모든 것을 이분화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예술의 지배적인 사조였던 낭만주의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인식에 대한 반동으로서 나타났다. 이성보다는 감성이나 상상을 더 중요시하는 혁명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고전주의의 나눔의 방식을 반대하고 아름다움과 추함(그로테스크)을 뒤섞으면서 삶이란 모든 것이 공존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진리이자 종합적인 전체(wholeness)를 나타낸다고 보았다(「낭만주의」 74).²⁾ 독일의 대문호인 요한

2) 계몽주의 또는 고전주의, 그리고 낭만주의는 단 몇 줄로 쉽게 요약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 이러한 문학사조들은 시기별로 나뉘서 구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나 지역 별로 나뉘서 보기도 한다. 또한 그 이름에 담긴 개념 자체도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세우게 된다. 이러한 문학의 역사와 관련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는 독일 문학의 ‘질풍노도(Strum und Drang)’ 운동을 주도했는데, 그가 쓴 희곡 『파우스트』는 약 6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동안 쓰인 작품으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등의 사상을 총망라하여 삶의 경험과 진리를 담고 있다.³⁾ 『파우스트』에서 낭만주의적 색채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특성들은 또한 고딕 문학의 전통과도 맞닿아 있다. 가령 낭만주의 초기에 새로운 고딕적 인물의 유형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파우스트와 같은 지식과 권위를 남용하는 과학자나 박사이다(Crow 4). 이뿐만 아니라 『파우스트』에는 “사탄이나 악마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라던가, 도플갱어, 마법, 연금술, 그로 인해 탄생된 호문쿨루스나 생육신(incarnation), ‘고전적 발푸르기스의 밤(the classical Walpurgisnacht)’ 와 지하세계의 괴물들이 있는 사원”(Bridgwater 68-69)과 같은 명백하게 고딕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다가, 특히 명백하게 고딕 소설로 분류되는 『프랑켄슈타인』이 쓰이기까지 메리 셸리(Mary Shelley)가 『파우스트』를 여러 번 읽으며 영감을 얻었다는 점(463)도 들 수 있다. 이렇게 『파우스트』는 「바틀비」와 더불어서 ‘고딕 문학’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담아 볼 수 있다. 한편, 두 작품이 「윽기」라는 상호텍스트를 공통 지대로 삼고 있다. 괴테는 『구약 성서』의 「윽기」를 자신의 작품의 모티프로 삼았다. 「바틀비」에서도 화자가 바틀비의 죽음을 확인한 후 하는 대사인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With kings and counsellors)”가 윽기 3장 14절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연관성을 근거로 『파우스트』와 「바틀비」를

된 내용은 본 논문에서 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요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르놀트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 3) 괴테에 대해 익히 알려져 있는 바에 따르면 그는 “고전적인 것은 건강한 것이고 낭만적인 것은 병적인 것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낭만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선을 가졌던 고전주의자이자, 인간의 이성과 자유로운 행위의 능력을 자각하는 데 매진할 것을 주창한 이른바 ‘슈트름 운트 드랑(Sturm und Drang; 질풍노도)’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독일 고전주의’는 “고전주의적 경향과 낭만주의적 경향의 종합”으로서, 프랑스 고전주의와 비교한다면 완전히 낭만주의적인 것으로 비쳐진다는 데 자신만의 독특함이 있다(하우저 162). 괴테가 주도한 질풍노도 운동도 지나치게 형식에만 치우친 당시의 가톨릭을 찬미하고 전통적으로 통용되는 원칙만을 강조하는 프랑스 고전주의에 반기를 든 것으로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몰두할 것을 주장하면서 가졌던 저항적이고 혁명적인 성격은 초기 낭만주의 운동이 자신의 모토로 그대로 이어받는다. 따라서 괴테에 대해서 비록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낭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파우스트』에서도 ‘어머니의 나라’, 발푸르기스의 밤, 마녀의 축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 등 상상을 통한 낭만적 환상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것도 그가 낭만주의자일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더 자세한 논의는 이영수의 「괴테와 낭만주의」 논문을 참고하라.

비교함으로써,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 즉 ‘신에 속한 인간’과 ‘악마’와의 관계에 비추어 「바틀비」의 화자와 바틀비의 관계를 규명해 볼 것이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옴니」에서처럼 “하느님의 종”인 파우스트를 유혹해 순간의 향락에 빠지게 만들어 파멸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메피스토펠레스와 이에 여유롭게 응수하는 신의 내기로 시작된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한 천재 파우스트 박사가 어느 날 지식의 한계로 인해 환멸을 느끼며 자살을 택하려 할 때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서 어떤 인간도 경험해 보지 못한 쾌락을 맛보게 해 주는 대신 언젠가는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져가기로 하고 둘은 계약을 맺는다. 여기서 파우스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주체가 된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이 부분을 건드려서 파우스트를 파멸로 이끌어 가기 위해 인간의 무기력함 속으로 파고든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통해 위대한 신의 사람인 파우스트의 삶을 허무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Mephistopheles」 103). 메피스토펠레스가 보여주는 ‘악마적인 것’은 신의 거역자이자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신의 힘에 반작용하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악의 힘인 것이다(101). 그는 ‘순수한 허무’, ‘영원한 공허’와 같은 말과 일치하며 그 파괴적 본질은 “존재의 박탈”을 의미한다(임성이 25 재인용). 그러나 들뢰즈가 『디אל로그』에서 말하고 있는 악마는 다른 속성을 지닌다. “악마적인 것”은 곧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도주하는 것”이다. “신은 속성들, 고유성들, 고정 기능들, 영토들과 코드들을”(Dialogues 40) 지닌다고 한다면 악마의 특성은 그런 것들 사이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배적 의미의 세계이자, 확립된 기성 질서를 의미하는 신에 대해 항상 배반이 있다. 그런데 배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또는 ‘얼굴’을 잃어버림으로써 또 다른 창조를 낳아야 한다(45). 그렇다면 『파우스트』에서 진정한 악마의 자리는 메피스토펠레스에게서 파우스트로 옮겨간다. 파우스트가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는 것부터가 신적인 질서에 위배되는데다가(「비극」, 117), 메피스토펠레스의 악마적 힘을 통해서 그는 많은 죄를 범하게 된다.⁴⁾ 그러나 신은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에 방황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 더 나은 존재로 완성되기 위한 창조적 과정의 행위로 간주하며 이것을 선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신과 악

4) 파우스트의 죄의 목록은 “그레첸을 유혹해 결국 파멸하게 만들고, 발푸르기스 밤의 환락에 빠지고, 황제의 궁성에서 정치가로 활약하고, 고전적 미를 쫓아 헬레나를 차지하며, 마지막에는 황제에게서 받은 해안지대를 간척사업을 통해 비옥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부부를 죽이는”(임성이 13) 등을 열거해 볼 수 있다.

마의 내기는 “‘되어감’의 가능성에 대한 내기”(임성이 27)로 볼 수 있다. 피테가 그리고 있는 세계는 모든 가능성(유와 무)의 총체인 ‘신’의 세계이다. 이러한 신의 세계 내에서는 메피스토펠레스로 상징되는 악(무)마저도 파우스트를 자극하고 활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며, 그것은 변증법적으로 파괴와 창조의 기능을 다 하게 된다(28). 결국 파우스트는 죄로 인해서 노력하여 “이기적인 자아추구”에서 공동체에 대한 “자유로운 봉사”를 추구하는 태도로 변화되었다는 점에서(『죽음과 구원』 126) 선을 이루었고 신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이른다. 전지전능한 신의 섭리가 지배하는 『파우스트』의 질서 속에서는 주인공이 누가 된다 하더라도 불행은 있을 수 없다(『비극』 117-18). 그러므로 이 작품은 희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뎀빌이 「바틀비」를 썼던 시대는 선과 악이 내재된 신의 세계, 혹은 “변신론(辯神論)”의 이분법적 차원보다 훨씬 더 복잡한 관계들이 유통하는 세계를 대면하고 있었다. 「바틀비」 속에서의 악마는 바틀비다. 처음에는 고용인인 화자와 피고용인인 바틀비는 계약을 맺는다. 변호사인 화자 밑에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필경하는 일을 잘 해내는 것이 미국 월가의 법조계라는 기존의 질서가 바틀비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틀비는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I would prefer not to)”라는 말을 던지면서 노동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한다. 악마로서 바틀비의 부정성은 강력하면서도 특별하다. 바틀비의 표현은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지책 746). 그는 “~를 한다”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의 변항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라는 부정적 제스처를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책은 바틀비에 대해서 단순히 부정하는 것, “기존 사회의 우주로부터 거리를 획득하는 첫 번째 움직임”(747)에서 그 바깥의 공간을 열게 되는 두 번째 움직임에 해당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공들인 작업”으로의 이행 사이에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한다. 기존 질서를 비판하고 저항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질서 “전체의 움직임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원리”(747)인 ‘아르케’(arche) 혹은 근원적인 존재로서 바틀비를 평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바틀비가 새로운 대안적 질서의 형성을 준비하는 청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원천이자 본질적인 기반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더 깊숙이 내리고, 더 넓은 반경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것(something)’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이며(748), ‘공집합’을 넘어서 모든 부분집합들을 다 포함하는 ‘멱집합’이다. 이것이 바로 지책이 말하는 “시차

적 간극(parallax gap)”이자 “내재적 균열(immanent gap)”로서의 “순수한 차이”인 것이다. 아감벤의 의견도 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감벤은 현실화되기 이전의 “순수한 절대적 잠재성(pure, absolute potentiality)”로서 바틀비의 수동적 자세를 정의한다(*Potentialities* 254). 순수 잠재성은 “실현될 잠재성(potential to be)”과 “비-실현의 잠재성(potential to not-be)”을 포괄한다. 전자는 특정 행위를 대상으로 가지는 잠재성으로서 주체를 “행위하는 존재”로 만드는 반면, 후자는 잠재성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잠재성이다. 바로 이 비-실현의 잠재성이 능력과 무능력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최상의 ‘권력’이 된다(*Community* 36). 정리하면 바틀비는 “단순히 글쓰기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무능력을 선호함으로써 “쓰지 않을 잠재성(potentiality to not-write)”을 쓰는 것이다”(37). 바틀비는 “법을 베끼는 자(law-copyist)”였는데, 법을 필사하는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오래된 관습과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Potentialities* 270). 오히려 바틀비는 화자가 대변하는 신적인 체계와 가치를 부인하는 “탈창조(decreation)”를 일으킨다(270). 그는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성”을 구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들뢰즈가 배반자는 “지배적 의미의 세계를 배반하고 확립된 기성 질서를 배반”(*Dialogues* 41) 하고 “창조하는 일”(45)을 한다고 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⁵⁾ 신의 질서 속에 안정되게 담기는 메피스토펠레스나 파우스트와는 달리, 배반이라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악마 바틀비는 신을 압도하고 그것을 탈주해 버린다. 희망이 결여된 절망으로 인해 오직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바틀비의 부정성, 또는 이데올로기의 신적 질서 밖에 있는 근원적 잠재성은 화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화자는 혼란과 균열을 경험하다가도 바틀비와 대화하려고 노력하며 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Mitchell 337). 메피스토펠레스 덕분에 생성의 힘과 더불어 노력을 멈추지 않고 끝내는 구원을 얻게 되는 행복한 결말의 주인공 파우스트처럼, 바틀비와 그에 의해서 혼란을 겪게 되는 화자의 결말은 어떠하며, 과연 긍정적인 결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5)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하여 부연 설명을 한다면, ‘잠재성(potentialities)’에 대해서 들뢰즈도, 아감벤도 설명하고 있지만 결코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들뢰즈는 잠재성을 “그 자체로 현성 못지 않게 실재적인 것”(양창렬 229)으로 간주하는 반면, 아감벤은 현실태로 이행되지 않는 “순수한 잠재성”을 강조하며 “현실적 존재와 아무 관련도 맺지 않는 잠재성의 실존”(229)에 대해 사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감벤의 잠재성은 아포리아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양창렬의 논문 「아감벤의 잠재성 개념에 대하여: (무)능력의 아포리아」를 참조할 것을 권한다.

Ⅲ. “먹지 않고도 삽니다”: 소진된 몸, 바틀비

바틀비와 화자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텍스트 내부의 차원으로 더 들어가야 한다. 이 장에서는 들뢰즈의 “소진” 개념을 중심으로 바틀비의 신체가 갖는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소진’의 사전적 정의에는 “사라져 다 없어짐”, “완전히 고갈됨”(『소진』⁶⁾ 82) 등이 있다. 소진은 소진시키는 대상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들뢰즈가 소진시키고자 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그는 “모든 ‘가능한 것’의 소진(exhausts the whole of the possible)”(*Essays* 152)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가능한 것’을 다 고갈시켜야 하는 것인가? 가능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것은 언어와 관련이 있다. 언어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바로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담아 말하게 된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가능한 것의 실현은 실재로부터 선택과 배제의 원리에 따라 현실성을 유추하는 것으로 어떤 목적, 계획, 선호를 전제로 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 파생되고 추출된 것이다(152-53). 이처럼 미리 전제된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실현된다면 이것은 ‘새로운 것’의 창조가 될 수 없다. 가능성의 실현은 이미 주어져 있는 실재하는 것들로부터 가능성이 파생되기 때문에, 진부한 것의 재생산이자 재현의 사유에 불과한 것이다.

들뢰즈에게 있어서 예술은 “물질적 재료가 (잠재적) 힘들-작용하고 반응하는 힘들-을 포획하여 새로운 감응의 방식과 주체화의 방식, 그리고 새로운 사유의 형식을 창조하는 생성의 과정이자 사건으로서의 창조 행위”(『소진』 149)이다. 예술이 진정한 창조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능성의 소진을 통해 모든 욕구, 선호, 의지나 의미를 단념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기저에 내재되어 있는 “우주적, 정신적 물질처럼 찰랑이는(a cosmic and spiritual lapping)”(*Essays* 26) ‘생명의 잠재적 평면’을 조우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잠재적인(내재적인) 평면’이란 무엇인가?

들뢰즈가 죽기 전에 직접 발표한 마지막 텍스트인 “내재성: 생명.....”에서, 그는 내재성(immanence)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내재성이란 “생명.....이다”(513)라

6) 들뢰즈의 불어 원전인 “The Exhausted”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옮긴이가 해설을 덧붙인 『소진된 인간』을 인용 문헌으로 참고했다. 그러나 “소진된 ‘인간’”이라고 번역한 것은 들뢰즈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예술이 실천하는 비인간적이고 비유기체적인 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번역본에서는 ‘소진된 인간’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 인용할 때는 ‘소진’이라고 바꿔 옮겨 놓았다.

고 정의한다. 그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서로의 친구(*L'Ami commun*)』에 나오는 한 일화를 예로 든다. 한 불량배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 사람들은 그를 경멸하지만, 빈사 상태에 빠진 그에게서 다 꺼져가는 ‘생명’의 징후를 느끼게 되고, 열의와 배려와 사랑을 보인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매달리게 되고, 불량배는 혼수상태 속에서도 포근한 무언가가 스며드는 것을 느낀다. 그리하여 불량배는 점점 생명을 되찾아 가는데, 사람들은 다시금 냉담해지고, 불량배는 원래의 무례함과 고약한 인격으로 돌아간다. ‘그의’ 생명과 ‘그의’ 죽음 사이에서는 죽음과 유희하는 “하나의 어떤 생명의 순간”(513)만이 존재한다. 이 순간은 개별자의 생명을 통해서 각각의 개별자들 내부에서 약동하고 있을 비개별적이고 순수한 생명으로 넘어가서 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이다. 생명의 잠재적인 평면은 이 순간들의 마주침을 겪게 되는 곳으로 이 때 선악을 넘어서서 그러한 생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발생적 역량이 드러나게 된다. 이 순간을 가리켜서 들뢰즈는 ‘사이-시간들’이라고 부른다. 사이-시간들은 곧 신체가 가능한 것을 소진함으로써 잠재적인 역량을 선취하는 순간이며, 죽음, 혼돈의 순간과 생성, 창조의 순간이 구분되지 않는 “카오스모스의 시간”이다(『소진』 119).

소진된 신체는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단지 수동적으로 세계와 존재의 고통스러운 조건들을 감내할 뿐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흔적들은 뒤틀린 신체들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신체는 자신의 무능력으로 그저 시간을 견디며 소진되어 무(無)로 향해간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진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가능한 ‘무언가’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것’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단 하나의 항을 선택하고 하나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대신에 차라리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각항의 차이와 거리(사이)를 긍정하면서 이 사이들의 ‘결정 불가능성’ 속을 왕복 운동하는 ‘사이-신체들’이 되기를 지향한다.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는 신체는 하나의 공간이 된다. 생성과 소멸이 반복인 ‘강도적 흐름’이 통하는 하나의 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는 잠재적인 것으로서의 ‘내재성의 평면’이 현실화된 것으로 순수한 이미지를 창조하기에 이른다(104-106).

바틀비는 소진된 신체이다. 그의 “창백한 무기력함(pallid hopelessness)”이 지배하는 음울하며 유령 같은 외모와 고딕적 분위기는 죽음과 가까워 보이게 한다. 사무실에서 꼼짝 않고 있다가 필경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르기까지 “눈도 손도 불안정한 그야말로 전설적인 결함을 획득”(Essays 76)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가 반복해서 내뱉는 “I would prefer not to”라는 말은 부정이 아니다. 다만 비선호물(재검토, 심부름...)만을 거부하기 위해 하는 말

이다. “언어에 일종의 외국어를 파 넣고..... 언어를 침묵으로 전환한다”(72). 이 말은 선호 받지 못하는 활동과 더 나은 활동들 사이에 있는 식별 불능과 불명확의 지대를 파고든다. 모든 가능성이 소거되면 모든 선호, 목적, 의도, 계획도 사라지게 되고 기존의 것을 재현하거나 재생산하는 일도 관두게 된다. 모든 특수성이나 준거가 사라져 버렸고, 결국 바틀비는 재현으로서의 필경(copying)을 그만둔다. 언어를 탈영토화시키고 “언어의 극한 지점까지 밀고 가 언어의 밖, 침묵, 음악 혹은 리듬을 발견”(72)하게 만든다. “나는 뭔가를 좋아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무 것도 좋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무(nothingness of the will)”를 통해서 바틀비는 벽을 마주보고 꿈쩍 않고 서 있을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71). 하얀 벽을 보고 서 있는 바틀비의 부동의 자세는 “흰 벽-블랙홀/검은 구멍 시스템”이라는 들뢰즈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여기에는 흰 벽-블랙홀/검은 구멍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일 법한 사회 시스템 전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배적 의미의 벽 위에 편으로 고정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주관성의 구멍, 즉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우리 자아의 블랙홀 속으로 가라앉지요. **벽은 우리를 고정시키고, 격자 안으로 밀어 넣고, 동일시하고 재인식하도록 만드는 모든 객관적인 결정들이 기입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멍은 우리의 의식, 감정, 열정, 너무나 잘 알려진 작은 비밀들, 그 비밀들을 알리고 싶은 욕망이 다 함께 머무르는 곳이고요. **얼굴은 이러한 시스템의 산물이지만, 또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하얀 뺨과 두 눈의 검은 구멍을 지닌 커다란 얼굴. 우리 사회는 얼굴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 . . 즉 어떻게 생성의 선들을 그리는, 탐색중인 **머리들을 우리 내부에서 해방하면서 얼굴을 해체할 것인가? 어떻게 벽에 부딪혀 뒤로 튀어 오르거나 으스러지지 않고 벽을 통과할 것인가?** . . . (Dialogues 45, 필자 강조)

흰 벽은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으로서 인간들을 그 위에 고정시키고, 동일시와 재현의 원리에 따라 동일한 사고를 하도록 종용한다. 그리고 인간의 얼굴을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멈춰 있는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성을 향해 나아가는 탈주선을 그리기 위해서, 곧 얼굴을 해체하고 머리를 드러내는 것, 벽을 통과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문제인 것이다. 바틀비가 이 문제에 대해 사유하는 머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이다. 바틀비

의 부동성은 재현의 반복적인 글쓰기, 즉 필경을 그만두고, 새로운 흐름의 글쓰기, 악마적 글쓰기를 하기 위한 창조적 운동이 된다. 바틀비는 모든 행위를 하나씩 멈추고 지워나가다가 수용소에서 마지막으로 먹는 행위까지 중단한다. 그리고 완전한 부동의 조각상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는 죽음의 상태로 빠져든다. 바틀비의 신체 자체가 하나의 “글쓰기를 하는 판(the writing tablet)”(들뢰즈에게는 ‘글쓰기의 도주선을 그릴 수 있는 평면’) 또는 깨끗한 “백지”가 되는 것으로서, 아감벤이 말했던 순수 잠재성의 심연으로 들어가는 것이다(Potentialities 254). 그런데 화자는 바틀비가 “먹지 않고도 삽니다”라는 말을 남긴다. 결국 바틀비의 죽음은 먹지 않고서도 ‘사는 것’인 것이다. 바틀비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도 특별하게 묘사된다. “무덤(Tombs)”이라는 이름의 수용소에서 두꺼운 벽돌로 둘러싸여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완벽한 침묵의 공기를 만들어 주는 마당은 역시 “이집트 피라미드”라는 고대의 무덤으로 그려지면서 죽음의 이미지를 확연하게 부각시킨다. 그러나 그 심장 한 가운데에 새들이 떨어뜨린 씨앗으로부터 돌아난 잔디의 작은 싹을 보게 된다. 죽음 가운데 피어난 이 작은 생명력도 죽음이 종말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잠재력을 가진 죽음이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그리고 그 곳에는 최종적으로 “소진된(wasted)” 바틀비의 몸이 있다. 이제 바틀비의 죽음을 단순히 한 개인이 사회적 질서를 거부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는 처벌이라거나, 그가 희망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해석은 거절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화자의 가장 마지막 대사인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counselors)과 함께”라는 말도 의미심장하다. 이 대사를 인용한 원전 텍스트인 『구약 성서』의 「욥기」 3장 11-14절을 옮겨 본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를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 .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
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태어날 때 이미 죽어 있다는 것. 베케트는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포기했다”(Essays 152 재인용)는 말을 하기도 했다. 무언가를 실현하기 전에 소진된다는 것은 차라리 순수한 무를 실현하는 것이다. 탄생의 순간, 유기체로 통합되고 고착화된 상태가 되어 실재하게 되는 것을 거부하는, 그 이전의 순수한 “배아”

의 상태 혹은 “에벌레-주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잠재적인 것의 현실화로서 창조와 ‘강도적 개체화(차이화)’로서의 생명의 비약이라는 존재론적 함의를 지닌 주체의 상태이다. 바틀비라는 예술적 형상은 이러한 강도적 흐름을 생성함으로써 감각과 사유를 촉발시킨다. 백지 상태의 바틀비는 자신의 신체 위에 다시 한 번 더 글쓰기를 시도하려 한다. 그렇다면 바틀비라는 하나의 신체로서의 텍스트는 그것을 읽는 화자에게 어떤 감각과 사유를 촉발시키고 있는가?

IV. “아 바틀비여! 아 인간이여!”: 화자가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이제 관심의 초점은 바틀비에게서 화자로 옮겨간다. 왜 화자는 바틀비에 대한 전기를 쓰게 되었는가? 화자가 이 작품 속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화자와 바틀비에 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통적인 법·질서의 이성적이고 억압적인 세계’와 ‘이러한 세계에 저항하는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이며 혼돈이자 부조리로서의 세계의 이면’을 대표하는 인물로 해석하면서, 화자를 가해자로, 바틀비를 희생자로 본다. 화자가 바틀비의 고통에 대해 진정으로 공감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바틀비에게는 동정과 연민을, 화자에게는 경멸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하지만 이대로 받아들이다면, 바틀비라는 인물의 함의가 축소되며, 또한 화자가 굳이 서두에서 특별히 바틀비에 대한 전기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써야겠다고 밝히는데 그 동기에 대한 정당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화자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자가 바틀비를 처음 봤을 때, “놀란 눈”으로 “여태껏 보거나 들은 것 중 가장 낯선”인물이자 “불가해한(unascertainable)” 사람이라고 그를 지각한다. 이러한 낯설고 이질적인 감각은 그동안의 “삶의 편안한 방식”과 “평화”를 고집해왔던 화자의 “매우 철저하게 안전한” 세계인 “안락한 은신처(snug retreat)”에 위협이 된다. 그리고 화자의 “신중함”과 “주도면밀함”이 시험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한편, “어떤 낯선 암시적인 흥미(a certain strange suggestive interest)”가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화자는 행동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니퍼와 터키라는 두 인물이 보이는 마음의 동요와 격변하는 성정은 화자의 평화를 방해하지 못하지만, 바틀비의 순수한 형태의 수동성은 그를 방해하고 혼란을 가중시킨다. 화자의 바틀비를 치명적인 고립으로부터 구출해주려는 시도는 실패하고 말지만, 오히려 바틀비를 통해 화자 스스로를 그의 “안락한 은신처”

부터 구출하게 된다(Mitchell 334). 인간적인 접촉이나 유대와 소통을 바틀비가 수동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화자를 능동적이고 활발하고 열성적으로 만들어 평화로운 자기 세계 속에서 자족적인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바틀비와 계속해서 소통하기를 노력하도록 만들고 있다. 화자는 바틀비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이 작품은 “평행한 대립적 운동에 관한 이야기”로 “바틀비가 수축하면 화자는 팽창하고, 바틀비가 쇠진해 가는데 반해 화자는 성장하게 되고, 바틀비가 삶을 거부할 때, 화자는 죽음을 거부한다”(333).

바틀비의 거대한 고독과 절대적인 고립은 화자로 하여금 우울함에 압도당하도록 만든다. “불쾌하지 않은 슬픔”이라고 표현하는 이 우울함을 화자에게 드리우는 것은 “공동된 인간성의 유대(bond of common humanity)”와 “형제애의 우울(fraternal melancholy)”이다. 이 유대감과 형제애는 바틀비와 화자 모두가 “아담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들은 모두 아담의 아들인 동시에 ‘독신자(the Bachelor)’이다. 들뢰즈는 멜빌의 작품 속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타자에 대한 책임감으로서의 ‘자비(charity)’ 혹은 부성(父性)적 ‘인간애(philanthropy)’와 형제간의 ‘우애(fraternity)’ 사이의 대립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본다(*Essays* 84). 전자와 같은 부자관계나 혈연관계가 아닌, 후자는 “인간의 피로 쓴 계약 관계”로 맺어진 형제들의 사회로서 이것을 새로운 보편성으로 세우는 것이 작가의 의도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형제들의 사회가 구성원들의 무한한 생성과 변화가 일어나는 “독신자 공동체”이다. “가장 가혹한 증오에서 가장 열렬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습을 지닌 영혼에 대한 모든 섬세한 공감들”(87)인 형제애를 바탕으로 하는 이 사회는 소유나 위계나 재현의 관계가 없는 이상적인 “공산주의”(86) 인간 사회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이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멜빌은 작품 속에서 ‘본원적인 인성’과 ‘제2의 인성’, ‘비인간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양립시키고 이들의 조화를 꾀한다(*Essays* 84). 그리고 이러한 조화로운 성공을 위해 아버지-기능을 해체한다. 작품 속에서 바틀비는 아들이자 제1의 인성으로 본원적인 것이며, 화자는 아버지이자 제2의 인성이다. 바틀비가 “나는 특별하지 않아요”라고 계속해서 언명하듯이, 본원적인 인성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자신을 에워싼 환경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또한 바틀비가 사무실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본원적인 인성은 움직이지 않는 빛의 원천으로서 자신의 주위에 빛을 투사한다. 그래서 아버지-화자뿐만 아니라 사무실 직원들은 바틀비라는 존재로부터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다. 이렇듯 제1의 인성인 바틀비는 세계와 제2의 인성과 분리 불

가능하며, 제2의 인성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것들의 “텅 빔을, 특별한 창조물들의 범용함을, 가장행렬로서의 세계”(83)를 보여주며 해체시키는 임무를 다 한다.

바틀비가 감옥에서 죽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해체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들뢰즈는 바틀비를 가리켜 “새로운 그리스도”(90)라고 칭하는데, 그의 죽음은 “먹지 않고도 사는 것”, 즉 죽음과 동시에 새롭게 부활(復活)하는 잠재태로 회귀하게 한다. “바틀비가 희망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묵묵히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화자는 가장 깊은 우울과 절망 속에서도 삶과 희망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깨닫게 된다”(Mitchell 337). 바틀비가 “인간을 분리하는 침묵의 벽”을 구현하고 있다면, 화자는 “벽을 뚫으려고 하는 풀의 씨앗”이 되려고 한다(337). 『파우스트』에서는 절대적인 세계로서의 신을 넘어서는 탈주를 이루지 못하고(파우스트가 신을 뛰어 넘은 존재가 되지 못하고) 그 세계 내에서 외적인 힘에 의해 수동적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했었다면, 『바틀비』에서는 이보다 더 나아간다. 변호사라는 지배적 위치에서 사회적 법과 관습 체계를 상징하는 화자와 피지배적인 지위의 노동자 바틀비가 맺은 처음의 계약은 아버지-법과 아들의 “혈연관계”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악마인 바틀비가 자신의 수동적 저항성으로 이 상징적인 부자(父子)지간의 계약을 위반한다. 바틀비는 소진되면서 점점 무를 향해 나아가는, 그를 구하고자 하는 화자의 끈질긴 시도는 “인간의 피로 쓴 계약”을 성사시키고 바틀비와 화자 사이에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독신자 공동체”를 형성하게 한다. 구원을 “인간이 완성된 경지로 나아가며 겪는 무수한 변화의 총화의 결과”(『죽음과 구원』 129)라고 한다면 생성과 변화를 겪는 화자는 적어도 스스로를 구원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애매한 보고서(vague report)”는 초반에 언급되었다가 후반부 에필로그에 등장한다. “죽은 편지(Dead Letters)”에 관한 이야기인 이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과 끝에 등장하면서 ‘바틀비에 대한 화자의 보고서’라는 이야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 여기에 화자가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이 담겨 있다. 화자는 바틀비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틀비라는 ‘죽은 편지’를 열고 보존하여 누군가가 이 편지를 읽고 바틀비의 존재와 고통에 반응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Mitchell 332). ‘바틀비 이야기’라는 이 작품 전체가 죽은 편지이다. 침묵과 죽음을 택한 바틀비 대신에 화자가 글쓰기를 함으로써 끊임없이 그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죽었거나 잠든 것처럼 보이는 바틀비에 대해 화자는 “(먹지 않고

도) 산다”고 쓰고 있다. 결국, 화자 덕분에, “너무 빨리 죽음으로 향해 갔던” 편지-바틀비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게 되고”(Potentialities 271) 잠재적인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된다. 바틀비라는 소진된 신체가 화자에게 사유를 촉발시키고, 이로 인해 화자는 “바틀비”라는 제목의 편지를 쓰게 된다. 발신자 화자는 수신자인 독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어 그를 알린다. 비로소 소각장에 떨어져 화형 당할 뻔했던 편지가 “삶의 사명(errands of life)”을 제대로 완수하게 된다. 작품의 가장 마지막에 편지의 서명처럼 붙어 있는 구절인 “아 바틀비여! 아 인간이여!”에 대한 해석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러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를 긍정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 말 자체도 독자로 하여금 사유하게 하는데, 윤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비유기적인 강도적 역량을 마주치게 하고 존재론적인 차원까지도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틀비의 죽음은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와 조건을 드러내며 비극적인 슬픔을 느끼게 하지만 그 속에서 독자의 정신을 고양시킨다는 점,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게 만든다는 점이 미래적인 창조와 생성의 잠재적인 힘을 담은 회극적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바틀비는 더 이상 죽은 존재가 아니다”(Mitchell 337).

V. 결 론

글쓰기에는 목적이 없다. 인간 개인적인 계획과 의도 차원에서의 목적은 없다. 비개인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만 글쓰기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화자가 이 글을 서술하게 된 이면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생명과 죽음 사이에 놓인 바틀비의 신체를 통해서 그것을 관통하는 강력한 비유기적 힘의 실체를 본 것이다. 그 강도적 역량이 우연하게도 ‘글쓰기’라는 흐름을 낳게 되었다. 바틀비라는 “다이몬(악령)” 혹은 “강도 안의 차이”를 마주치게 됨으로써 “불법 침입”과도 같은 “사유 속에 ‘사유하기’를 낳는 것이다”(『차이와 반복』 322, 328). 화자가 보여주는 ‘바틀비-되기’의 노력은 우리 독자들에게도 놀라움과 충격이라는 차이를 옮기며, 그 연장된 흐름을 통해 삶의 잠재적 역량을 조우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바틀비의 글쓰기는 그 자체가 목적인 창조적 글쓰기로서 행복한 결과를 맞이한다.

애매모호함이라는 멜빌의 문체적 특징은 또 다른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화자가 궁극적으로 입체적인 변화를 보였을지 아닐지’와 같은 미래에 대한 암

시들이 미결정의 상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죽은 편지들(Dead Letters)”과 “죽은 자들(Dead men)”이라고 복수화된 표현을 통해서는 바틀비적 주체와 ‘바틀비-되기’ 운동의 반복 가능성도 비춰진다. 이 소설은 그 자체가 문학-기계로서 하나의 선을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경계 밖으로 탈주하도록 선을 연장시키고 있다. 그 선은 우리의 삶 속으로까지 이어져, 바틀비는 유령이 되어 떠돌며 여기저기 자신의 흔적을 남길 것이다. 변화무쌍한 힘을 만들며 움직여가는 이 작품은 마침내 “초인의 희극”(『유목』 273)으로 우리 곁에 항상 있을 것이다.

Work Cited

- 들뢰즈, 질. 『내재성: 생명.....』.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박정태 엮고 옮김. 서울: 이학사, 2007. 509-17. Print.
- _____. 『소진된 인간』. 이정하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3. Print.
- _____. 「유목적 사유」.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박정태 엮고 옮김. 서울: 이학사, 2007. 256-77. Print.
- _____.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서울: 민음사, 2004. Print.
- 멜빌, 허먼. 『필경사 바틀비』. 공진호 옮김. 파주: 문학동네, 2011. Print.
- 『NIV한영해설성경』. 서울: 아가페, 2004. Print. New International Vers.
- 양창렬, 「아감벤의 잠재성 개념에 대하여: (무)능력의 아포리아」. 『오늘의 문예비평』(2006): 217-33. *Riss. Web.* 21. Dec. 2016.
- 이영수. 「괴테와 낭만주의」. 『독일학연구』 6(1990): 71-83. *Riss. Web.* 13. Jan. 2017.
- _____. 「괴테의 *Faust*극은 과연 비극인가?」. 『독일학연구』 7(1991): 109-19. *Riss. Web.* 13. Jan. 2017.
- _____. 「괴테의 *Faust*에 나타난 Mephistopheles의 심상」. 『독일학연구』 3(1987): 97-112. *Riss. Web.* 13. Jan. 2017.
- _____. 「Goethe의 *Faust*에 나타난 ‘죽음과 구원’의 문제연구」. 『독일학연구』 5(1989): 119-39. *Riss. Web.* 13. Jan. 2017.
- 임성이. 『Faust에 나타난 악의 문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8. *Riss. Web.* 9. Jan. 2017.
- 조재진. 「절망적 인간조건의 거부: 멜빌의 「서기 바틀비」」. 『새한영어영문학』 43.1(2001): 179-95. *Riss. Web.* 14. Dec. 2016.

- 지젝, 슬라보예. 『시차적 관점』. 김서영 옮김. 서울: 마티, 2009. Print.
- 하우저, 아르놀트.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3: 로꼬꼬 · 고전주의 · 낭만주의』. 엄무웅, 반성완 옮김. 파주: 창비, 1999. Print.
- 황혜령. 「‘표현-기계’로서의 들뢰즈의 문학론: ‘바틀비-기능’과 ‘K-기능’을 중심으로」. 『새한영어영문학』 50.3(2008): 103-24. *Riss. Web*. 14. Dec. 2016.
- Agamben, Giorgio. "Bartleby, or On Contingency." *Potentialities: Collected Essays in Philosophy*. Trans. Daniel Heller-Roazen. Stanford: Stanford UP, 1999. 243-71. Print.
- _____. *The Coming Community*. Trans. Michael Hardt. Minneapolis: Minnesota UP, 2007. Print.
- Bridgwater, Patrick. *The German Gothic Novel in Anglo-German Perspective*. Amsterdam: Rodopi, 2013. Print.
- Crow, Charles L. Introduction. *Gothic Literary Studies: American Gothic*. Cardiff: Wales UP, 2009. 1-16. Print.
- Deleuze, Gilles. *Essays Critical and Clinical*. Trans. Daniel W. Smith and Michael A. Greco. Minneapolis: Minnesota UP, 1993. Print.
- Deleuze, Gilles and Claire Parnet. *Dialogues II*. Trans. Hugh Tomlinson and Barbara Habberjam. New York: Columbia UP, 2007. Print.
- Melville, Herman. "Bartleby, the Scrivener: A Story of Wall-Street." *Melville's Short Novels: Authoritative Texts, Contexts, Criticism*. Ed. Dan McCall. New York: Norton, 2002. Print.
- Mitchell, Thomas R. "Dead Letters and Dead Men: Narrative Purpose in 'Bartleby, the Scrivener'." *Studies in Short Fiction* 27.3(1990): 329-39. *Riss. Web*. 14. Dec. 2016.

Abstract

Bartleby's Happy Writing: the Comic Possibilities of "Bartleby, the Scrivener" Revealed by Deleuze

Woo, Mi-Rye

Herman Melville's "Bartleby, the Scrivener" was analyzed by many researchers, most of whom have perceived Bartleby as a tragic hero. One of their views is that he has been understood as a victim who failed to adapt to the material civilization of massive industrial cities in that the story twists human alienation problems which are the dark side in capitalized societies. Another one is he may be biographically the author himself, who was projected into the hero in order to show his predicament from the American literary world at that time. The piece was depicted by its desolated and melancholy atmosphere of Wall Street, not only with abnormal characters showing spiritually pathological symptoms, but with some gothic and negative images such as death; these factors may contribute to such negative interpretations.

According to Deleuze, those negative readings may go wrong because they are likely to miss the productive power of literature, and just reproduce given values(cliché). 'The literature of representation' results that literature fall in its value. Deleuzian 'literature-machine' is to liberate the life that reveal the impersonal and inorganic power. It can produce the practical act that construct real disposition of life from non-actualized virtual. Therefore, "Bartleby", a great masterpiece of American fiction in 19th century, should be perceived as a comedy, which can flight from given systems and make a flow toward a new 'becoming' or 'creation'.

There are three reasons for the argument to demonstrate comic possibility of "Bartleby". First, in the story, 'the devilish' of Bartleby leads into his redemption as in Goethe's Faust. Second, his 'exhausted' body paradoxically opens the virtual power to another life in his death. Finally, his negativity affects the narrator, and the narrator's positive trials for thinking also affect readers by writing the letter named "Bartleby". In the end, the readers will be aware that this fiction is not about the death of Bartleby, but about his secondary life.

Key Words

Bartleby, Deleuze, the devilish, Faust, the exhausted, the narrator, comedy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나타난 신화적 숙명

최 선 연

I . 들어가며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1916)의 주인공 스티븐 디덜러스(Stephen Dedalus)는 아일랜드 더블린(Dublin)이라는 마비(paralysis)의 중심지에서 태어나 그 곳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소년으로 등장한다. 그의 조국 아일랜드(Ireland)는 영국의 식민지이자 종교적으로는 로마 카톨릭교 교황청의 식민지이기도 한 감금의 사회로 그려진다. 실제 작품의 배경이 된 그 당시 아일랜드의 정치상황은 국민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지도자 찰스 스튜어트 파넬(Charles Stuart Parnell, 1846-1891)이 최측근 정치 보좌관 팀 힐리(Tim Healy)에 의해 배신을 당하며, 파넬의 당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시점을 1장에서 다루고 있다.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 파넬의 비극과 연이은 그의 사망 소식은 아일랜드 국민들의 분노를 들끓게 만들었다.

이 작품의 작가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1882-1941)는 어린시절 실제 파넬의 열렬한 옹호자였으며, 파넬과 힐리의 애증 관계를 줄리어스 시이저 (Gaius Julius Caesar, BC 100-BC 44)를 배신한 마르쿠스 부르투스(Marcus Junius Brutus, BC 85-BC 42)와의 관계에 대입시켜 “힐리 너마저”(Et Tu, Healy)라는 시를 아홉 살의 어린나이에 창작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하였다. 작품 속에서 이 역사적 사건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독립 투사 출신의 영웅 지도자 파넬의 죽음을 두고, 케이시(Casey)는 “가엾은 파넬! 나의 죽은 왕이시여!”(Poor Parnell! My dead king!)(63)라고 소리치며 가슴 아프게 오열한다. 아일랜드는 영웅 지도자를 배반한 나라라는 믿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과 그 명백한 역사적 확인 속에서, 개인이 조국에 대해 가져야 할 민족주의적 정서와 충성심에 회의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면서 더블린은 더욱 심화된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도시로 변모한다.

스티븐은 이렇듯 서서히 무감각해진 도시 더블린이라는 정신적 마비(spiritual paralysis) 공간에서 주변인들과 그를 둘러싼 체제들에 적응하지 못하는 불안함과 소외감을 느낀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인 가족들과도 정서적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의 부모님들은 그가 예수교(Society of Jesus) 카톨릭 사제가 되길 바라고 있으며, 학교 신부님들도 그 길을 강력히 권유한다. 그러나 스티븐 그에게는 종교가 죄악에 대한 참회의 기회를 준 “생활의 개선”(238)을 제공해주는 것은 하였으나, “하느님의 사제가 가진 권세”(the power of a priest of God)(244)를 누릴 수 있는 소명 앞에 알 수 없는 거부감을 느낀다. 클론고우즈 칼리지(Clongowes Wood College)를 거쳐 벨베디어 칼리지(Belvedere College)에 입학한 것 자체가 예수회 종교에 몸을 담을 것이라 여기면서 성장해 왔지만, 정작 성소(vocation)에 복종해야 할 때가 되자 그 부름과 소명에 거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의 창조적 의식의 단핍과 청년으로서 일상의 즐거움을 향유할 삶의 에너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그의 갈등과 고뇌는 깊어간다.

카톨릭 종교를 포함한 아일랜드의 기존 보수체계가 현실적으로 아무런 혁신과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목격한 스티븐은 그들의 기성 세대가 걸어간 마비된 삶에 대한 대물림에 거부감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슈뜨(W.M. Schutte)는 스티븐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그가 카톨릭 종교와 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거리감과 망설임의 문제점은 종교 그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자기 내부에서 성장하고 있는 창조적 정신을 부정하도록 요구하며, 그가 믿을 수 없는 전통적 인습이나 개념에의 맹종을 요구하는”(97) 그런 신에 대한 거부 반응인 것으로 지적하였다. 스티븐은 도덕적으로 무감각하며 타락했으며 건조한 더블린의 마비된 삶 그 중심에 기존 체제의 세력 유지가 있다고 믿었고, 그 안에 억압되고 구속된 카톨릭 종교가 존재한다고 여겼다..

스티븐은 그의 장래에 대해 고민하던 어느 날 친구들이 바닷가에서 자신을 향해 “헬로, 스테파노스!!”(259)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연이어 그들은 “스테파노스 데달로스! 부스 스테파누메노스! 부스 스테파네포르스!”(Stephen Dedalus! Bous Stephanoumenos! Bous Stephaneforos)”(260)라고 그에게 소리친다. 부스 스테파누메노스(Bous Stephanoumenos)는 ‘화환이 씌워진 황소’(garlanded ox) 그리고 부스 스테파네포르스(Bous Stephaneforos)는 ‘화환을 쓰

1) 스티븐이란 이름의 그리스식 발음이며, 그리스어로는 <왕관> 또는 <화환>이라는 뜻.

고 있는 황소'(garlandbearing or crownbearing ox)를 의미한다(Gifford 220). 황소는 '제물로 바쳐지는 소'(sacrificial cow)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가 나아가야 할 길에 헌신하는 재목 혹은 순교자적인 소임을 맡은 인물이라는 강한 예지를 받게 되고 황홀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의 고귀한 재능과 생명이 정해진 순리에 의해 소명적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선택된 주인공임에 벽찬 환희를 느낀다. 대의를 위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단어가 자신의 이름으로 치환되어 불리던 그 순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적 숙명을 예감하게 된다. 동시에, 화환을 쓰고 있는 황소라는 의미의 '스테파네포르스'는 고대 희랍에서 공직자나 사제가 공을 세웠을 때 축하와 상의 의미로 받는 화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희생양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자로서의 황소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스티븐은 순교자만의 소가 아닌 예술가의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리라는 계시처럼 느낀다. 조이스는 이 이름을 통하여 가장 명백하게 스티븐의 진정한 운명을 독자에게 암시하고 있으며, 스티븐은 이때까지 한번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Ernest Bernhart-Kabish 115). 스티븐이 주변에서 끈질기게 권유하던 종교인의 길을 거부하고 예술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그 첫 번째 운명적 조우는 바로 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었던 것이다.

‘스티븐 디덜러스’라는 이름은 조이스의 작품²⁾ 『영웅 스티븐』(*Stephen Hero*),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율리시스』(*Ulysses*)에 일관적으로 등장하는 공통된 이름이다. 작품마다 거듭 사용하는 동일한 이름에 대한 이해는 그의 작품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심지어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1914)의 첫 두 편을 발표했을 당시 이 등장인물의 이름과 유사한 ‘스티븐 데덜러스’(Stephen Daedalus)란 필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조이스는 자신과 등장인물 스티븐 디덜러스를 상당히 동일시 하고 있거나, 이름이 지니는 의미를 일정 부분 차용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이름이 가지는 의미와 상징성을 살펴보는 것은 곧 조이스 문학의 표피 아래에 있는 기저를 파악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 될 것이다.

2) 젊은 예술가의 초상』(1916)을 기준으로 『영웅 스티븐』(*Stephen Hero*)은 전편에 해당되며, 『율리시스』(*Ulysses*)는 후속편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이 작품들 간에 ‘스티븐 디덜러스’라는 동일 인물이 등장하며, 작품 속 같은 장면이 연속적으로 다루어지는 등 마치 하나의 연속처럼 읽히기도 하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스티븐의 이름이 지닌 신화적 숙명은 순환적 구조를 지니며 에피파니(epiphany) 현상으로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그에게 불가시적으로 느껴지던 절대적 숙명에 대한 강렬한 확답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메시지를 주는 대상이 누구인지 혹은 이 메시지를 제대로 수신 받고 있는지는 스티븐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마비된 더블린이라는 거대한 수용소에서 부동의 자세를 유지해야만 했던 그에게 이 신화적 숙명의 감지는 이곳을 탈출할 계기와 동기를 선사하는 유일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를 해방구로 인도해 줄 이 예지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삼는다. 태초의 출생과 더불어 얻어진 회랍 신화의 상징성을 띤 그의 이름과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현현의 그 순간들은 신화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스티븐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 예지적 계시들과 그 기저에서 절대적 작용을 하는 신화성에 주목해본다. 그리고 스티븐이 예감한 신화적 숙명의 탐색 과정을 제임스 조이스의 실제 삶과 조우하여 살펴보면, 조이스가 자아를 투영한 스티븐의 인생에 신화적 상징이 구현해 낼 수 있는 그의 내러티브(narrative)에 대한 변호와 정당성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II. 신화적 상징, 그 이름의 의미 : 숙명의 예감

비베(Maurice Beebe)에 의하면, 조이스의 작품에서 신화(myth)의 사용은 주목할만 한데, 모더니즘 작가들은 이전에 사용하였던 믿음의 원칙이나 해석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예술에 질서를 부여하는 자의적인 수단으로 신화를 사용한다는 것이다(175).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는 바로 이 신화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상징성 탐색 과정이 작품 전반에 면밀히 나열되어 있다. 신화적 모티브를 차용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내러티브의 예지성과 절대적 운명론은 극의 전개에 질서정연한 흐름과 신화의 역사 속에서 검증받는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조이스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스티븐 디덜러스’라는 이름의 신화적 의미와 숙명적 예감의 확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스티븐은 클로고우즈 학교 재학 당시 급우 내스티 로슈(Nasty Roche)에게 이름이 뭐냐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에 그가 ‘스티븐 디덜러스³⁾’라고 대답해 주

3) 회랍신화에 등장하는 명장 데덜러스(Daedalus, Daidalos)의 이름을 영어식으로 표기한 것으로, 영국인이거나 아일랜드의 성(last name)으로는 생소하게 들릴 수 밖에 없다.

자 “무슨 이름이 그 모양이나?”(What kind of a name is that?)(14)라는 편견 섞인 조롱을 받게 된다. 그의 이상한 성(odd last name)은 일반적인 영어식 이름을 지닌 급우들 뿐만 아니라, ‘내스티 로슈’라는 기괴한 이름을 가진 친구에게서조차 짓궂은 놀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지닌 특이함으로 인해 이름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게 되는데, 타인이 자신의 이름을 함부러 대하는 태도에 상당히 예민하면서도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학감 선생님(Dean of studies)에게 무섭게 꾸지람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스티븐은 자신이 혼이 나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학감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방금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재차 이름을 다시 물어봤다는 그 사실에 더 큰 분노감과 복수심을 품는 모습을 보인다.

네 이름이 무어냐고 두 번씩이나 묻던 학감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쟁쟁 울렸다. 왜 처음 말했을 때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그 이름을 우롱하고 있었던 것일까? 역사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이 모두 그런 이름들을 갖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두고 조롱하지는 않았는데, 조롱하려거든 자기 이름이나 조롱할 것이지.

Why could he not remember the name when he was told the first name? Was he not listening the first name or was it to make fun out of the name? The great men in the history had names like that and nobody made fun of them. It was his own name that he should have made fun of it if he wanted to make fun. (85)

스티븐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름으로 인한 놀림과 조롱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이름들”(The great men in the history had names like that)(85)이라는 알 수 없는 우월감을 동시에 지닌다. 그는 이름이 지닌 의미와 주체와의 상관 관계 혹은 일치성에 상당한 집착을 보인다. 바로 빈센트 헤론⁴⁾(Vincent Heron)이라는 친구를 보며, ‘새’를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얼굴마저 새를 닮은 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머리털은 마치 “새의 구겨진 뿔”(like a ruffled

4) 헤론(heron)은 왜가리류의 새 이름이다.

crest)같은 모양이었고, 이마는 “좁고 뼈가 튀어나와”(narrow and bony) 있었으며, 눈 사이로 “얇은 매부리코”(thin hooked nose)가 솟아 있는 형상을 본다(119). 이름과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대로 적용되는 일례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면서, 이름과 그 주체와의 상관 관계가 자신의 이름에게도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진다. 이런 연관 관계에 대한 의미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는 시내의 ‘스티븐 공원’(Stephen’s Green)을 자신의 개인 소유라고 생각하기도 하며 스스로 자기 이름에 뜻을 부여하기 시작한다.

어느 날 학교 신부님들의 강력한 성직자 권유 문제로 장래의 선택에 심각한 고민을 하던 스티븐은 바닷가에서 자신을 부르는 친구들의 외침 “스테파노스 데달로스! 부스 스테파누메노스! 부스 스테파네포르로스!”(260)을 듣는 순간, 이상관 관계의 첫 번째 의미를 발견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 이름이 지닌 예술가로서의 운명을 타자의 외침 속에서 발견한다. 자신의 내면에서 피어 오르는 운명에 대한 깨달음이 넓은 의미로 확장된다. 자신의 이름을 변형시켜 우스꽝스럽게 부르는 “부스 스테파네포르로스!”란 말이 어느덧 “친구들의 야유”(their banter)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온화하고 도도한 주체 의식(mild proud sovereignty)”을 승격시키 주며, “과거와는 달리 자기의 기이한 이름도 이제는 하나의 예언으로 받아들이는”(Now, as never before, his strange name seemed to him a prophecy) 경지를 맞이한다(260). 이 날의 사건으로 인해 스티븐은 그에게 나타날 미래적 비전이 이름에 함축되어 있음을 자각하게 됨과 동시에 카톨릭 종교의 성직자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운명을 예시처럼 받아들이고 그 길을 선택하려 한다.

이름의 의미 탐색에 대해 브런즈(Gerald Bruns)는 “스티븐은 그 이름에 거창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168)라고 언급하며 선천적 이름이 지닌 상징성에 무게를 둔다. 바로 그의 이름 스티븐 디덜러스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protomartyr)인 성 스티븐(St. Stephen)과 희랍 신화에 등장하는 명장(fabulous artificer) 데덜러스(Daedalus)의 이름이 합쳐진 형태인 것이다. 예수와 동시대인이었던 성 스티븐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였으며, 미노스(Minos)왕을 위해 미궁(labyrinth)을 만들었던 데덜러스는 미궁의 비밀을 지키려는 왕에 의해 자신이 만든 미궁에 아들이인 이카러스(Icarus)와 함께 갇히게 된 신화 속 명장의 이름인 것이다.

데덜러스는 대단히 세련되고 숙달된 기술을 지닌 그 시대의 명장으로서, 입구로 들어가기는 쉽지만 다시 되돌아 나올 수 없는 치밀한 구조의 미궁을 왕의

부탁에 의해 만들게 된다. 미노스왕의 부인인 왕비 파시파에(Pasiphae)가 육육에 눈이 멀어 바다의 신 포세이돈(Poseidon)이 선물한 황소와의 사이에서 낳은 괴물 미노타(Minotaur)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한 괴물- 를 감금시킬 목적으로 만든 그 겹겹의 미로(maze)속에 설계자인 자신이 갇혀 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데달러스는 자신이 주도면밀히 설계한 ‘감옥같은 퍼즐’(puzzle-as-prison) 구조에서는 입구를 찾아 나가는 일반적 도주가 불가능하기에, 밀랍으로 날개를 접합하여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수직 비상(flight)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인물이다.

희랍 신화 속 명장과 같은 성(last name)을 지닌 스티븐은 이름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암울했던 일화와 삶에 대한 고민의 ‘수의’(grave clothes)(262)를 벗어버리고, 데달러스와 같은 위대한 예술가가 될 자신의 운명을 찾아 나서려 한다. 마치 데달러스와 그의 아들 이카러스가 미궁 속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 날개를 달고 비상하여 하늘로 날아오르듯 말이다. 그리고 스티븐은 종교의 순교자 대신 예술이라는 종교의 순교자 혹은 제물로서 그 사명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스티븐의 신화적 상징에 대한 각성 과정에, 리츠(Walton A. Litz)는 “이 작품이 신화에 의거함은 곧 데달러스(Daedalus)란 본명의 함축성에 있다”(111)고 본 것이다.

그의 영혼은 소년 시절의 무덤에서 일어나 그 시절의 수의를 떨쳐버렸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옛날의 위대한 명장처럼, 그도 이제는 영혼의 자유와 힘을 밀천으로 하나의 살아 있는 것, 아름답고 신비한 불멸의 새 비상체를 오만하게 창조해 보리라.

His soul had arisen from the grave of boyhood, spurning her grave clothes. Yes! Yes! Yes! He would create poudly out of the freedom and power of his soul, as the great artificer whose name he bore, a living thing, new and soaring and beautiful, impalpable, imperishable. (262)

그는 신화 속 명장의 운명을 타고 난 예정된 인물임과 동시에 그 운명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는 능동적 선구자여야 한다. 환멸을 느끼는 더블린의 마비된 공간에서 탈출을 시도해야 하는 그에게는 태양 가까이에 가면 날개가 녹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세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데달러스 부자

처럼 양립하기 힘든 두 가지 딜레마를 이겨 내야 하는 운명이다. 그의 타고난 예술가적 숙명을 찾아 떠나가기 위해서 더블린이라는 현대판 미로 속에 존재하는 주변 환경과의 단절 시도는 곧 자기 추방(self-exile)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셰릴 허(Cheryl Herr)는 이런 스티븐의 모습에 대해 자신의 숙명적 인생을 찾아나서는 냉철한 정체성 의식 속에서도 주변의 인간관계를 상실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그의 태도를 언급하며, “객체의 범위를 넘어서 그는 ‘변치 않는 형태’의 정신적 영웅’인 니체(Fredrich Neizche) 철학의 초인(Supermensch, Uebermensch)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지적한다(344-45). 바로 스티븐은 데달러스의 신화적 모티브(Daedalus mythic motif)를 통하여 다른 차원의 영역으로 상승하는 확장된 영역을 확보 받게 된다. 이는 그가 가족, 종교, 학교, 조국을 등지고 암흑의 더블린을 떠나는 행위가 일종의 배신이 아닌, 자신의 절대적 숙명을 찾아가는 탐색 과정이었으며, 필연적인 면죄부를 신화적 절대성으로부터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예술가로서의 운명 예시성은 순환구조를 띤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특히 작품 도입 부분에서도 강한 암시가 나타난다. 어린 아기와 암소가 만나는 옛날 이야기에 대해, 틴달(Tindall)은 “타쿠와 음매소와의 만남은 어린 스티븐에게 등장할 굴레들, 즉 가정, 조국, 종교 등과의 필연적인 만남을 암시”(51)한다고 언급한다. “턱쿠 아기”(baby tuckoo)는 어린 시절 스티븐을 의미하고, “음매 소”(moocow)는 암소로서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것으로, 아일랜드라는 공동 영역 속에서 필연적으로 조우하게 될 관계임을 예시한다. 아일랜드를 의미하는 ‘음매 소’가 ‘화환을 두른 황소’로 치환되어 그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순환적 예시 장면은 연결 고리로 이어진 또 하나의 함축된 예언이다.

옛날에, 아주 살기 좋던 시절, 음매 하고 우는 암소 한 마리가 길을 걸어오고 있었단다. 길을 걸어오던 이 음매 소는 턱쿠 아기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사내아이를 만났단다.....그가 바로 턱쿠 아기였다. 그 음매 하고 우는 암소는 베티 번이 살고 있던 길에서 오고 있었거든. 그애는 레몬 냄새가 나는 보리 파배기를 팔고 있었지.

오, 들장미 피어 있네.

파란 잔디밭에.

그는 혀가 짧은 소리로 그 노래를 불렀다. 그것은 그의 노래였다.

오, 파란 장미 꼬 피어 있네

Once upon a time and a very good time it was there was a moocow coming down along the road and this moocow that was coming along the road met a nice little boy named baby tuckoo.....He was baby tuckoo. The moocow came down the road where Betty Byrne lived: She sold lemon platt.

O, the wild rose blossoms.
On the little green place.
He sang that's song. That was his song.
O' the green wothe botheth. (11)

어린 시절 동요는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닌 “그의 노래”(his song)이라는 점에서 그가 맞이 할 운명을 노래로 예시해준다. 여기에서 “파란 잔디밭”은 아일랜드를 나타내고, “들장미”는 스티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Staley 63). 오직 상상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파란 장미꽃을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은 어린 아기가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살아가야 할 숙명을 상징적으로 함축해 보여준다. 들장미인 “파란 장미꽃”이 피었다는 가사는 아직까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예술이 피어나리라는 예지를 선사한다. 이는 앞으로 스티븐이 나아가야 할 미지의 예술 세계에 대한 빛갈과 형태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노래라 할 수 있겠다. 조이스가 이 작품의 제사(epigraph)로 선택한 오비드(Ovid)의 『변신』 (*Metamorphoses*, Book viii)의 구절 “그리고 그는 미지의 기술에 마음을 쓰고자 한다”(Et ignotas animus dimittit in artes)의 문장에서, ‘미지의 기술’은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곧 피어나게 될 “파란 장미꽃”이 지니는 예술성과 상통한다.

Ⅲ. 에피파니(epiphany), 그 예지의 순간 : 숙명의 확답

스티븐은 회랍 신화에 등장하는 데덜러스가 새의 날개를 달고 미궁을 탈출한 것과 같은 성공과 세기의 위대한 예술가가 되길 염원하는 의지를 스스로 투영시킨다. 이 순간 예시적 비전인 에피파니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지닌 신화적 의미와 예시적 상징들이 숙명의 예고편이었다면, 에피파니의 순간은 숙명의 확답을 받는 순간이다. 제임스 조이스는 이 작품의 전작에 해당되는 『영웅 스티븐』에서 ‘에피파니’⁵⁾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평범한 대화이거나 평

범한 몸짓이거나 인상적인 마음 그 자체의 어느 한 국면이거나 간에 거기서 갑자기 생기는 정신적인 현시”(a sudden spiritual manifestation, whether in the vulgarity of speech or of gesture or in a memorable phase of the mind itself)라고 설명하며, “에피파니란 그 자체가 가장 미묘해서 사라지기 쉬운 순간이기 때문에 문인은 이러한 에피파니를 세심하게 주의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다”(It was for the man of letters to record theses epiphanies with extreme care, seeing that they themselves are the most delicate and evanescent of moments)라며 강조하고 있다(216).

크레타(Crete)섬의 미궁에서 필사의 탈출을 시도하는 데덜러스와 이카러스의 모습을 지상에서 보았다면 마치 인간새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형상으로 보였을 것이다. 미궁 신화(myth of labyrinth)에 등장하는 명장과 자신의 이름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그 전설적인 명장의 이름을 듣자 그는 어렴풋한 파도 소리를 듣는 듯했고 한 날개 달린 형체가 파도 위를 날아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at the name of the fabulous artificer, he seemed to hear the noise of dim waves and to see a winged form flying above the waves and slowly climbing the air)(261)을 받는 예시를 겪게 된다. 마치 신화 속 데덜러스의 비상 모습을 재현한 것 같은 “매처럼 생긴 사람”(hawk-like man)의 에피파니를 보게 되면서 더욱 극대화 되는 에피파니의 점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크레타 섬을 탈출하는 데덜러스 부자와 자신의 운명을 동일화 시킨다.

예언과 상징들로 가득한 중세 서적의 한 페이지를 여는 기이한 도안인가? 매처럼 생긴 사람이 태양을 향해 바다 위로 날아가다니 그게 바로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받들도록 되어 있었고 안개 같은 유년기와 소년기를 통해 꾸준히 추구해 오기도 했던 목표를 예언하고 있을까? 자기의 작업실에서 이 지상의 맥빠진 물질을 가지고서 새롭고 신비한 불멸의

-
- 5) ‘에피파니’(epiphany)는 본래 희랍어로 ‘현현’, ‘계시’, 더 구체적으로는 ‘이전에 숨겨진 어떤 것의 본질이 드러남’을 의미하지만, 기독교 교회들이 종교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神聖)이 드러남을 기념하기 위하여 1월 6일을 에피파니 축일로 정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조이스와 학자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순간적으로 계시를 느끼거나 비전을 보게 하는 객관적 경험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경험을 기록한 원고를 가리킨다. 조이스는 갑자기 베일이 벗겨지듯이 신비가 드러나고 사물의 진실이 분명해지는 순간, 즉 에피파니의 순간이 있다고 믿었고 그것을 노트에 기록해서 나중에 그의 작품들에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민태운 36)

비상체를 빚어내고 있는 예술가의 상징인가?

Was it a quint device opening a page of some medieval book of prophecies and symbols, a hawlike man flying sunward above the sea, a prophecy of the end he had been born to serve and had been following through the mists of childhood and boyhood, a symbol of the artist forging anew in his workshop out of the sluggish matter of the earth a new soaring impalpable imperishable being? (261)

에피파니의 최대 클라이막스는 “마술에 걸려 신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한 듯한 소녀”(She seemed like one whom magic had changed into the likeness of a strange and beautiful seabird)(264)의 현현을 보는 장면인데, “필멸의 인간적 젊음과 아름다움을 갖춘 천사”(angel of moral youth and beauty)(265)로 느끼며, 이 환희를 따로 표현할 언어가 없음을 고백한다. 리처드 엘만(Richard Ellmann)은 바닷가 소녀의 영상미가 담긴 에피파니는 “스티븐에게 진리의 계시처럼 다가오며, 인생이 무질서를 뜻하고 예술이 고통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예술에 대한 그의 선택을 확증시켜 준다”(55)고 설명한다. 아름다운 소녀도 결국은 신비하고 영롱한 새의 형상으로 등장하였고, 그가 떠나야 할 시점을 알려주는 도서관 앞 현현 또한 새의 이미지이다. 대학 도서관 앞에 서 있는 스티븐은 초저녁 하늘을 날아가는 제비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떠나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음을 예견한다. “출발의 상징일까, 아니면 외로움의 상징일까?”(Symbol of departure or of loneliness?)(348)를 고민하며 이 계시가 주는 정확한 의미를 알아내려 고민한다. 로마시대에는 하늘을 여러 개의 구역 혹은 신전(templum)으로 나누어 거기서 새가 나는 것을 보고 미래의 신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왜 그는 현관의 계단에서 위를 쳐다보며 날카로운 이중음을 내는 새들의 소리를 듣거나 그들이 날아다니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 길흉의 징조라도 찾기 위해서였던가? 코르넬리우스 아그립파의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스쳐 갔고 스웨덴보리의 조서에 나오는 형체 없는 사상들이 마음속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이 스웨덴의 철학자는 지적인 것들에 대한 새들의 조음을 주장하면서 이 날짐승들은 제 나름의 인식이 있어서 세월과 계절을 알아맞힐 수 있으며 그것은 새들이 인

간과는 달리 삶의 질서를 지키면서 이성으로 그 질서를 뒤집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Why was he gazing upwards the steps of the porch, hearing their shrill twofold cry, watching their flight? For an augury of good or evil? A phrase of Cornelius Agrippa flew through his mind and then there flew hither and thither shapeless thoughts from Swedenborg on the correspondence of birds to things of the intellect and of how the creatures of the air have their knowledge and know their times and seasons because they, unlike man, are in the order of their life and have not perverted that order by reason. (346)

에피파니를 경험하는 그 순간은 마치 어떤 빛이 피어나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됨을 고백하는데, 이는 스티븐이 5장에서 설명하는 그의 미학론(aesthetics)의 마지막 단계와 일치점을 보인다. 스티븐의 미학론 설명을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신학대전』(*Summa Theologica*)으로 표현하자면 “눈에 즐거운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Pulcra sunt quae visa placent)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다.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선이다”(Bonum est in quod tendit appetitus)라는 의미와 상통하며, 아름다움은 곧 도덕적 선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아퀴나스는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integritas, consonantia, claritas이다”(ad pulcritudinem tria requiruntur, integritas, consonantia, claritas)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전일성’(integritas, wholeness), ‘조화’(consonantia, harmony), ‘빛’(claritas, radiance)을 말한다(326). 광휘는 미적 인식의 마지막 단계로 일종의 환희를 불러 일으키는 경지로 순간적인 깨달음 즉 조이스의 에피파니 현상과 동일시 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미학 이론의 결정체에 해당하는 빛의 광휘를 직접 눈으로 경험한 스티븐은 에피파니의 이상학적 특질을 현실 세계에 실존하는 예술로 창조하기 위해 숙명의 길을 떠난다.

IV. 숙명을 향한 비상

신화 속 명장의 운명을 자신에게 대입시킨 스티븐은 데덜러스가 크레타의 미궁으로부터 날개를 단 죽음의 탈출을 시도했던 것처럼 더블린이라는 섬에서의

탈출을 시도한다. 그의 소극적인 1차 방법은 주변인들과의 단절과 자기 고립(self-alienation)으로부터 시작된다. 스티븐은 가장 가까운 타자인 부모님과 의 인간 관계에서조차 현실적 소통에 실패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어머니는 카톨릭 교회의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아일랜드의 기존 질서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요구 속에서 심리적 거리감을 느낀다. 특히 무능한 아버지와의 심각한 갈등은 스티븐이 기성 세대의 거부감을 가지는 절대적 계기로 작용한다. 가족이라는 핵 단위는 아일랜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정치, 종교, 사회의 실상을 함축시켜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와의 우호적 관계 실패에 대해 도로시 반젠트(Dorothy Van Ghent)는 “아버지의 이미지 추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회에 대한 이미지도 같이 심한 손상을 입는다”(271)고 설명한다.

이렇듯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관계의 단절은 조국 아일랜드로 확대된다. 국수주의자인 친구 데이빈(Davin)은 조국이 존재해야 시인도 될 수 있고 신비론자도 될 수 있는 것이며 나라가 가장 중요한 순위라고 여긴다. 그러나 스티븐은 아일랜드의 선조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버리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소수의 외국인들이 자기네를 예측하는 것을 허용한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며 민족주의 운동 참여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313-14). 그는 조국 아일랜드의 현재 환경 속에서는 정체성의 부활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 오로지 자신의 내부로부터 피어나는 공간속에서 이를 갈구하는데, 이런 이유로 그는 주변과의 관계에서 자기 소외를 스스로 실천한다.

단혀진 하나의 문으로 인해 반대편 문이 열리게 되고,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멘토와 예술관에 대단한 갈망을 느낀다. 피키(Peake C, H)는 스티븐이 자신의 삶을 위해 신세계로의 갈망에 시달리는 탐색 과정 중에 고립과 소외를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그는 “고립에서 자유를 찾음으로써 예술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71)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스티븐의 친구 머캔(McCann)이 그를 향해 “자신 속에 갇혀 있는 반사회적인 존재”(an antisocial being, wrapped up in yourself)(274)라고 지칭하듯이 그는 더블린이라는 마비된 도시 안으로 동화되지 않으려 한다.

아버지의 한계를 능가하는 신화적인 아버지를 찾음으로써 그의 환상을 만족시키려 하고, 데덜러스는 그에게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닌 정신적 아버지로서의 역할 모델이 된다. 그에게 신화적 예시는 바로 구원의 상징인 것이다. 그는 신화와 예술 작품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모색해 나간다. 그는 실존 인물들과의 교

류보다는 신화의 전설과 예술 및 문학 작품 속 인물에 더 강한 애착 관계를 보인다. 『몽테 크리스토 백작』(*The Count of Monte Cristo*)의 이상적 여인 ‘메르세데스’(Mercedes)가 실제 더블린 자신의 주변 집에서 살고 있다는 가정을 하며 그녀와의 로맨틱한 조우를 꿈꾼다. “블랙록의 외곽에서 산으로 통하는 길가에는 희게 칠한 작은 집 한 채”(Outside Blackrock, on the road that led to the mountains, stood a small whitewashed house)(99)에 메르세데스가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거나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이 집을 경계표로 삼고서 거리를 재곤 한다. 메르세데스의 기억은 세속의 지저분한 감정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나른함으로 바뀔 때에 한해서 떠오르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이다. 그리고 이런 메르세데스 앞의 스티븐은 ‘클로드 멜노트’(Claude Melotte)라는 문학 작품 속 남자 주인공이 되어 거룩한 상봉을 하는 날을 꿈꾼다(154).

스티븐 디덜러스
 기초반
 클론고우즈 우드 학교
 셸린스 마을
 킬데어 군
 아일랜드
 유럽
 세계
 우주

Stephen Dedalus
 Class of Elements
 Clongowes Wood College
 Sallins
 Country Kildare
 Ireland
 Europe
 The World
 The Universe (25)

자신만의 고유한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의 탐색 과정은 클론고우즈 재학

당시 지리학 여백에 메모를 남길 때 즈음부터 시작된 여정이었다. “우주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What was after the universe?)(26) 라는 그의 사유는 확장시절의 중심 화두 중 하나이다. 저 메모에 따르면 현재 아일랜드라는 현대판 미로 속에 멈추어 있는 상태이며 다음 단계의 지점을 향해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 만큼은 명백하다. 그 곳은 문학 작품 속 이상적 여인 ‘페르세데스’가 화사한 햇살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마르세이유(Marseille)가 있는 곳, 유럽으로의 망명(exile)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 탈출에 대한 스티븐의 여정에 대해, 애덤스 로버트(Adams Robert)는 “스티븐은 장난꾸러기 단어의 수집가가 되며 단어들로 자신을 통제하고 결과적으로 그 자신의 우주를 창조하는 것으로 발전된다”고 설명한다(98). 그는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그가 꿈꾸는 자신의 우주 공간에 도달하기 위해 망명을 향한 과감한 비상을 시도한다.

해리 레빈(Harry Levin)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 빌둥스로망(Bildungsroman)인 동시에 예술가 소설(Künstlerroman)이다”라고 말한다(47). 실제로 조이스 자신의 전기적 연대와 거의 일치하는 부분 등은 자서전적 소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카톨릭 종교에 대한 거부, 가족과의 소통 불화, 아일랜드 민족 부흥 운동에 대한 소극적 태도, 유럽으로의 망명, 예술가의 길을 걷는 여정 등은 실제 조이스의 삶과 매우 흡사한 부분들이 소재로 쓰였음에는 틀림없다. 주인공 스티븐 디덜러스가 유년기에서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에 겪는 정신적, 지적 편력과 장래의 예술가로의 출발에 이르는 과정 등에는 작가 조이스 자신의 자서전적 요소가 아주 많이 스며있다.

실제로 조이스는 작품 속 주인공 스티븐처럼 영국의 문화적, 정신적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 중 아일랜드 민족 부흥 운동(The National Revival Movement)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행보를 보였다. 그의 철저한 개인주의적 면모에 커슈너(Kershner)와 같은 비평가는 “공격적인, 깊이 뿌리 박힌 개인주의”(217)라는 평가를 내리는 반면에, 페어홀(James Fairhall)은 “조이스의 반항의 도구는 글로 쓴 단어”(57)라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조이스는 민족 부흥 운동이 아일랜드적인 편협한 지방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거부하였다. 조이스 자신만의 역사관에 근거한 확고한 신념에 의한 행동이었지만 편협한 개인주의자라는 일부의 사회적 편견의 시각은 따라다녔다. 자존심이 대단히 강하고 고집이 세며 자신의 천재성을 누구보다도 절대적으로 확신했던 조이스는 자신의 창조적 글쓰기가 곧 애국 운동의 강력한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글쓰기에 몰두한다. 심지어 더블린에 대

한 완벽한 이해와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로 망명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에게 해외 망명은 민족주의에 대한 시대적 회피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애국 운동의 발로로 자행되었다.

조이스는 민족의 배신자가 아닌 신화 속 명장의 주인공과 같은 성공적 귀환을 달성할 수 있는 영웅적 대상이라는 것을 거울처럼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며 그 정당성을 부여 받고자 한다. 민족 운동의 소극적 참여에 대한 오해의 불식 혹은 면죄부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절대적 숙명의 길을 가기 위한 작가로서의 소명의식을 증명해 내는 길 밖에 없다. 그래서 “내 영혼의 대장간 속에서 아직 창조되지 않은 내 민족의 양심을 버리어내기 위해 떠나는”(to forge in the smithy of my soul the uncreated conscience of my race)(390) 스티븐의 모습으로 떠나지만,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영웅적 모습으로의 귀환을 꿈꾸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설명해 내기 위해, 그는 고대 희랍 신화의 구조와 그 상징을 부여받은 거룩한 이름을 차용함으로써 조이스 인생의 행보와 사유를 옹호해 줄 수 있는 정당성과 타당성을 부여 받고자 한다. 신화적 상징이 지니는 절대성이 그의 개인적 역사에서 외환팔이로 우회했던 천재적 작가의 숙명성을 변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는 주인공 ‘스티븐 디덜러스’의 인생이 곧 ‘제임스 조이스’의 인생 여정과 평행선상을 그리며 함께 조우한다.

V. 나가며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1916)의 주인공 스티븐 데덜러스(Stephen Dedalus)는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에겐 단순한 작품 속 주인공이 아닌 자아의 또 다른 분신(alter ego)으로 재탄생된 인물이다. 유년기에서 대학 시절에 이르는 동안 스티븐의 지적, 종교적, 예술적 부딪힘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각 사건들의 연관은 흩어져 있는 수천 조각의 퍼즐처럼 나타난다. 간혹 플래시 백 수법(flash-back method)을 통해 회고되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 날에 걸친 사건 및 장면들이 복잡하게 기록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또 이러한 스포트라이트 식의 서술 방법에서 상징적 장면들의 계시적 의미가 드러난다. 스티븐의 이야기는 곧 작가 제임스 조이스가 예술가로서의 창조적 인생 여정을 담은 서사의 결합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순환 고리로 인해 스티븐은 “그 옛날의 아버지여, 그 옛날의 명장이여,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나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소서”(Old father, old artificer, stand me now and ever in good stead)(390)라는 기도과 함께 유럽으로 떠나는 것이 마지막 모습이며, 작가 제임스 조이스가 되어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는 현실 속 연계성이 가능하다.

현실 세계의 제임스 조이스는 예술혼은 창조하는 그 첫 단계로 아일랜드의 핵심부 더블린을 보여주는 작업부터 시작하고 있다. 더블린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을 이끌어 내는 첫 단추이자 이전 작가들이 해내지 못한 더블린 주제에 대한 특화 과정이기도 하다. 그는 일전에 더블린이 파괴가 되어도 자신의 책을 보고 도시의 복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그의 작품 속에는 과거와 현실의 더블린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1904년 6월 16일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장장 한권 분량의 책에 묘사해 낸 『율리시스』를 보면 그의 작품이 지닌 더블린 백과사전적 특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일랜드의 실생활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작업은 아일랜드 민족 부흥 운동(The National Revival Movement)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그의 개인주의적 면모와는 다른 아이러니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바로 그가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더블린 특화 작가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특수성을 지닌 작품 세계는 어릴 적 부른 동화에서 표현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없는 “파란 장미꽃”(11)을 조이스가 드디어 피운 것이다. 조이스가 그 당시 게일어 연맹⁶⁾(Gaelic League)등 민족주의 기구와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영국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자체를 외면했거나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저항의 수단에 대한 반대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현재 제임스 조이스 산업(James Joyce Industry)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그는 아일랜드의 경제, 문화와 예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블룸스데이(Bloomsday)라는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기념일이 탄생할 정도의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대작가로서의 귀환, 그는 루키 시절에 그의 미래의 모습을 예지하고 있었던 것일까? 마치 스티븐이 주변의 조롱과 고독한 단절 속에서도 자신의 창조적 예술가로서 숙명을 예견하고 그의 길을 찾아 떠났듯이, 조이스도 시대의 정신을 저버린 뿌리 깊은 개인주의자로서의 오명 속에서 예술가가 되기 위해 해외 망명을 감행한 것은, 신화 속 명장처럼 대문호로서 자신의 운명을 이미 감지하고

6) 더글라스 하이드 (Douglas Hyde, 1860~1949) 영향하에 1893년에 결성된 단체. 이 단체의 궁극적 목표는 아일랜드어를 부활시켜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것이었으며 1900년 이후 20년간 폭력적 전통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젊은이를 육성하는 민족주의 단체로 변모한다. (박지향 114-116)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다. 그에게는 유헤 운동보다 펜으로 쓴 민족적 애국 운동이 훨씬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자의적 판단과 자신의 문학가적 잠재성을 스스로 믿었다. 그리고 그는 세계 사람들에게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키워드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제공해주는 문화 중심지의 한 복판에 서 있다.

연속된 작품 속 등장인물의 이름을 스티븐 디덜러스로 연계하여 사용함은 이 이름이 지닌 상징적 의미, 즉 신화적 운명에 대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는 자아 투영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활용해 스티븐에 의해 재현된 그 신화적 운명이, 사실은 실제 그의 인생에 일어났던 혹은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실재’임을 역설한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 지닌 신화적 속명은 주인공 스티븐 뿐만 아니라 작가 제임스 조이스의 삶까지 대변해 줄 수 있는 순환 고리로 엮여져 있으며, 이것은 이 두 예술가들의 삶의 역사를 함께 함축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는 강력한 문학적 기반을 구축한다.

Work Cited

- Bernhart-Kabish, Ernest. *"Joyc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he Explicator X V III, Jan, 1960.
- Bruns, Gerald L. *Inventions: Writing, Textuality, and Understanding in Literary History*. New Haven: Yale UP, 1982.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New York: Oxford UP, 1959.
- Fairhall, James. *James Joyce and The Question of History*. Cambridge UP, 1993.
- Ghent V, D, *The English Novel : From and Function*. New York: Harper Torch Books, 1961.
- Gifford, Don. *Joyce Annotated: Notes for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 Herr, Cheryl. "Deconstructing Dedalu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Ed. R. B. Kershner. Boston: Bedford-St. Martin's. 1993. 338-60.
- Joyce, Jam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Bedford Books, 1993.
- _____. *Stephen Hero*, Ed Theodore Spencer, London : Jonathan Cape, 1956.

- Kenner, Hugh. *Dublin's Joyce*. Boston: Beacon, 1962.
- Kershner, R. B. "Artist, Critic, and Performer: Wilde and Joyce on Shakespeare."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20.2 (1978): 216-29.
- Levin, Harry. *James Joyce: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Faber, 1971.
- Litz, A, Walton. *James Joyce*. New York: Princeton UP, 1965.
- Beebe, Maurice "Ulysses and Age of Modernism" in *Fifty Years Ulysses*. Ed Thomas F. Stanley. Blooming & London: Indiana UP, 1974.
- Peake, C ,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P, 1977.
- Robert M. Adams. *James Joyce: Common Sense and Beyond*.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9.
- Staley, Thomas F. *A Critical Study Guide to Joyc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otowa, New Jersey: Littlefield & Co, 1968
- Tindall, W. Y.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78.
- William. M. Schutte, *Joyce and Shakespeare*. New York: Yale UP, 1957.
- 민태운.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1.
- 박지향. 『슬픈 아일랜드』. 새물결, 2002.

Abstract

Mythical destiny i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Choi, Sun-Yoen

This paper explores the process of finding the mythical destiny of Stephen Dedalus, the protagonist of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His birthplace Dublin in Ireland is a British colony and a pit of paralysis. His sense of free will is oppressed and shackled by the surrounding environment – family, school, religion, the Church, and his homeland. His parents and the clergy wish for him to become a Catholic priest, and although Dedalus is a profoundly introverted boy, a rebellious streak causes him to reject this fate. Thus, from the very site of his spiritual paralysis erupts his thirst for escape.

Dedalus eventually realizes that owing to his idiosyncratic name his destiny is not to be a man of religion but an artist. His name has been derived from St. Stephen, the protomartyr of Christianity, and Daedalus, the artificer of Greek mythology. He considers his fate to be that of a grand artist alongside Daedalus and departs in search of that path. His escape is reminiscent of Daedalus and his son Icarus who, to escape the labyrinth, donned wings and soared up into the sky. Furthermore, Stephen, instead of becoming the protomartyr of the Church, becomes the protomartyr or sacrificial victim of another religion: art. This is a vocation he gradually accepts, as seen in the names given to him by his friends: “Bous Stephanoumenos,” or “garlanded ox,” and “Bous Stephaneforos,” meaning “garland-bearing or crown-bearing ox.”

On experiencing a moment of epiphany—a sudden spiritual manifestation of divine being—Dedalus’ resolve is further strengthened. Although the

original religious understanding of epiphany is somewhat replaced with a secular one, it remains an extremely important literary device in arousing Stephen's desire to become an artist. At the very moment in which the epiphany from the most ordinary objects and experiences is recognized, the "whatness" of phenomena is suddenly apprehended. Epiphany and the myth of Daedalus' labyrinth call Stephen's attention to the artist's destiny and enable him to pursue it.

Influenced by Thomas Aquinas' theory of arts - integritas(wholeness), consonantia(harmony), claritas(radiance) - and other aesthetic writings, he agonizes over the task of transubstantiating his writing into art. By undergoing this process, he establishes his own theory of art as a true artist; to be reborn as a "fabulous artificer," he flees toward a new world. Dedalus' maturation from an adolescent in to an adult is also a fictional reflection of the real life of the novel's author James Joyce. The features of Stephen's emphatic theory of art directly coincide with the narrative techniques used to develop Joyce's own writing. These characteristics are examined along with another feature displayed by the work—the Bildungsroman or Künstlerroman.

Key Words

myth of Daedalus's labyrinth, symbol of the name, epiphany, Dublin, flight, alter ego, Bildungsroman, Künstlerroman.

메타담화 분석

- 미국 대통령 연설문 〈조지워싱턴 대통령 제1차 취임사,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게티즈버그 연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연설〉을 중심으로 -

김 연 주

1. 서 론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우리의 삶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다. 현대사회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메시지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나 처세술에 대한 정보가 방대해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대화, 글, 매체를 통한 형태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중 미국 대통령 연설문이 어떤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면서 설득력을 발휘하는지를 메타담화 분석을 통하여 실증해 보고자 한다.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요체인 정치인의 ‘말’은 공중과 소통하는 방법이자 리더십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이다(이윤지, 2011).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수사¹⁾에서 나오는데, 이런 수사적 리더십을 통해 사회를 이끄는 덕목이 나타나고 국민들은 그에 따라 리더십을 평가한다. 대통령의 수사(Presidential rhetoric)는 대통령 제도의 공식적 표현양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취임사, 신년사, 국회연설, 국가 단합 연설, 거부메시지, 사면, 탄핵, 전쟁 선포 등 각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를 띤다(김명기, 2002). 그 중 대통령 취임사는 대통령제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사로, 국가 상황에 맞춰 대통령의 의지, 계획 등이 드러

1) 수사(rhetoric)란 ‘수사학’이라고도 하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며서 보다 아름답고 정연하게 하는 일이나 기술’로 나와 있다. 일반적 의미로는 ‘화법’, ‘화술’이라고도 하고 ‘style’로 번역되기도 한다. 스피치에서는 수사가 들어가는 연설이나 담화를 수사라 일컫기도 한다.

나며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호소력이 높은 격조 높은 웅변으로 국민을 설득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새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취임사는 당대의 고민, 대통령 철학이 집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적 맥락을 생성하기도 하고 현 상황을 반영하기도 한다(곽중철, 2003).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대통령 연설문은 특수한 언어적 장치를 사용할 것인데, 어떤 장치를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그런 장치가 한글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2월 미국 워싱턴시의 싱크탱크인 부르킹스 연구소는 ‘대통령의 날’을 맞이하여 미국 정치학회(APSC) 대통령·행정정치 분과 소속 회원 3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링컨이 1위, 조지 워싱턴(1대)이 2위, 프랭클린 루스벨트(32대), 시어도어 루스벨트(26대), 토머스 제퍼슨(3대)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조지 워싱턴의 제1차 취임사(1789)와 짧은 연설이지만 ‘링컨의 2분 연설’이라고도 알려질만큼 호소력이 강했던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1863), 그리고 2016년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연설 총 3편의 미국 대통령 연설문 원문과 한글 번역본을 분석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조지 워싱턴과 에이브러햄 링컨의 영문과 한글번역본의 출처는 미국 대사관이 발간한 ‘America’s Famous Speeches(미국의 명연설)’이며, 도널드 트럼프의 영문과 한글 번역본은 The Huffington post(온라인 신문)에서 발췌하였다.

메타담화는 필자들이 그들이 쓴 ‘담화 자체에 대하여 언급한 담화’라고 설명하며 ‘텍스트의 명제적 내용의 측면에 더 부가하여 주는 것은 없지만, 독자 혹은 청자가 주어진 정보를 조지고하, 해석,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사용되는 언어적인 재료’라고 한다(Williams, 1985:212 ; Crismore, Markkanen and Steffensen, 1993:39-40). Hyland and Tse(2004:157)는 메타담화를 ‘필자가 담화를 조직화하거나 담화의 내용 또는 독자에 대하여 취하는 필자의 자세를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언어적인 장치’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더 조직적이고 잘 된 학술적인 글 일수록 메타담화의 활용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미국 대통령 연설문에 드러난 메타담화의 활용양상과 한국어로의 번역이 원문의 메타담화를 잘 살려서 작업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양질의 번역을 하기 위한 재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 (1) 미국 대통령 수사연설문에 사용된 메타담화의 사용양상은 어떠하며, 각 연설문 별 차이점은 어떠한가?
- (2) 해당 메타담화 장치들이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2. 이론적 근거

본 장은 메타담화의 정의 및 분류 그리고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내용이다.

2.1. 메타담화

2.1.1. 메타담화의 정의

메타담화는 Halliday(1994)의 Functional Grammar(체계기능문법)을 근간으로 하여 발전되었다. 학자들마다 메타담화의 정의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 Halliday는 언어는 (1)인간경험을 해석하는 경험적 메타기능(experiential meta-function) (2)사회적 관계를 규명하는 대인관계적 메타기능(interpersonal meta-function) (3) 주변상황 혹은 문맥과 텍스트간 연관성을 창출하는 텍스트적 메타기능(textual meta-function)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메타담화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Williams(1996:212), Crismore, Markkanen, Steffensen(1993:30-40)은 메타담화를 필자들이 그들이 쓴 담화 자체에 대하여 언급한 담화로 텍스트의 명제적 내용에 더 부가해 주는 것 없이 독자 혹은 청자가 주어진 정보를 조직화, 해석,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언어적 재료로 보았다. 즉, 이들은 메타담화를 대인 관계적, 텍스트적 메타기능을 하며 텍스트 명제내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Hyland, Tse(2004:157)은 메타담화를 필자가 담화를 조직화 하거나 담화 내용 또는 독자에 대해 취하는 필자의 자세를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언어적 장치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메타담화는 근본적으로 독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필자의 의도를 알기 쉽게 하는 것이므로, 대인 관계적 또는 텍스트적 메타담화라는 이분법에 반대하며 메타담화는 기본적으로 ‘대인 관계적 메타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근래 많은 학자들은 대인 관계성을 고려한 메타담화의 정의에 무게를 더 두는 추세이다.

2.1.2. 메타담화의 분류

Vande Kopple, Crismore et al Hyland, Tse 등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메타담화의 정의와 분류 중 본 연구는 Hyland·Tse(2004)의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Hyland·Tse는 메타담화를 저자가 담화를 조직화하거나 담화 내용 또는 독자에 대해 취하는 저자의 자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장치라고 설명하며 그 기능에 따라 독자이해지원표지(interactive resource)와 독자관여유도표지(interactional resource)로 구분하였다(신진원, 2015). 독자이해지원표지란 텍스트 내의 정보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장치로, 텍스트 내에서 독자를 안내하는 기능을 한다면 독자관여유도표지란 저자가 텍스트 내에서 다루어지는 명제적 내용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텍스트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언어장치로, 독자를 텍스트 안으로 개입시키는 역할을 한다(Hyland 2005). 아래는 Hyland·Tse(2004:169)가 메타담화의 분류를 구체화한 표이다.

〈표 1〉 메타담화의 분류(Hyland and Tse, 2004:169)

Category	Function	Examples
Interactive	help to guide reader through text	Resources
Transitions	express relations between two clauses	in addition, but, thus
Frame markers	refer to discourse acts, sequence	finally, to conclude, my purpose is
Endophoric markers	refer to info in other part of text	noted above, see Fig, in section2
Evidentials	refer to info from other texts	according to X, Z states
Code glosses	elaborate propositional meanings	'amely, e.g., in other word
Interactional	involve the reader in the text	Resources
Hedges	withhold commitment & open dialogue	might, perhaps, possible, about
Boosters	emphasize certainty or close dialogue	in fact, definitely, it is clear that
Attitude markers	express writer's attitude to proposition	unfortunately, I agree, surprisingly
Self mentions	explicit reference to authors	I, we, my, me, our
Engagement markers	explicitly build relationship with reader	consider, note, you can see that

저자가 독자의 이해를 위해서 텍스트 안에서 사용하는 독자이해지원표지 항목부터 그 구체적 사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Transition은 ‘논리어’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첨가, 대조, 반증, 나열 등 앞 뒤 문장 혹은 절 사이의 의미를 명확히 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Frame marker는 ‘구조어’로 담화의 순서나 전개과정을 나타내는 지표로 서수나 to conclude, my purpose is 등이 있다. Endophoric marker는 ‘지시어’로 텍스트 안의 다른 내용을 지시하는 데 사용되는 following above, in section2 등이 그 예이다. Evidentials은 ‘출처어’로 번역하며 해당 논리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시킬 내용의 출처를 알리는 지표로 according to가 대표적 예이다. 그리고 code closes는 ‘예시어’로 번역되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드는 경우의 표지로 for example, namely 등이 있다. 지금까지 독자이해지원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는 독자를 텍스트 안으로 개입시키고 저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는 독자 관여유도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hedge는 ‘헤지표현’으로 저자가 본인의 주장에 대해 책임이나 확신을 보류하는 장치로 활용되며 can, might, possible, seem 등이 그 예이다. booster는 ‘강조표현’적 언어지표로 actually, definitely, it is clear that 등으로 표현된다. attitude marker는 저자의 ‘태도표지’로 unfortunately, surprisingly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self-mention은 ‘관여어’로 번역되며 저자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글을 강조하기 위한 지표로 I, we, our 등의 표현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engagement marker는 ‘개입표지’로 번역되며 독자를 글에 강하게 개입시키기 위한 전략적 지표로 consider, you may know, note 등이 그 예이다. 지금까지 메타담화 지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각 기능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위 Hyland and Tse의 분류와 정의를 기반으로 신진원(2015)이 본 분류에 더불어 정의해 놓은 한글 번역을 참조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선행연구

메타담화의 연구는 주로 제2언어로서 영어 쓰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연결 장치, 순서 표시 장치, 헤지 표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Hyland, 2004). Kim(1999), Ryoo(2005)는 원어민 학생의 영어 텍스트와 한국 학생의 영어 텍스트를 비교하여 비원어민 보다는 원어민이, 영어실력이 우수할수록 메타담화를 더 자주 사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텍스트 메타담화에 대한 연구는 문화 간 글쓰기 차이, 학술적 글쓰기에서 설

특 목적으로 활용된 메타담화에 대한 연구가 많다. Dahl(2004)은 영어, 프랑스어, 노르웨이어의 세 언어로 작성된 경제학, 언어학, 의학의 세 학술 분야의 소논문에 나타난 메타담화를 비교분석하여 학술 분야의 차이도 메타담화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엄철주(2009)의 경우 한국인 연구자와 영어 원어민 연구자가 쓴 응용언어학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담화를 분석하여 한국인 연구자가 원어민 연구자에 비해 텍스트적 메타담화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외에도 김세인(2010), 엄철주(2009), 강대민(2007), 박밀(2006) 등은 영어를 제2언어로 학습한 학습자의 글쓰기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메타담화를 연구하였다.

신진원(2015)은 전문번역가와 예비번역가의 메타담화 사용양상을 비교하여 예비번역가가 독자이해지원표지 메타담화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착안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사 장치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과 전문번역가는 독자관여유도표지를 더 잘 활용한다는 점에서 번역시 전문번역가는 ST를 벗어나지 않는 번역전략을 펼침을 실증하였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표 2〉 미국 대통령 연설문 3편

대통령	연설 날짜	연설 종류	출처 (한·영)
조지 워싱턴 1대	1789년 4월 30일	1차 취임 연설문	‘미국의 명연설’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1863년 11월 19일	게티스버그 연설	대사관 발간
도널드 트럼프	2016년 11월 9일	당선 연설문	The Huffington Post

상기 <표 2>는 연구 대상 텍스트이다. 선정 텍스트는 가장 설득력 있는 정치적 수사를 나타내는 대통령 연설문 중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에서 2위를 차지한 조지 워싱턴1대의 취임 연설문과 1위를 차지한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북전쟁 중 죽은 병사들을 추모한 명연설로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 그리고 2016년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 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연설이다.

3.2. 연구 방법

<표 2>에 정리된 3편의 대통령 연설문의 영문본에서 <표 1>의 Hyland and Tse의 메타담화 유형을 기준으로 사용된 메타담화 추려내어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큰 갈래인 독자이해지원표지와 독자관여유도표지 별 사용 빈도와 각 하위 범주의 사용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후 영문본에서 활용된 메타담화들이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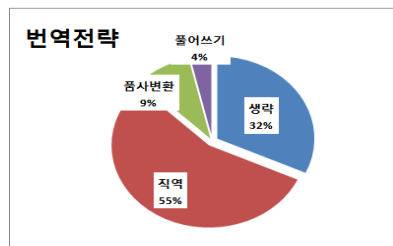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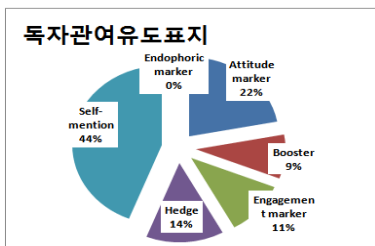
4. 분석 결과

아래 <표 3>은 3편의 연설문에 사용된 메타담화의 전체적 사용 양상 및 번역전략을 분석한 그래프이다.

<표 3> 연설문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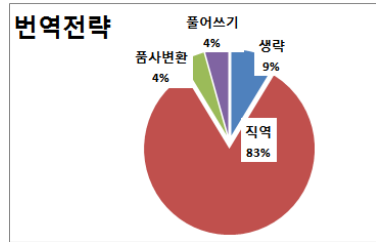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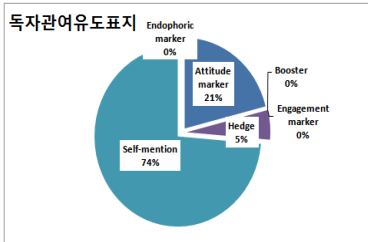
① 조지 워싱턴

독자이해지원표지	10
독자관여유도표지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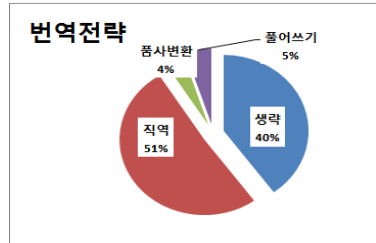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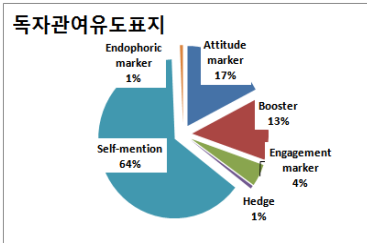
② 에이브러햄 링컨

독자이해지원표지	4
독자관여유도표지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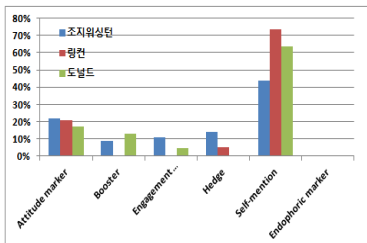
③ 도널드 트럼프

독자이해지원표지	26
독자관여유도표지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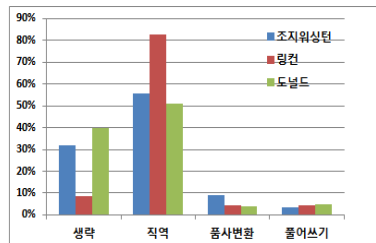


④ 종합

<독자유도지원표지세부항목>



<번역 전략>



위 <표 3>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연설문 모두 독자유도지원표지가 독자이해지원표지보다 월등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유도지원표지의 세부항목을 분석해 본 결과 Self-mention(관여어)가 워싱턴의 경우 44%, 링컨의 경우 74%, 트럼프의 경우 64%로 가장 많이 쓰였고, Attitude

marker(태도표지)가 각 22%, 21%, 17%로 두 번째로 많이 쓰였다. 그 외 나머지 항목의 사용 빈도도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연설문은 자기 자신의 각오나 미래 비전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는 수사적 요소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자기 자신을 연관시키는 I, We, us같은 Self-mention이나 I will, I hope같은 의지를 나타내는 Attitude marker가 빈번히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워싱턴과 링컨의 연설문은 1700년~1800년에 작성된 것이고 트럼프의 것은 2016년도의 연설문이므로 그 어투나 어휘 선택에도 차이가 있다. 가령 워싱턴이나 링컨의 연설문은 묘사적이고 우아한 특징을 가진 반면 트럼프의 연설문은 그에 비하면 다소 캐주얼하고 자유로운 구어체적 어투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연설문에는 booster의 사용이 빈번한 반면 링컨 연설문에서는 booster사용이 없었으며, 워싱턴도 booster 사용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트럼프의 연설문에는 워싱턴의 연설문에도 나타나는 truly, really 같은 어휘도 있었지만 unbelievable, spectacular과 같이 좀 더 많은 강조를 하는 어휘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는 세월의 변화와 더불어 연설문의 경직성이 자유로운 형태로 변화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각 대통령의 성격적 부분이 드러나는 예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같은 Self-mention이라 하더라도 워싱턴은 'I'를 주로 사용한 반면 링컨은 단 한번도 'I'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신 링컨은 Self-mention 전략으로 'We'를 주로 사용하였다. 트럼프도 'I' 보다는 'We'를 더 많이 사용하였지만 이 둘을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을 보여주었다.

세 연설문의 여러 메타표지들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양상도 거의 비슷하다. 직역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생략된 경우도 빈번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설문은 공식적인 문서인 만큼 의역이나 생략을 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 마땅하다. 하여 직역의 경우가 많기는 하나, 관습상 한국어에서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번역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주어가 'I'인 경우 생략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링컨의 경우 거의 직역이며 다른 연설문에 비해 생략 빈도가 낮고, 워싱턴과 도널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링컨의 연설문은 원문 자체가 장병을 추모하는 목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단문 형식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직역으로 옮기는 것이 좀 더 용이했을 것이다. 그리고 워싱턴의 연설 원문은 다른 연설문 보다 풀어쓰기방법이 조금 더 많이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긴 영문의 고전적 글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직역이 불가한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트럼프의 연설 원문은 복잡하지 않은 단문 형식이 많았으나 같은 감탄 형용사를 반복한다든지 앞에 있는 사람 이름을 여러번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 구어체적 스타일 문체로 인해 반복을 생략하는 기법이 많이 활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수사적 장치가 풍부한 미국 대통령 연설문 세 편을 선정하여 Hyland·Tse의 메타담화 분류표를 기준으로 하여 메타담화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한글로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메타담화는 독자의 이해를 돕고 독자를 글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활용되는 언어 장치이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독자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독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설득하거나 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분석결과 또한 메타담화의 두 분류인 독자이해지원표지와 독자유도지원표지 중 독자유도지원표지가 월등히 많이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세 연설문 모두 Self-mention과 Attitude marker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대통령 연설문은 대통령 본인의 의지와 태도에 대한 언급이 잦으므로 이러한 메타언어의 활용도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각 연설자의 개성과 연설문 작성 시대, 목적 등에 따라 메타언어 활용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 연설문에 주로 사용되는 메타언어는 비슷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대통령 연설문에 활용된 메타언어의 번역기법은 직역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생략기법이 많았다. 특히 Self-mention 범주는 'I', 'We' 'me' 같은 것으로 한국어에서는 주어에 대한 관행적 생략이 빈번히 이루어짐으로 자연스러운 번역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생략을 번역기법으로 활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시대, 개성, 연설문의 목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통령 연설문이라는 고유 특징에 비추어 메타언어의 활용양상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텍스트 유형에 따라 번역전략이 달라지므로, 본 연설문의 경우는 원문을 그대로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직역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번역 전략 분석결과와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오로지 세 개의 연설문에만 국한되었다는 점과 연설문이 작성된 시기의 차이, 목적성, 길이 등의 다른 변수를 세밀하게 차단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지만, 특정 텍스트 유형에 활용되는 메타담화 사용을 실증해 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좀 더 많은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이 결과를 좀 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다른 유형의 텍스트 분석을 병행하여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Work Cited

- 곽중철 2012. Bush 대통령 연설 미국중심주의(Americanism) 수사학의 변화: 9·11 사태를 중심으로, 「논문집」.
- 김철규. 2009.. 코퍼스에 기반한 영국 신문의 논설문과 한국 대학생의 영어 논설문에 사용된 메타담화(metadiscourse) 비교 연구, 「담화와 인지」.
- 김현아 2012. 번역 및 비번역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에 구축된 저자와 독자의 상호작용: 텍스트적 메타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학 연구」 16(2).
- 모린 해리슨, 스티브 2008.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 서울:홍익출판사.
- 박밀 2006. Metadiscourse in English academic writing:focusing on research by Korean students and international researchers,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진원 2015. 번역을 위한 다스쓰기 대상으로서의 메타담화: 전문 번역과 학생 번역과의 차이에 관한 사례연구, 「통번역학 연구」 16(2).
- 엄철주, 김정아, 남혜은, 오유나 2009. 영어 L1과 L2 사용자의 학술 논문에 나타난 상위담화 비교 분석, 「담화와 인지」 16(2).
- 이서영, 이상호 2012.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를 중심으로, 「Speech and Communication」 18.
- 이윤지 2011.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문의 수사에 관한 연구: 토마스 제퍼슨에서 버락 오바마까지 대통령 10명의 취임 연설문을 중심으로, Diction 5.0 적용,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혜영 2008. 메타표현 ‘-말로’의 유형과 담화 기능, 「담화와 인지」 15(3).
- Ken Hyland. 2005. 'Metadiscourse: Exploring interaction in Writing, London and Newyork: Continuum.

텍스트 출처:

1. 조지워싱턴1대 취임연설문, 에이브러햄 링컨 게티즈버그 연설문:

- America's Famous Speeches(미국의 명연설). Information Resource Center Public Affairs Section U.S. Embassy Seoul
2. 도널드 트럼프 당선연설문: The Huffington Post(온라인 신문)

Abstract

Meta-discourse Analysis - USA Presidents' Speeches <President George Washington's First Inaugural Speech, President Abraham Lincoln's Gettysburg Speech, Donald Trump's Victory Speech>

Kim, Yeonju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gure out how meta-discourse is utilized in US Presidents' speeches which are rich in rhetorical devices and to analyze how the used meta-discourses are translated.

It is found that Interactional Resources which are used for readers to be involved in text are used more than Interactive Resources which are used to support readers for better understanding in text itself in all 3 speeches. Since there may be frequent expressions to appeal his or her will and attitudes in presidents' speeches, the result is assumable. And the most used translation technique is literal translation followed by omission. For presidents' speech is utmost official document, translator should try to translate the speech as originally as possible. Especially, The expressions belonged to Self-mention category in Interactional Resources such as 'I', 'We', 'me' are mostly omitted in Korean. Since the first person in Korean is commonly omitted in practice, they might be omitted for natural translation.

Though there may have some differences following the era, personality or objective of the speech, it is assumable that usage of meta-discourse is quite similar in terms of presidents' speech.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verifies the usage of meta-discourse in certain text type.

Key Words

meta-discourse, presidents' speech, translation, interactive resources,
interactional resources

후텍스트 분석을 통한 자막 번역 과정 연구 -‘황석희’ 번역가를 중심으로

김 은 아

1. 서 론

‘황석희’는 영화 ‘데드풀’이 흥행하면서 번역이 잘되었다는 평가로 화제가 된 번역가이다. 이전에도 이미 영화번역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지만, 대부분 영화에서 번역가 이름을 크레딧 자막에 넣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관객들도 번역가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데드풀’ 이후에도 자막 번역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 황석희가 다른 번역가들과 다른 점은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번역 작품을 알리고 오역에 대한 피드백을 꾸준히 받는다는 점이다.

체스터만(2009)은 번역 연구에 있어 사회학적 접근을 통한 3가지 하위 연구 분야를 제시하였는데, 그중 번역과정에 관한 연구를 언급하였다. 이상원(2008)은 번역과정의 연구로서 품질 평가 절차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이 외에도 교정교열 과정과 팀 번역 시 협동 등이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조성은(2014)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영상번역 연구 동향은 대부분이 화용론 등 언어학적 접근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원문과 번역문의 비교를 통한 평가 혹은 전략 연구에 치우쳐 있다. 하지만, 점점 번역가 즉, 번역 주체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으며(김영신, 2012) 번역 과정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문학 번역가의 경우 번역된 책에 역자 후기 혹은 역주가 있는 경우가 있어 비교적 번역가의 목소리를 듣기가 쉬운 편이지만, 자막 번역가에 대한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영화에 자막 번역가의 이름이 뜨는 경우가 영화 배급사에 따라 다르고 자막에 역주를 달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목을 받는 번역가들은 인터뷰 혹은 SNS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가시성이 드러나면서 번역가 연구가 점차 가능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활발한 번역가 황석희의 후텍스트 연구를 통해 번역가의 자막 번역 과정과 관객과의 소통의 과정을 살

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근거

2.1. 번역가의 가시성

지금까지의 번역 연구 동향에서 보이듯 영상 연구 분야에서는 주로 번역 텍스트가 학자들의 관심이었다(강지혜, 2010). 또한, 번역가가 주목을 받는 경우에는 잘된 번역보다는 오역 사례를 지적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번역학에서도 번역주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번역가 가시성에 대한 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베누티(1995; 전현주 2009에서 재인용)는 이국화 번역과 자국화 번역 전략에서 가시성을 논의하였는데 현대 영미 문화권 번역가의 활동을 기술하기 위해서였다. 베누티(1995)에 의하면 번역가는 비가시적일 수밖에 없는데, 도착언어에서 유창하게 잘 읽힐 때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쓰지유미(2001) 또한 번역가의 가시성을 언급하였는데, 번역가는 원래 돋보이지 않으며, 자신을 어느 수준까지 지워야 번역이라는 행위가 성립하므로, 역자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번역은 곤란해진다고 주장하였다.

자막 번역 또한 마찬가지로 관객은 영화의 원문 대사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한다. 따라서, 번역가의 가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크레딧 자막에 뜬다 하더라도 잠시 뜨고 사라지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잘 기억되지 않지만, SNS 혹은 블로그에서 활발한 번역가의 경우 가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번역에 대한 입장, 전략 등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 후텍스트

번역가를 연구하는 경우 텍스트를 분석하지만, 연구의 초점은 번역주체이다(강지혜, 2010). 따라서, 텍스트의 경우에도 ST와 TT와 같은 텍스트가 아닌 번역가의 가시성이 드러나는 텍스트가 필요한데, 주네트(Genette 1987)은 이를 결텍스트로 구분하였다. 주네트(Genette 1987; 한미선 2013에서 재인용)는 결텍스트를 주변 텍스트와 후텍스트로 구분하였으며, 결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주변 텍스트 위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책 표지, 역자 후기, 작품 해설과 같은

텍스트를 포함하며, 후텍스트에는 신문, 잡지 인터뷰 등이 있다(유한내, 2013). 김영신(2012) 또한 번역학의 추세가 번역자 연구로 확대되면서, 역자 후기와 같은 후텍스트에 나타난 양상을 살펴보면 번역가들의 가시성과 번역에 대한 입장, 전략, 등을 점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한내(2013)는 번역사의 사회적 가시성을 연구하기 위해 후텍스트를 데이터로 선정하고 연구하였다. 전현주(2009)는 역자 후기와 같은 결텍스트는 수용자의 독서 동기 유발뿐만 아니라 번역 전략, 작품의 이해도 증진과 번역 작품에 대한 품질보증 측면에 기여하므로, 번역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텍스트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박선희(2015)는 주네트가 제시하는 후텍스트를 공적 텍스트와 사적 텍스트로 분류하였는데, 공적 텍스트로는 신문/잡지 기사, TV/라디오/발표회/심포지엄 인터뷰 또는 대담, 토론, 학회 발표집, 안내서, 기사문 등이 있으며, 사적 텍스트로는 일기, 편지 사적 대화 등이 있다고 밝혔다.

황석희는 ‘캐롤’과 ‘데드풀’이후에도 활발한 관객과의 소통과 블로그 활동으로 가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영상 번역가 황석희의 번역 후기 혹은 관객과의 질의응답과 같은 SNS 자료 또한 사적 텍스트라는 범위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번역 과정을 연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데이터

자막 번역가 황석희의 2016년 번역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노예 12년’, ‘폭스 캐처’, ‘아메리칸 허슬’, ‘셀마’,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캐롤’, ‘사울의 아들’, ‘스포트라이트’, ‘인사이드 르윈’, ‘나우 유 씨 미 : 마술사기단’, ‘다이버전트’, ‘데드풀’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번역하였다.

연구 데이터는 황석희 번역가의 블로그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 번역 후기 혹은 개인 트위터 자료를 후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기사로는 씨네 21의 ‘자막 짝는 동네 형’, “영화로 수다 떨며 늙고 싶다”, 빅이슈의 ‘접니다 영화 자막 만드는 남자, 영화번역가 황석희 이 사람이 사는 법’을 선정하였고, 황석희 개인 블로그 게재 글에서는 ‘캐롤-번역 후기’, ‘나는 번역인입니다’, ‘블루레이엔 더 좋은 자막이 실린다’, ‘번역가가 클라이언트와 투닥거려도 되나’, ‘본 투 비 블루 -

번역 후기'이고, 그 외의 내용은 번역가의 트위터를 참고하였다.

3.2 연구 방법

영화 자막은 영화 배급사에 따라 자막 번역가의 이름이 크레딧 자막으로 뜨기도 하고, 뜨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막 번역가가 누구인지 찾는 것 또한 힘든 일인 경우도 많다. 황석희 번역가의 경우 개인 블로그와 SNS를 통해 자신의 번역 작품을 소개하고 번역 후기를 남기고 있으므로, 번역가의 번역 의도 혹은 번역 계기 등 번역가 연구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수월하였다.

인터뷰, 블로그, 트위터 등에서 수집한 번역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업 선정에서부터 번역과정, 피드백, 그리고 블루레이가 출판되기까지 과정에서 번역가의 가시성이 나타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영화 자막 번역 과정에서 번역가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 분석 결과

4.1. 번역 작품의 선정

자막 번역가는 번역 의뢰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황석희도 마찬가지로 영화 '데드풀' 번역 이후 번역에 대한 호평을 받으며 유명해졌고, 이후 여러 영화에 대한 의뢰가 더욱 늘었다고 한다. 즉, 영화사 측에서 번역가에게 번역 작품과 대본을 주고 번역을 의뢰하는 것이 번역의 첫째 단계이다. 예외적인 경우, 영화 '캐틀'은 황석희 번역가 본인이 먼저 수입사에 영화에 대한 애정과 작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작품이라고 하였다. 영화 트레일러를 본 순간 음악과 장르가 너무 좋아 배급사에 직접 연락해 꼭 번역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이미 활발하게 활동 중인 번역가이며, 이전 작품에서 좋은 번역 평가를 받은 번역가라는 점에서 직접 의뢰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배급사 또한 아직 다른 번역사에게 의뢰를 맡기지 않은 경우, 직접 의뢰한 번역사에게 번역 작업을 맡길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2. 번역 후 모니터링 시사

번역 의뢰를 받으면 스크리너와 대본을 받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스크리너의 경우 워터마크가 찍혀 있거나 화질이 떨어지는 영상으로 작업하게 된다고 한다.

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본에서 번역 난관에 부딪히기도 한다. ‘본 투 비 블루’의 번역 후기에서 황석희는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대본으로 인한 번역 문제점을 다루었다.

(1) 사실 이 작품은 대본의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해외 제작사에서 대본 만드는 회사에 따로 의뢰를 해서 대본이 나오는 게 보통인데 아무리 해외에 있는 회사라고 해도 회사에 따라 대본의 질이 천차만별이에요. 디테이션에 의존해 대본을 만드는 곳도 많은데 아시아인보다 못 듣는 경우를 종종 봐요. 너무 엉뚱하게 써놓는다는 거죠. ‘본 투 비 블루 - 번역 후기’

번역하기에 앞서 번역가는 영상을 확인하고 대본을 확인하는데, 대본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영화사에 새로운 대본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번역가 스스로 대본을 완성해야 한다. ‘황석희’의 경우 직접 다시 디테이션을 하거나 외국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으며, 번역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해 감독의 인터뷰 자료 등에서 힌트를 얻어 번역해야 한다고 전했다. 즉, 번역가는 저화질의 영상뿐만 아니라 미완성된 대본을 가지고 번역을 하게 된다.

4.3. 관객의 피드백

번역 후 모니터링 시사를 마치고 나면 관객들이 자막에 관해 질문하는 경우도 있으며, 황석희의 경우 개인 ‘트위터’ 혹은 ‘블로그’에서 아래와 같은 문구를 남겨 관객들에게서 자막 오류나 질문을 받고 있다.

(2) 제 자막에서 언어, 윤리, 영화적 오류 등을 발견하신 분들은 이 링크로(subtitle.net/contact)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히 보고 더 나아진 결과물로 보답하겠습니다. ‘황석희 트위터’

황석희는 개인 트위터에 윗글을 게시해놓고, 관객들로부터 번역과 관련된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피드백은 블루레이를 출시하기 전에 자막을 수정할 때 참고한다고 하였다. 책 번역과 달리 자막 번역은 영화 상영 이후 자막에 대한 텍스트가 남지 않기 때문에, 번역 오류에 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블루레이 혹은 VOD와 같은 서비스로 인해 자막 또한 소장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드백을 통한 수정 또한 배급사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극장용 자막을 번역한 번역가가 직접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4.4. 블루레이 수정

극장판이 DVD 혹은 블루레이로 판매되는 경우 극장판과 같은 버전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되기도 한다. 황석희가 번역한 영화 ‘캐롤’의 경우 IPTV는 극장판 그대로 방영 중이며, DVD와 블루레이는 수정된 번역본으로 출시되었다. 이는 DVD 배급사 혹은 IPTV 사에 따라 다르지만, 영화 ‘캐롤’의 경우 전면적으로 수정되어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 이는 번역가가 트위터에 자신이 수정을 맡았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3) 요새 블루레이로 제작되는 제 작품들은 대부분 제가 따로 요청해서 대본을 재감수합니다. 극장 상영이 끝나고 블루레이로 들어가면서 수정할 점이 나기 때문에 그간 들어온 관객들의 피드백이나 제가 찾아낸 아쉬운 점들을 반영하고 오류들을 수정해요. IPTV나 VOD로 들어갈 때도 모두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모르는 새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판권과 영상만 넘기면 끝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넘어가서 상영됩니다. ‘블루레이엔 더 좋은 자막이 실린다?’

IPTV에서는 극장판 영화가 동시 상영되는 경우도 있어,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블루레이나 DVD의 경우 극장 상영 이후 출시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수정 가능하다고 한다. 블루레이 작업은 추가 페이지가 있냐는 질문에 작가는 없다고 하면서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는 번역가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볼 수 있었는데, 이미 오류를 확인했는데 바로잡지 않고 블루레이가 그대로 발매되게 두는 건 무책임한 일이지 않냐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이는 배급사에 따라 다른데 직배사 영화의 경우 블루레이 자막을 수정하는 작업이 불가할 때도 있고, 특히 모든 영화가 블루레이로 출시되지 않는다는 점도 있으며, 극장판과 동시에 상영되는 경우 혹은 블루레이 출시 날짜가 급한 경우 수정 과정은 생략되기도 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번역가의 가시성이 드러나는 후텍스트 분석을 통해 자막 번역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문학 번역과 달리 역주와 같은 번역가의 가시성이 나타나는 글은 자막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자막 번역가 중 ‘황석희’는 인터뷰 자료 외에도 개인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번역 후기를 남기는 등 관객과의 소통이 많은 번역가이므로, 번역가의 가시성이 드러나는 자료 수집이 가능하였다.

자막 번역의 과정은 크게 번역 작품의 선정, 번역 후 모니터링 시사, 관객의 피드백, 그리고 DVD 혹은 블루레이 버전 수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베누티(1995)는 번역가는 비가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 잘된 번역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듯이, 번역된 자막에서 번역가 황석희의 가시성이 뚜렷하지 않았기에 호평을 받은 것이겠지, 특정 영화의 경우 번역가가 직접 번역 작품 번역을 배급사에 의뢰했다는 점과, 블루레이 판에서는 관객들의 피드백을 참고하여 전면적인 수정을 거쳐 발매했다는 점에서 번역가의 가시성이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번역가 황석희의 입장은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고, 또한 자신의 번역 스타일이 생기기도 하며, 관객들이 원하는 번역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단순 관객이 아닌 특정 영화 팬의 입장에서 볼 때 블루레이나 DVD의 소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번역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번역가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번역가의 가시성은 번역된 자막 자체에서 번역가는 비가시적일 수밖에 없지만, 후텍스트를 통해 드러나는 번역 과정에서 번역가의 개입 혹은 관객과의 소통을 통한 번역가의 가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영화 배급사와 DVD 제작사에 번역가의 요구로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번역가의 확장된 역할과 입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막 번역 연구를 원문 대사와 자막 비교를 통한 오역 분석 혹은 전략 분석에서 확장해, 번역가 주체 연구를 통한 실제 자막 번역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번역가의 입장에서 서술된 후텍스트를 통해 분석한 연구이므로, 좀 더 정밀한 번역 과정 연구를 위해서는 번역가 외에도 배급사 혹은 영화사 인터뷰 자료 등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Work Cited

- 김영신. 2012. 「역자후기를 통해 본 번역사의 자기 이미지 연구」, 『번역학연구』 13.4, 7-27.
- 김영신. 2012. 「번역 서평 분석을 통한 번역사의 비가시성 연구 - 엄마를 부탁해의 서평 분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4.2, 63-78.
- 박선희. 2015. 「번역문의 결텍스트 -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에 대한 정의」, 『번역학연구』 16.1, 7-33.
- 쓰지유미. 2001. 『번역사 산책(이희재 역)』, 서울: 궁리출판.
- 유한내. 2013. 「번역사의 사회적 가시성 연구: 정영목 <로드>의 후텍스트 분석」, 『통번역학연구』 17.4, 101-119.
- 전현주. 2009. 「역자의 (불)가시성 - 역자 후기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2.2, 211-229.
- 한미선. 2013. 「풍자소설 번역에서의 결텍스트 기능 및 특징 - ‘걸리버 여행기’와 ‘동물농장’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4, 199-233.
- 이상원. 2008. 「문학번역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번역학연구 9.2, 149-66.
- Venuti, L.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New York: Routledge.
- Chesterman, Andrew 2009.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or Studies’, Hermes 42, 13-22.

웹사이트

1. 황석희 트위터. <https://twitter.com/littlepeace1979>
2. 황석희 홈페이지. <http://subtitler.net>

인터뷰 기사

- 김송희. 2016. [컬처 앤 잡] 자막 짚는 동네 형. 씨네 21.
<http://www.campuscine21.com/?p=33163>
- 염은영. 2016. 접니다 영화 자막 만드는 남자, 영화번역가 황석희 이 사람이 사는 법. 빅이슈.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2867&contents_id=117079
- 이주현. 2016. “영화로 수다 떨며 늙고 싶다”. 씨네21.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83375

황석희. 2016. 블루레이엔 더 좋은 자막이 실린다?. 영상번역 이야기 by 석희.

황석희. 2016. 번역가가 클라이언트와 투닥거려도 되나?. 영상번역 이야기 by 석희.

황석희. 2016. 본 투 비 블루 - 번역 후기. 영상번역 이야기 by 석희.

황석희. 2016. 캐롤-번역 후기. 영상번역 이야기 by 석희.

황석희 2016. 나는 번역인입니다. 영상번역 이야기 by 석희.

Abstract

Study on Subtitling Process through Translator's Epitext

Kim, Euna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cess of subtitling by analyzing the epitext while evaluating the translator's visibility from the epitext. The audiovisual text cannot contain the translator's note while literature translator can. Therefore, Hwang Seokhee, who is the well-known subtitle translator, has his own blog and twitter to upload his translation note and to receive feedback from the viewers, which enabled this research to collect data that shows the translator's visibility. After analyzing the interview articles, translator's notes, and twitter, the subtitling process was identified; selection or request of film for translation, monitoring premiere after translation, feedback from audiences, publication of DVD or Blue-ray. Venuti(1995) stated when translators are very invisible, receivers or audiences are likely to consider the translation more fluent and well-translated. But, to be invisible in translation, translators themselves should be visible and responsible in every step of the production; from selecting films to the publishing of the DVDs. The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it extended the research area focusing on epitext for audiovisual translations and identified the actual subtitling process from the translator's view.

Key Words

AVT, subtitle, translator's invisibility, translator, subtitle process, epitext

소설 번역에서 담화표지 *well*의 번역양상

서 은 화

1. 들어가며

담화표지(discourse marker)에 관한 연구는 Östman(1981), Schiffrin(1987) 등의 학자들이 담화에서 담화표지가 가지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이후로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발화의 틀을 정하고 실현하는데 ‘수많은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고 대화가 진행되는 맥락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에 따라 일정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Mertz and Yovel 2003: 6). 이러한 태도의 표명이 담화표지의 사용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 참여자는 이러한 신호를 화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이후 이어질 대화의 향방을 가늠하게 된다.

담화표지가 명제적 의미를 가지지 않고 화용적 효용을 가진다(Lenk, 1998: 52)는 점 때문에 전통적 연구에서 담화표지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연구주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언어학에서 화용적 측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고 그 중에서도 담화표지 *well*은 영어의 그 어떤 다른 담화표지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 동안의 담화표지에 관한 연구에 있어 담화표지 *well*은 다양한 이론적 접근에 대한 실험장(testing ground)로서 기능해왔다(Aijmer: 20). 그럼에도 기존의 연구들은 담화표지 *well*이 의미(meaning)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몇 가지 기능을 가지는지, 그 기능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국어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수많은 관련 논문들이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김향화의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2011)’, 이기갑의 ‘국어 담화의 연결 표지 - 완형 표현의 반복(2006)’ 정도가 한국어 담화표지에 대해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일반적 기능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고 있을 뿐, 그 외 대다수의 논문은 특정 담화표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연

구한 것들이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담화표지 *well*이 영어 원천텍스트(이하 ST)에서 한국어 도착텍스트(이하 TT)로 번역됨에 있어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텍스트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했다. 이와 관련한 연구가 아직 전무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담화표지 *well*이 한국어로 번역됨에 있어 단순히 ‘음’, ‘글쎄’ 등으로 번역되기 보다는 그 화용적 의미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을까 생각하였고 그 변이 양상을 분석해보고 싶었다. 또한 담화표지 *well*이 한국어 TT에서 번역되지 않고 생략이 된다면 생략되는 부분에 있어서 *well*의 기능에 따른 분류를 했을 때 특정 기능에서 생략되거나 담화표지와의 다른 말로 번역되는 경향성을 보이는지 여부도 궁금했다. 한국어에도 담화표지가 있지만 영어에서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화용적으로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양 언어의 담화표지 사용에 있어 다소간의 상이함이 있을 것이므로 번역문에서 번역자의 개입이나 담화표지의 생략과 같은 변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2. 담화표지의 기능

담화표지란 직접 선행한 발화에 의해 확립된 정보의 집합에 대해 뒤따르는 후행 발화의 연속적인 관계나 연관성을 청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표시장치이다(Goldberg, 1980). 담화표지라는 용어를 일반화시킨 학자는 Schiffrin(1987: 36)으로 그는 담화표지를 일정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작용이 해석 가능하도록 고안되거나 만들어진 ‘이야기의 맥락적 지표’로 정의하였다. Schiffrin은 대화 분석(Conversation Analysis)을 기반으로 담화 내에서 국부적인 심층결속성을 만들어 내는 일정한 담화표지의 기능에 중점을 두었다. 그에 따르면 그가 연구한 담화표지들은 모두 인접한 발화에서 사용되고 그것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관련을 가지는지를 나타낸다(Schiffrin 1987: 315). 그가 정리한 담화표지의 특징은 (1) 문장으로부터 통사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발화의 첫머리에 자주 나타난다 (3) 운율적인 특징을 가진다 (4)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이다(Schiffrin, 1987). 한편 Hölker(1991: 78-79)는 담화표지의 네 가지 기본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담화표지는 발화의 진리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발화의 명제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담화표지는 말하

는 내용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3) 담화표지는 지시적, 의연적, 인지적 기능보다는 감정을 자극하고 표현적인 기능을 가진다.

담화에서 새로운 국면을 투사하는 담화표지가 가지는 능력은 메타언어적 지표의 중요한 측면이다. 담화표지는 담화를 조절하고 그 진행을 바꾸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Aijmer: 5). 대화의 전환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대화 참가자들은 해당 담화표지를 이해하기 위해 맥락적 추정을 끌어내는데 있어 자신의 배경지식에 의지하고 Grice의 대화 함축이론과 유사한 추론 과정을 사용하게 된다(Gumperz 1996: 379-380). 담화표지는 맥락상의 상호작용에서 그 의미를 얻는다. 그러므로 맥락상 의도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Aijmer: 13).

상황 맥락적 신호라는 관점에서 담화표지 *well*을 기술하게 되면 *well*에 의해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특정한 발화 행위와 관련된 예상에 따라 왜 *well*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사용하는 *well*은 수업이 시작됨을 나타내거나 대화의 순서가 학생인지 선생님인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수업진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되고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간의 진료상의 대화에서 사용되는 *well*은 의사가 질문하고 환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뷰 형식과 관계가 있다(Aijmer: 7). 또한 Mertz and Yovel이 말한 것처럼 화자가 일정한 입장을 취하고자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중에서도 인식이나 지식에 대한 입장을 다루게 되면 담화표지 *well*은 불확실성과 공손성과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well*은 법정 심문에서 권위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검사가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목격자가 사용할 때는 방어적인 태도와 관련될 수 있다(Aijmer: 14). 이 때 *well*은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Ochs 1996: 424).

본고에서는 총 3개의 소설작품을 분석 자료로 선택했는데, 친구나 가족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에서 담화표지 *well*이 공손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인터뷰라거나 잘 모르는 사이의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는 공손성을 나타내기 위한 *well*이 빈번하게 쓰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선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대화 참여자가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well*을 사용할 때, 대화가 발생하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그 기능에 차이가 생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담화표지가 다양한 텍스트 유형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고려할 때, 담화표지가 고정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기 어렵다(Aijmer: 18). 그러므로 담화표지는 격식적이고 기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것

들이 사용되는 맥락에 대한 설명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Aijmer는 담화표지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할수록 그 용례와 관련된 더 많은 관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2002: 8). 이어서 그는 담화표지의 특징은 통사적이기도 하고 문체적이기도 하지만, 담화표지의 격식적인 특징에 대해 상세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담화표지의 형태와 의사소통에서 담화표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관련성을 확립하기가 어렵기 때문 일 것이다(Aijmer: 16)라고 말하면서 담화표지 연구의 실질적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지금껏 담화표지 그 중에서도 *well*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시도되어 왔다. 예를 들자면 심층결속성에 근거한 Schiffrrin의 이론(1987), 관련성 이론(Jucker 1993; Blackemore 2002), 대화 게임 이론(Carlson 1984), 공손성 이론(Watts 1989) 등이 있다. 이 이론들은 *well*의 용례에 대해서 단일한 원리의 측면에서만 설명하거나 핵심 의미를 상정하고, ‘규칙’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Aijmer: 21).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이유로 단일한 원리로만 담화표지 *well*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Aijmer는 이제껏 연구되어온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언어 사용시 작동하고 있는 기능들을 바탕으로 담화표지 *well*의 기능을 분류하였다. 그것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대화에서 담화표지 *well*의 기능

기능	세부항목
Coherence 심층결속	Transition to a new turn 화제 전환
	Transition according to an agenda 화제 이행
	Word-search 말 고르기
	Self-repair 자기 수정
Involvement 참여	Agreement 동의
	Disagreement 의견 불일치
	Insufficient answers 응답 흐리기
Politeness 공손성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담화표지 *well*은 명제적 의미는 가지지 않지만

‘말해진 것’에 대해 청자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가늠하도록 해준다 (Aijmer: 20). 이는 화용적 관점에서 *we//*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대화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담화표지를 정확히 해석해야 할 이는 실제 대화에서의 청자에 한하지 않는다. 번역(이나 통역)시 번역(통역)자도 또한 유념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기도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Hale(1999)은 법정 심문에서 통역자가 개입된 경우에 대해서 사례 연구를 한 후 통역자는 *we//*를 자주 오역하거나 생략하여 오해의 결과를 낳도록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담화표지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번역(통역)자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라고 할 것이다.

3. 번역 텍스트분석

3.1. 텍스트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텍스트로 삼은 소설작품은 Angela Carter(안젤라 카터)의 ‘Nights at the Circus(한국어 번역서 ‘씨커스의 밤’)’과 Kazuo Ishiguro(카즈오 이시구로)의 ‘The remains of the Day(한국어 번역서 ‘남아있는 나날’)’ 그리고 Julian Barnes(줄리언 반즈)의 ‘The Sense of Ending(한국어 번역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의 총 세 작품이다. 작품 속에서 사용된 담화표지 *we//*의 기능이 현재의 용례와 제일 근접할 현대소설, 그 중에서도 1980년대 이후 영국소설을 선택하였다. 번역서의 출판사와 번역자는 모두 다르다. ‘씨커스의 밤’에서 작중 인물들의 대화는 친한 동료들 사이에 또는 중심인물 ‘페버스’와 신문기자 사이의 인터뷰 위주로 진행된다. ‘남아있는 나날’에서는 작중 화자인 ‘나’인 ‘스티븐스’와 그 주변 인물들 사이의 대화 위주로 진행되는데 그들 대부분이 친한 사이라기보다는 격식을 갖추어서 대해야 할 관계의 사람들이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도 ‘남아있는 나날’과 마찬가지로 1인칭 소설로서 작중 화자인 ‘토니’와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가 주를 이루는데, 첫사랑이었던 대학동창, 딸, 전처와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격식 없는 사이의 허물없는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각 작품 당 대화에서 관찰된 담화표지 *we//*의 번역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2] 텍스트1 – Nights at the Circus(써커스의 밤)

ST	TT	횟수
Well	그럼	1
	글썸 / 글썸요	7
	음	1
	자	2
	자, 그럼	1
	좋아	2
	하지만	1
	생략	1
합계: 16		합계 : 16

[표 3] 텍스트2 – The Remains of the Day(남아있는 나날)

ST	TT	횟수
Well	그래요	1
	그러고나니	1
	그럼	1
	그렇다면	1
	결국	1
	글썸 / 글썸요	2
	어쨌거나	3
	에	1
	이제 그만	1
	좋아요	1
	하긴	1
	생략	4
합계: 18		합계 : 18

[표 4] 텍스트3 - The Sense of Ending(예감은 들리지 않는다)

ST	TT	횟수
Well	그래	1
	그래도	2
	그럼	3
	그렇담/그렇다면	3
	물론	1
	뭐	4
	사실	1
	아	1
	에이	1
	음	2
	자	2
	참내	1
	생략	7
합계: 29		합계: 29

ST에서의 *we//*이 TT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모습은 위의 표와 같다. 담화표지 *we//*이 실제 화용적으로 가지는 기능을 [표 1]과 같이 분류했을 때 한국어로 단순히 ‘음’, ‘글쎄’, ‘뭐’, ‘자’ 등으로만 번역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사실이었다. 그렇다 해도 한국어 담화표지 중에서 *we//*과 가장 많이 대응한다고 여겨지는 담화표지는 ‘글쎄’가 아닐까 한다. ‘글쎄’의 기능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응답을 회피하거나, 화제를 전환하고 싶을 때, 또는 상대방의 말을 거부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김은정 67-69). 영어담화표지 *we//*과 한국어 담화표지 ‘글쎄’의 화용적 쓰임새에는 서로 겹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므로 ‘글쎄’만으로 *we//*의 번역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ST의 대화상에서 나타난 *we//*의 화용적 기능을 TT는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해 내었을까? 텍스트1의 번역자는 총 16회에 걸친 *we//*의 번역에서 총 7회에서 ‘글쎄(글쎄요)’를 번역어로 사용하였다. 세 작품 중 사용빈도가 가장 높다. ‘화제 전환’, ‘말 고르기’, ‘의견 불일치’의 경우에 고루 사용했다. 이에 반해 텍스트2의 번역자는 ‘말 고르기’와 ‘의견 불일치’의 경우에는 ‘글쎄(글쎄요)’를 사용하고 ‘화제 전환’시에는 ‘어쨌거나’를 사용하였다. 한국어 담화표지에 화제 전환이나 회피를 위해 사용하

는 ‘어쨌거나’라는 접속표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번역자의 번역재량과 관련이 큰 부분이라 논의의 여지가 별로 없는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그런 이유로 본 연구는 어떤 기능을 가진 담화표지가 생략되거나 생략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예문 1]

“Well, I hate to disagree with you, Sybil. but this gentleman certainly strikes a mighty hard bargain.”

“글쎄, 난 네 생각에 반대하기는 싫어, 씨빌, 하지만 이 신사가 좀 어려운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건 분명한데 말이야.”

[예문 2]

Tony : “I think it's more that I'm ... peaceable.”

Veronica : “Well, I wouldn't want to disturb your self-image.”

토니 : “그렇다기보단…… 그냥 불화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베로니카 : “네가 생각하는 네 이미지를 흐트러뜨릴 생각은 없어.”

위의 [예문 1]과 [예문 2]는 다른 작품 속 다른 상황이지만 ST에서 *well*의 쓰임새가 거의 똑같다.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의견불일치 기능) 대놓고 반대의견을 내놓을 경우 상대방이 마음 상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말을 고르는 상황이다(공손성 기능). 즉, 여기서의 *well*은 대화참여에서의 ‘의견불일치’의 기능과 ‘공손성’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Östman은 담화표지는 사교적 또는 담화적 심층결속성, 화자의 대화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공손성이라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이 기능들이 담화표지에 빈틈없이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며 *well*은 다른 방식으로 분류되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well*이 동시에 몇 가지 기능(mixed functions)을 가질 수도 있다(Imo 2009, 재인용)고 말한다. [예문 1]의 번역자는 ‘글쎄’라는 한국어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망설임’이나 ‘유보’의 느낌을 주어 좀 더 신중하게 말하려 한다는 느낌을 전달하였다면 [예문 2]에서는 *well*을 번역시 생략함으로서 말투에서 주저함이 없는 단호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well*의 의견불일치 기능에 대한 또 다른 번역사례를 보자.

[예문 3]

Tony : “It was just something my English master said.”

Veronica : “Well, now you’re at university we must get you to think for yourself, mustn’t we?”

토니 : “그건 그냥 우리 영어 선생님이 한 말이야.”

베로니카 : “그래도 이제 우린 대학생이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해, 안 그렇지?”

[예문 4]

Tony : “I don’t think anything at all makes it that.”

Veronica : “Well, you might have had the decency to tell me beforehand.”

토니 : “그렇게 말할 만한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싶은데.”

베로니카 : “그래도, 사전에 내게 말해주는 예의 정도는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

위의 두 경우에서 *we//*은 상대방의 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토니의 말에 대해 베로니카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에 앞서 *we//*을 사용함으로써 토니의 말이 탐탁치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상대에 대한 입장과 다름을 표시하는 한국어에는 ‘그러나’, ‘하지만’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예문 4]에서 번역자는 ‘그래도’를 사용하였다. ‘그래도’는 ‘그리하여도’의 줄임말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 ‘그리하여’에 보조사 ‘도’를 덧붙여서 양보의 의미가 더해진 경우다. 더 풀어서 말해보면 ‘그리했다 하더라도’ 정도가 될 것이고, 이 말은 ‘너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정도의 의미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의 말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공손성(Politeness)’의 의미가 번역문에서 오히려 더 잘 드러난 경우라고 할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원문의 *we//*에서도 그리고 그를 한국어로 번역한 경우에도 담화표지 *we//*은 단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상대방의 말에 대해 반박을 하고자 할 경우 *we//*은 상대의 체면(face)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공손성(politeness)의 의미를 가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we//*의 혼합된 기능(mixed function)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well*이 공손성의 기능과 그 외의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가 아니라 오로지 공손성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생략이 되거나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거나(‘그럼’) 상대방의 말에 긍정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부사(‘하긴’)로 번역되었음을 볼 수 있다.

[표 5] 공손성 기능을 가진 *well*의 번역양상

	생략된 경우	번역된 경우
텍스트1	0	0
텍스트2	2	1(하긴)
텍스트3	1	2(그럼)

또한 *well*이 ‘말 고르기(word search)’ 기능을 가질 때에도 한국어 번역시 생략되거나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 접속부사로 번역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말 고르기 기능을 가진 *well*의 번역양상

	생략된 경우	번역된 경우
텍스트1	1	1(글쎄요)
텍스트2	2	1(글쎄요)
텍스트3	3	7(음, 뭐, 아, 자)

이 경우 *well*은 문맥상 뚜렷한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번역자가 *well*을 한국어로 살려서 표현할 것인지 생략할 것인지에 대해 재량의 여지가 더 클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well*이 제일 다채롭게 번역된 것은 ‘자기 수정(self-repair)’과 ‘의견 불일치(disagreement)’기능을 가질 때였다. ‘자기 수정’ 기능은 텍스트3에서만 두 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각각 ‘물론’과 ‘사실’로 번역되었다. ‘의견 불일치’ 기능에 대한 번역양상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의견 불일치 기능을 가진 *well*의 번역양상

	생략된 경우	번역된 경우
텍스트1	0	3(글썸, 그럼, 하지만)
텍스트2	0	1(글썸)
텍스트3	2	8(그래도, 그렇담, 그래, 에이, 참내)

‘의견 불일치’의 경우에는 거의 생략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텍스트3에서 두 번 생략되었으나 그 한 경우는 위의 [예문 2]와 같고 나머지 한 경우는 아래의 예문을 보자.

[예문 5]

Veronica : “You selfish bastard,” she said, the next time we met.

Tony : “Yes, well, there it is.”

베로니카 : “넌 너만 아는 나쁜 놈이야.” 다음번에 만났을 때, 베로니카가 말했다.

토니 : “그래, 왜 그 말이 안 나오나 했다.”

베로니카의 말에 대한 토니의 응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동의의 표현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숨은 뜻은 ‘너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내 생각은 그와 다르다’ 정도로 풀어쓸 수 있을 것 같다. ST에서 토니는 표면상의 긍정 표현인 “Yes, there it is”에 ‘well’을 더함으로써 실제 자신의 생각은 그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번역자는 원문을 표현 그대로 살리기 보다 비꼬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문에 숨은 의미를 살리는 것을 선택했고 그런 과정에서 *well*은 생략이 되었다.

3.2.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소설 작품의 대화상에서 나타난 담화표지 *well*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했다. 담화표지 *well*이 대화 상에서 다양한 화용적 표지로 사용될 때 그에 따른 한국어 번역 또한 그에 맞는 적절한 한국어 표현으로 번역되지 않을까 예상하였다. 번역사례를 분석한 결과, 단순한 ‘동의’를 표시하거나 ‘공손성’을 나타내기 위한 *well*의 경우 한국어 번역에 있어서

는 번역자의 재량이 큰 만큼 ‘아, 자, 뭐, 그럼, 글썄’같은 다양한 한국어 담화표지로 번역되거나 생략이 되었다. 반면, ‘자기 수정’을 위해서나 상대방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나타내기 위해 담화표지 *well*이 사용된 경우, 한국어 번역은 담화표지로 번역되기 보다 ‘물론, 사실, 그렇지만, 그래도’ 등의 부사나 접속부사로 표현이 되었다. *well*이 대화상에서 단순히 ‘말 고르기’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상대가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경우 이에 대해 번역자가 간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대화상에서의 담화표지가 단순히 위의 표에 나열된 한 가지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번역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한국어 담화표지가 아니라 다양한 부사어나 접속어 표지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나가며

담화표지는 연결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화용적 또는 초의사소통적 기능(meta - communicative function)을 수행한다(Helt 1997: 2, Fraser & Makowski 1997:864). 본 연구는 담화표지 *well*이 가지는 기능이 한국어 번역텍스트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말 고르기’나 ‘공손성’의 기능과 같이 뚜렷한 입장이 없이 자신의 말을 시간적으로 약간 유보하는 의도로 쓰인 *well*의 경우 생략이나 표현에 있어 번역자의 재량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대화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앞선 자신의 말에 대해 수정(repair)하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는 생략되지 않았고 한국어 번역시에도 담화표지로 번역되기보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접속부사나 부사어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화표지의 번역사례와 관련한 논문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웠고 구체적인 번역사례를 보고자 하는 열망이 커서 시작하게 된 연구였으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도 담화표지가 대화상에서 하나의 기능만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연구 초기에 간과했던 것이 연구를 더 어렵게 만들었지 않았나 한다. 앞으로 담화표지의 ‘혼합된 기능(mixed function)’에 대

한 연구가 더 심화되기를 바라며 또한 본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남기며 글을 맺을까 한다.

Work Cited

- 강소영. 「담화표지 ‘그러니까’의 사용에 내재한 화자의 담화전략 연구」, 『어문연구학회』 60, 2009.
- 김은정. 『담화표지 ‘그래·글쎄·아니’의 기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향화.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 『한국학논집』 28, 2001.11, 113-140
- 이기갑. 「국어 담화의 연결 표지 - 완형 표현의 반복」, 『담화와인지』 13(2), 2006.8, 133-158.
- 주미경. 「연관성 이론의 관점에서 본 담화표지 *well*의 연구」, 『동아영어영문학』 14, 1998.
- Aijmer, K. *English Discourse Particles: Evidence from a Corpu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002.
- Aijmer, K. *Understanding Pragmatic Markers*, Edinburgh University Press Ltd., 2013.
- Blakemore, D. *Relevance and Linguistic Meaning: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Carlson, L. ‘Well’ in *Dialogue Games: A Discourse Analysis of the Interjection ‘Well’ in Idealized Conversation*.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984.
- Fraser, B. ‘Pragmatic markers’. *Pragmatics*: 1996, 167-90.
- Fischer, K. *Approaches to discourse particles* (eds.). Amsterdam: Elsevier. 2006.
- Gumperz, J.J. ‘The linguistic and cultural relativity of inference’. In J.J. Gumperz, and S.C. Levinson(eds.), *Rethinking Linguistic Relativ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374-406.
- Hale, S. ‘Interpreters’ treatment of discourse markers in courtroom questions’. *Forensic Linguistics* 6: 1999, 57-82.
- Imo, W. ‘Where does the mountain stop? A granular approach to the concept

- of constructions-as-signs'. Place of publication unknown. 2009.
- Jucker, A.H. 'The discourse marker *well*: A relevance theoretical account'. *Journal of Pragmatics* 19: 1993, 435-52.
- Lenk, U. *Marking Discourse Coherence: Functions of Discourse Markers in Spoken English*.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1998.
- Marcus, N. Continuous Semantic Development of the Discourse Marker *Well*, *English Studies* Vol. 90, No. 2, 2009, 214-242.
- Ochs, E. 'Linguistic resources for socializing jumanity'. In J.J. Gumperz and S.C. Levinson (eds), *Rethinking Linguistic Relativ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407-37.
- Östman, J.-O. 'Pragmatic markers twenty years after'. In B. Warvik, S.-K. Tanskanen and R. Hiltunen (eds.), *Organization in Discourse*. Turku: University of Turku. 1995, 95-108.
- Schiffrin, D.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Suh Kyung-hee, Sustainable Disagreement: Well as a Discourse marker in Crisis Negotiation, *사회언어학* 23(2), 2015, 131-160.

분석텍스트

- Barnes, J. *The sense of an Ending*. Vintage Books. 2012.
- Carter, A. *Nights at the Circus*. Penguin Books. 1986
- Ishiguro, K. *The Remains of the Day*. Vintage International. 1990.
- 가즈오 이시구로(송은경 역). *남아있는 나날*. 민음사. 2010.
- 안젤라 카터(조현준 역). *써커스의 밤*. 창비. 2011
- 줄리언 반스(최세희 역).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다산책방. 2012.

Abstract

A Study on Translation Patterns of Discourse Marker *Well*

Seo, Eunhwa

Discourse markers(DM) typically mark off segments in the discourse helping the hearer to understand how the stream of talk is organised. Of a variety of DMs, *well* has received more attention than any other English DM. *Well* is not a part of the propositional content but its function is to enable the hearer to interpret how what is said should be understood.

In this view,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translation patterns of DM *well* that has different pragmatic functions on the conversations in literature texts. According to the text analysis, *well* representing functions related to ‘word search’ or ‘politeness’ is easily omitted or translated into ‘um’, ‘ja’, ‘ah’ or ‘geulsse’ in Korean DMs which has little meaning but stance to the speaker. Meanwhile, given that *well* has a function such as ‘self-repair’ or ‘disagreement’, the *well* is likely to be translated into words in Korean which contain a particular meaning, not DM in Korean.

Key Words

담화표지, discourse marker *well*, translation.

2015학년도 후기 학위취득자 명단

학위구분	수여연월	성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문학박사 (2명)	2015년 8월 28일	송 우 건	존 스타인벡 문학에 나타난 선악의식- 『분노의 포도』, 『진주』, 『에텐의 동 쪽』을 중심으로-	김 용 규
		배 주 용	영어 담화표지에 관한 연구-Well, Like, Indeed, I think의 기능과 사용을 중심으 로-	안 동 환
문학석사 (5명)	2015년 8월 28일	권 성 현	영어 선행사 불일치 생략의 수용성에 관 한 연구	이 상 도
		안 은 혜	영어 합성명사의 한국어 번역에 관한 연구	박 기 성
		이 선 현	치누아 아체베의 『무너져 내리다』에 대한 트랜스모던적 읽기	김 용 규
		임 영 아	Analyses of Ellipsis in English	이 상 도
		조 윤 실	대상 독자 기반 영어 수동문 번역 연구	박 기 성
문학사	2015년 8월 28일	16명	이지현, 김민욱, 김혜린, 박중서, 장혜선, 서민경, 김혜옥, 이소영, 전해진, 조성미, 김범철, 김한빈, 박혜연, 성유진, 이다운, 채한솔	

2016학년도 전기 학위취득자 명단

학위구분	수여연월	성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문학박사 (5명)	2016년 2월 24일	박 유 진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동사구 생략 구문 내 재귀사 해석에 관한 연구	안 동 환
		오 현 영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통사적 섬 효과 인지에 관한 연구	안 동 환
		정 상 모	영어 보충어절 시제표지의 의미해석에 관한 연구	안 동 환
		박 세 리	대학생들의 영어 어휘 및 독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	이 상 도
		윤 예 슴	최적성 이론에 기반한 영어의 어중 약모음 탈락현상 연구	이 상 도
문학석사 (12명)	2016년 2월 24일	권요안나	포스트모던 공간에 맞선 에릭의 주체적 변화 : 돈 드릴로의 『코스모폴리스』	김 용 규
		정 소 영	한국인 고등학생들의 유의어 부정 형용사 언어 사용능력에 관한 연구	전 지 현
		박 진 희	영어 장소구 도치에 관한 연구	장 경 철
		변 혜 영	제약 기반이론을 중심으로 한 영어 단모음화 연구	이 상 도
		송 경 은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발음 인식과 학습자 요인에 관한 연구	이 상 도
		신 형 진	영어 구동사의 구문 분석	장 경 철

문학석사 (12명)	2016년 2월 24일	장 인 권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onological Awareness and Reading Abilities of Korean EFL Learners	이 상 도
		조 미 애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대조담화표지 습득에 관한 연구	전 지 현
		박 은 경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난 자유간접화법 번역 양상 연구	이 재 성
		허 정 미	추상적 복합 체계 은유의 영한 번역 처리 양상 연구 - 시사다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장 경 철
		김 준 수	미국 드라마의 문화적 요소 번역 양상에 대한 통시적 비교 - 시트콤 『프렌즈』와 『빅뱅이론』을 중심으로	이 선 진
문학사	2016년 2월 24일	28명	김다운 최지현 하예린 권태민 모아정 하재훈 김다영 김미현 김윤정 김지현 안소연 엄서윤 이창조 허동인 두동쇄 박시내 박지영 양재은 이서희 이지연 장영은 정혜인 조연경 주윤규 최정원 류시위안 황취 강준현	

2016학년도 영어영문학과 연보

분류	제목	기간
해외 연수	BK21 영상산업 번역전문인력 양성사업단 호주 연수 (The University of 41New South Wales)	2016년 1월 18일 ~2016년 1월 29일
학술 행사	대학원 신입생환영회 및 동계세미나	2016년 2월 27일
	대학원 영문학전공 논문 본발표	2016년 4월 29일
	대학원 어학.문학.번역 봄산행	2016년 4월 30일
	대학원 영문학전공 하계세미나	2016년 8월 19일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16년 8월 26일
	대학원 영어학전공 하계세미나	2016년 8월 28일 ~2016년 8월 29일
	대학원 영어학전공 논문 본발표	2016년 10월 21일
	대학원 영문학전공 논문 본발표	2016년 10월 28일
	대학원 번역학전공 논문 본발표	2016년 10월 28일
	대학원 신입생환영회 및 동계세미나	2016년 2월 17일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6년 2월 24일

『효원영어영문학』 원고 기고 및 작성 요령

• 원고 기고

1. 마 감 일 : 매년 1월 10일
2. 내 용 : 영어학 및 영문학에 관한 논문, 번역, 또는 서평
3. 분 량 : A4용지로 15-20면 내외, 영문 논문은 500행 이내
4. 제출방법 : ‘아래아 한글’ 또는 ‘한글 97’에 담은 디스켓과 프린터 사본 1부
5. 제출자격 :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박사과정 및 수료자
박사학위 취득자, 시간강사, 교수
6. 제 출 처 :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우편번호 46241)
『효원영어영문학』 편집위원(학과사무실 전화 510-1510)

• 원고 작성법

1. 논문은 제목부터 우리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문에 한자와 영문을 쓰지 않기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로 처리한다.
3. 고유명사는 우리말로 표기하되, 처음 나올 때 괄호 속에 영문 표기를 제시한다. 인용문은 번역하되, 분리 인용의 경우 번역문 아래에 원문을 제시한다. 단, 영어학 논문에서 영어 구절이나 문장을 분석하는 경우, 해당구절이나 문장은 번역하지 않는다.
4. 그 밖의 규정은 미국 현대 어문협회(MLA)에서 발행한 *MLA Handbook for Writers for Research Papers*(1995년판)를 따른다. 국내서적이거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각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필자(또는 저자), 「논문제목」, 『책이름』, 편자,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5. 외국 문헌과 국내 문헌을 함께 인용 문헌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국 문헌을 알파벳순에 따라 열거한 다음, 국내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열거한다.
6. 우리말 논문 뒤에는 20행 이내의 영문 요약을 붙인다. 영문으로 된 논문뒤

에는 A4 용지 1면 이내의 우리말 요약을 붙인다.

7. 영문 원고와 영문 요약은 반드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교정을 받은 후 제출한다.
8. 원고 게재는 일정한 심의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효원영어영문학

제35호

2017년 2월 10일 인쇄

2017년 2월 17일 발행

발행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인쇄 만수출판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2동 401-1

Tel : (051) 513-4042, 2662

E-mail : mansu4042@korea.com

mansu4042@naver.com

(비매품)